

정책연구  
2016-10

# 대학진학의 선택과 노동시장 성과

오선정 · 김세움



# 목 차

요 약 .....	i
제1장 서 론 .....	(오선정) ..... 1
제2장 대학생의 대학교육 관련 인식 및 근로실태 ... (오선정) .....	5
제1절 관련 통계 및 선행연구 .....	6
1. 대학진학률, 중도탈락률 및 휴학률 .....	6
2. 대학진학의 목적 .....	8
3. 대학휴학 사유 및 졸업유예 .....	9
4. 대학재학 중 근로 .....	11
제2절 실태조사 및 표본 .....	12
1. 실태조사 개요 .....	12
2. 표본 특성 .....	16
제3절 대학교육 관련 인식 .....	17
제4절 대학생의 근로실태 .....	30
제5절 소 결 .....	47
제3장 대학생 인식 및 근로실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오선정) ..... 50
제1절 관련 통계 및 선행연구 .....	50
1. 대학교육과 노동시장 성과 .....	50
2. 대학교육 및 근로실태와 가족배경 .....	53
제2절 개인적 특성과 대학관련 인식 및 근로실태의 관계 .....	56

1. 분석방법 .....	56
2. 분석결과 .....	61
제3절 소 결 .....	70
<b>제4장 대학재학 중 근로와 노동시장 성과</b> ..... (김세움) .....	73
제1절 선행연구 .....	74
제2절 분석모형 .....	75
제3절 분석자료 .....	76
제4절 분석결과 .....	78
1. 기초통계 .....	78
2. 재학 중 근로가 취업 확률에 미치는 영향 .....	80
3. 재학 중 근로가 취업 후 임금에 미치는 영향 .....	86
4. 재학 중 근로가 취업 후 종사상 지위 및 고용형태에 미치는 영향 .....	93
5. 대학재학 중 근로 결정요인 .....	99
제5절 소 결 .....	100
<b>제5장 대학생 노동시장 개선방안</b> ..... (오선정) .....	102
제1절 대학재학 중 시간제 상용직 근로 희망여부와 진입조건 .....	103
1. 응답자 특성 .....	103
2. 근로희망 여부 .....	105
3. 희망 근로조건 .....	108
제2절 노동시장에서의 대학생 근로자 수요 .....	114
1. 기업체 의견 .....	115
2. 대학생 근로자 의견 .....	116
제3절 소 결 .....	120

제6장 결 론 .....	(오선정) .....	122
참고문헌 .....		127
[부록 1] 기타 자료 통계 및 연구결과 .....		132
[부록 2] 실태조사 설문지 .....		136

## 표 목 차

<표 2- 1> 연도별 대학진학률 .....	7
<표 2- 2> 연도별 대학생 중도탈락률 및 휴학률 .....	8
<표 2- 3> 대학진학의 목적 .....	9
<표 2- 4> 대학휴학 사유 .....	10
<표 2- 5> 실태조사 설계 요약 .....	13
<표 2- 6> 조사 항목 및 세부 내용 .....	15
<표 2- 7> 기초통계 .....	16
<표 2- 8> 대학진학의 가장 큰 이유 .....	18
<표 2- 9> (고졸자 대비) 대학교육의 가장 큰 혜택 .....	20
<표 2-10> 대학교육의 가장 큰 문제 .....	21
<표 2-11> 대학교육의 가장 큰 비용 .....	22
<표 2-12> 대학교육의 평균 예상비용 .....	24
<표 2-13> 고졸 근로자 대비 예상 임금비율 .....	25
<표 2-14> 고졸 근로자 대비 예상 임금비율(평생 기준) .....	27
<표 2-15> 대학졸업 후 예상하는 경제적 지위 .....	28
<표 2-16> 대학졸업 후 예상하는 사회적 지위 .....	29
<표 2-17> 대학생의 연평균 소득활동 종사기간(개월) .....	31
<표 2-18> 대학생 근로자의 연평균 소득활동 종사기간(개월) .....	32
<표 2-19> 대학생 근로자의 연평균 일자리를 바꾸는 횟수 .....	33
<표 2-20> 대학생 근로자의 고용상태 .....	35
<표 2-21> 대학생 근로자의 근로시간 형태 .....	36
<표 2-22> 대학생 근로자의 종사상 지위 .....	37
<표 2-23> 대학생 근로자의 직종 .....	38
<표 2-24> 대학생 근로자의 업종 .....	39
<표 2-25> 대학생 근로자의 업무 특성 .....	40

<표 2-26> 대학생 근로자의 소득활동 목적 .....	41
<표 2-27> 대학생 근로자의 소득활동의 어려움 .....	42
<표 2-28> 대학생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 .....	43
<표 2-29> 대학생 근로자의 시급 .....	44
<표 2-30> 대학생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	45
<표 2-31> 대학생 근로자의 연평균 임금 .....	46
<표 2-32> 대학생 근로자의 연평균 시간당 임금 .....	47
<표 3- 1> 연도별 고졸자 및 대졸자의 월평균 임금 .....	51
<표 3- 2> 연도별 고졸자 및 대졸자의 고용률 .....	52
<표 3- 3> 변수의 정의 및 측정방법 .....	59
<표 3- 4> 개인적 특성과 대학교육의 가장 큰 혜택에 대한 인식과의 관계 .....	61
<표 3- 5> 개인적 특성과 대학교육의 가장 큰 비용에 대한 인식과의 관계 .....	63
<표 3- 6> 개인적 특성과 대학교육의 예상비용과의 관계 .....	63
<표 3- 7> 개인적 특성과 대학졸업 후 예상 임금수준의 관계 .....	64
<표 3- 8> 개인적 특성과 대학졸업 후 예상 지위의 관계 .....	65
<표 3- 9> 개인적 특성과 대학재학 중 소득활동을 하는 이유의 관계 .....	66
<표 3-10> 개인적 특성과 대학생의 근로실태와의 관계 1 .....	68
<표 3-11> 개인적 특성과 대학생의 근로실태와의 관계 2 .....	69
<표 4- 1> KEEP, GOMS 및 YP 자료의 분석 목적 부합 여부 .....	77
<표 4- 2> 기초통계 .....	79
<표 4- 3> 재학 중 근로(휴학기간 제외)가 취업에 미치는 영향: 로짓 분석 결과 .....	81
<표 4- 4> 재학 중 근로(휴학기간 포함)가 취업에 미치는 영향: 로짓 분석 결과 .....	83

<표 4- 5> 재학 중 근로(휴학기간 제외)가 취업에 미치는 영향: 프로빗 분석 결과 .....	84
<표 4- 6> 재학 중 근로(휴학기간 포함)가 취업에 미치는 영향: 프로빗 분석 결과 .....	85
<표 4- 7> 재학 중 근로(휴학기간 제외)의 영향: 임금방정식 분석 결과 .....	87
<표 4- 8> 재학 중 근로(휴학기간 포함)의 영향: 임금방정식 분석 결과 .....	88
<표 4- 9> 재학 중 근로(휴학기간 제외)의 영향: 부모 대졸 이상 표본 .....	89
<표 4-10> 재학 중 근로(휴학기간 제외)의 영향: 부모 대졸 미만 표본 .....	90
<표 4-11> 재학 중 근로(휴학기간 포함)의 영향: 부모 대졸 이상 표본 .....	91
<표 4-12> 재학 중 근로(휴학기간 포함)의 영향: 부모 대졸 미만 표본 .....	92
<표 4-13> 종사상 지위 결정요인: 다항로짓 분석 결과 .....	94
<표 4-14> 정규직 여부 결정요인(휴학기간 제외): 로짓 분석 결과 .....	97
<표 4-15> 정규직 여부 결정요인(휴학기간 포함): 로짓 분석 결과 .....	98
<표 4-16> 재학 중 근로(휴학기간 제외) 결정요인: 로짓 분석 결과 .....	99
<표 4-17> 재학 중 근로(휴학기간 포함) 결정요인: 로짓 분석 결과 .....	99
<표 5- 1> 대학재학 중 시간제 상용직 근무의향에 따른 표본 기초통계 .....	104
<표 5- 2> 시간제 상용직 근무희망 대학생 비율 .....	105
<표 5- 3> 대학재학 중 시간제 상용직 근무 시 희망 근무형태 .....	108

<표 5- 4> 대학재학 중 시간제 상용직 근무 시 가장 중요한 요소 .....	109
<표 5- 5> 대학재학 중 시간제 상용직 근무 시 고졸자 대비 희망 시급 .....	110
<표 5- 6> 대학재학 중 시간제 상용직 근무 시 희망 주당 근로시간 .....	111
<표 5- 7> 대학재학 중 시간제 상용직 근무 시 희망 시급 .....	112
<표 5- 8> 대학졸업 전 시간제 상용직 근무 예상기간 .....	113
<표 5- 9> 시간제 상용직 근무 시 연장될 대학 재학기간 .....	114
<표 5-10> 면담 대학생 근로자 인적사항 .....	116

## 그림목차

[그림 3-1] 연도별 고졸자 대비 대졸자 임금비율 .....	52
[그림 3-2] 연도별 고졸자와 대졸자의 고용률 격차 .....	53
[그림 5-1] 대학재학 중 시간제 상용직 근무의향 .....	106
[그림 5-2] 전공학습과 무관한 시간제 상용직 근무의향 .....	106
[그림 5-3] 중소기업에서 시간제 상용직 근무의향 .....	107
[그림 5-4] 정규학기 중 근로 시 수강과목 조정의향 .....	107

## 요 약

치솟는 대졸자 실업률과 대학 등록금으로 인해 상당수의 청년층은 대학을 졸업한 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높은 교육열을 바탕으로 한 훌륭한 인적자본은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칭송되었으나 현재에는 과잉교육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특히 고등교육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화하였는데, 이는 대학교육 비용 상승과 경기침체로 인한 대졸 근로자에 대한 수요 감소 등 교육 및 노동시장의 문제점을 배경으로 한다.

교육은 사회에서 필요한 근로자 양성 및 사회 구성원이 필수적으로 함양해야 할 시민의식 양성 등의 사회적 목적과, 개개인의 소득 및 노동조건 향상, 자아실현 등의 개인적 목적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 고등교육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대졸 근로자가 노동시장에서 갖는 순이익이 감소하는 현상과 일자리를 갖지 못한 대졸 근로자가 증가하는 현상 위주이며, 교육을 통한 시민의식의 양성이나 개개인의 자아실현 등에는 초점을 두지 않는다. 대졸자가 노동시장에서 갖는 경제적 이익이 감소하기 때문에 대학진학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개개인이 대학에 진학한 주된 이유가 경제적 목적 때문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다. 본 연구는 대학교육에 대한 이러한 비판적 평가가 과연 타당한지,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한 정책의 파급효과는 무엇인지, 부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면 이를 극복할 방안은 무엇인지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은 본 연구를 위해 1,400여 명의 중위권 대학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학교육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제시한다. 주요 내용은 대학생의 상당수는 노동시장에서의 경제적 이익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대학에 진학했으며, 이들이 대학졸업을 통해 기대하는 혜택

과 비용은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대학교육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① 대학생의 1/4만이 취직 등의 목적으로 대학에 진학했고, 3/4 정도의 대학생들은 사회생활에 필요한 인적 네트워크 형성, 사회인으로 필요한 자질 양성, 고졸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 극복이라는 다양한 목적으로 대학에 진학했다. ② 대학교육의 가장 큰 문제로 27%의 대학생은 높은 등록금, 18.1%는 취직만 강조하는 풍토, 13% 정도가 높은 대학진학률 및 대학교육의 서열화, 8~9%가 전문지식 및 기술 습득의 어려움과 직무수행능력 외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타 능력개발의 어려움을 선택하였다. ③ 대학교육 비용으로 중위권 대학생은 평균적으로 학비 3,950만 원, 생활비 2,770만 원, 기타 비용으로 1,59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대학재학 기간 동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소득활동을 한다면 벌 수 있었던 기회비용인 포기임금으로 5,010만 원을 예상했다. ④ 중위권 대학생들은 대학 졸업 후 고졸자의 214%의 임금수준을 기대했다. 또한 졸업 후 본인이 대졸자 중위 이상의 경제적 지위에 위치할 것이라고 예상한 대학생은 전체의 58.2%, 대졸자 중위 이상의 사회적 지위에 위치할 것이라고 예상한 대학생은 전체의 59.8%였다.

대학생의 근로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학생들은 학업 및 기타 경제적인 이유로 활발히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지만 이들의 고용의 질은 높지 않다. 실태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① 연구표본인 중위권 대학 학생의 절반(50.5%)이 대학재학 중 소득활동을 한 경험이 있으며, 대학생 전체의 연평균 근로기간은 3.1개월이며, 소득활동을 하는 학생들(전체의 50.5%)의 연평균 근로기간은 6.2개월이다. 소득활동을 하는 대학생의 연평균 이직횟수는 1.39번이며 75%가 1년에 1회 이상 일자리를 바꾼다. ② 고용형태별로 구분하면 대학생 근로자의 대다수인 78.9%가 비정규직 임금근로자이며, 7.9%가 정규직 근로자, 11.1%가 창업 등의 이유로 고용주이며, 2.1%는 무급가족종사자이다. 근로시간 형태로 구분하면 91.6%의 중위권 대학생이 현재 하는 일 또는 가장 최근에 그만둔 일자리에서 시간제 근로를 했으며, 8.4%가

전일제 근로를 했다. 종사상 지위로 구분하면 대학생 근로자 전체의 26.9%가 상용직이며, 57.1%가 임시직이고, 16.0%가 일용직이다. ③ 직종으로 구분하면 서비스종사자가 43.1%, 판매종사자가 16.4%, 교육종사자가 16.3% 등이다. 직종을 바탕으로 하면 대학생의 근로는 대학교육과는 큰 연관성이 없어 보인다. 실제로 중위권 대학생의 71.7%는 현재 하는 일 또는 가장 최근에 그만둔 일에 대학교육이 필요하지 않고, 69.2%는 그 일이 전공학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④ 대학생이 소득활동을 하는 가장 큰 이유로 32.2%는 학업 외 다른 목적(여행, 소비, 창업, 독립 등)으로 돈이 필요해서, 30.9%는 학업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학비, 생활비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12.6%는 인생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기 위해서 등을 선택하였다. 즉 대학생의 노동시장 참여의 주된 목적은 경제적 이유 때문이다. ⑤ 이들은 월평균 시급 8,820원의 직장에서 80시간을 일하고 68만 원의 임금을 받는다. 대학생들의 연평균 소득은 514만 원이다.

제3장은 제2장의 실태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대학생의 개인적 특성이 대학교육 관련 인식 및 근로실태와 관련이 있는지 분석한다. 대학교육 관련 인식에 대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부모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임금 및 근로조건 향상보다는 사회인으로서 필요한 자질양성을 대학교육의 가장 큰 혜택으로 선택할 확률이 높다. 부모의 학력이나 경제적 배경은 대학교육의 가장 큰 비용으로 인식하는 요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이는 대학교육의 가장 큰 부담은 가족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무관하게 학비이기 때문이다. 지방대 학생일 경우 대학교육의 가장 큰 비용으로 학비보다 포기임금을 선택할 확률은 낮지만 학비보다 생활비를 선택할 확률은 높다. 또한 지방대생은 평생 소득활동 기준 수도권 대학생보다 84%p 낮은 고졸자 대비 임금수준을 기대했다. 이 밖에 여성은 남성보다 22~30%p 낮은 고졸자 대비 임금수준을 예상한다. 즉 지방대생과 여성은 자신들의 대학교육이 노동시장에서 갖는 경제적 혜택에 대해 더 비관적이다. 또한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본인의 대학졸업 후 경제적 및 사회적 지

위가 대졸자 중위 이상일 확률이 높다고 예상하며, 지방대생일수록 대학졸업 후 본인의 지위가 대졸자 중위 이상일 확률이 낮다고 예상한다.

대학교육 중 근로실태에 대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① 부모의 학력이 4년제 대졸 이상일수록 학업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보다는 ‘여행, 소비, 창업, 독립 등을 위한 비용 마련’을 대학재학 중 소득활동을 하는 이유로 선택할 확률이 높다. ② 부모가 4년제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졌다면 대학재학 중 소득활동에 참가할 확률은 낮지만,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사무 및 교육 업무에 종사할 확률이 높다. 부모의 교육수준은 대학생의 대학재학 중 소득활동 참여여부, 근로개월수, 이직횟수, 시간당 임금, 사무 및 교육 업무에 종사하는지 여부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즉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은 대학생은 그렇지 않은 대학생에 비하여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소득활동을 할 이유가 적고 따라서 근로기간도 짧고 이직도 잦지 않지만,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급여나 업무내용이 더 나은 일자리에 종사한다. 하지만 부모의 교육수준이 미치는 영향은 각 변수의 표준편차 한 단위(one standard deviation)의 10~21% 정도로 크지는 않다. ③ 지방대생일수록 소득활동에 종사할 확률이 낮고, 소득활동에 종사하더라도 그 일에 대학교육이 필요하거나 그 일이 전공학습에 기여할 확률이 낮다. 이 결과는 지방대에 재학할수록 소득활동에 참여할 기회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업무 자체가 대학교육이 필요하거나 전공학습에 기여하지 않더라도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근무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해석될 수 있다. ④ 여성일수록 소득활동에 종사하더라도 그 일에 대학교육이 필요하거나 그 일이 전공학습에 기여할 확률이 낮다.

제4장은 대학재학 중의 근로가 향후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한다. 청년패널조사 1~8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4년제 대학졸업자들의 대학재학 중 근로 여부를 파악하고 이들의 현재 취업 여부 및 임금수준, 종사상 지위 및 근로형태 등 졸업 후 노동시장 성과를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는 ① 대학재학 중 근로를 경험한 졸업자들의 현재 취업확률이 대학재학 중 근로경험이 없는 이들에 비해 유의

하게 높게 나타났다. 실제 재학 중 근로 경험자와 미경험자 간 취업 확률 차이의 크기 역시 5~8%p로 상당히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노동시장 성과 중 고용의 양과 결부되는 지표인 취업확률에 대해서는 대학재학 중 근로가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② 분석 대상 표본을 4년제 대학 졸업자 중 현재 취업자에 국한하여 분석할 때 임금수준, 종사상 지위 및 고용형태 등에 대해서는 대학재학 중 근로 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거의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동시장 성과 중 고용의 질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지표들에 대해서는, 대학재학 중 근로 여부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별다른 긍정적인 영향 역시 갖지 않음을 시사한다.

제4장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할 수 있는 주요 정책적 시사점은, 대학교육과 대학재학 중 근로가 적절하게 결합된다면 대학생들의 노동시장 성과에 있어 상당 부분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또한 대학재학 중 근로가 졸업 후 취업 확률 제고에 기여한다는 실증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시행하고자 할 때, 별도의 휴학기간 없이 정규학기 중에 근로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제할 이유는 없다. 분석 결과 오히려 휴학기간 중 근로를 재학 중 근로에 포함한 분석에서 졸업 후 취업확률 제고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물론 휴학에 따른 학생 개인 및 사회적인 비용이 수반되므로 특별히 근로경험을 위해 휴학을 독려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다만 학생 개인의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휴학을 하게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근로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학재학 중 근로경험 제공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시행될 때 졸업생의 취업확률 제고라는 고용의 양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는 기대할 만하다. 다만 재직 일자리에서의 임금수준, 종사상 지위 및 고용형태 등 고용의 질에 대해서는 재학 중 근로가 유의한 긍정적 효과를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본인이 졸업 후 취업을 희망하고 실제 취업 가능성이 있는 업종

및 직종에 대해 대학재학 중 근로경험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한다면, 졸업 후 향유하는 임금수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기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제5장은 제4장의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생 고용의 질을 높여 학생들이 근로활동을 통해 대학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졸업 후 취업확률 및 임금, 종사상 지위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대학생의 노동시장을 개선하는 정책은 경제적 이유로 대학 진학 자체를 포기할 수도 있는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여 대학교육의 사회적·경제적 혜택을 누리는 것을 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 몇몇 유럽 국가와 같이 대학생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방안 등은 대학교육에 흥미가 없는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도록 유도하는 등 사중손실이 우려되고 우리나라와 같이 대학진학률이 높은 나라에서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이 고용의 질이 높은 일자리에 근무하며 대학교육을 지속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대학생이 대학재학 중 시간제 상용직으로 근무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와 어떠한 조건을 희망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전체 학생의 40.7%는 대학교 수업 및 활동에 참석하거나 참가할 수 있는 시간이 보장되는 상용직 일자리가 있으면 근무할 의향이 있다. 이들의 74.5%는 이 일자리가 전공과 무관한 경우에도 근무할 의향이 있고, 71.6%는 대학재학 중 중소기업에서도 시간제 상용직으로 근무하기를 희망한다. 부모의 학력이 낮은 학생이 중소기업에서 근무할 의향이 더 크다. ② 상용직 일자리에 근무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학생의 26.5%는 수업이 없는 평일에만 전일제 근무를 희망하고, 30.0%는 수업이 없는 평일과 주말에 전일제 근무를 희망하며, 30.5%는 평일에만 시간제 근무를, 13.0%는 평일과 주말에 시간제 근무를 희망한다. ③ 상용직 일자리에 근무할 의향이 있는 대학생의 68.3%가, 대학재학 중 상용직 일자리에 장기 근무 가능하거나, 졸업 후에 동 직장에서 근속이 가능한지 혹은 이직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여부가 아니라 급여나 근로조건을 가장 중요시한다. 즉 대학생이 재학 중 근로활동을 하는 주된 목적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라는 점에서 대학생의 노동시장은 일반적인 노동시장과는 구분된다. ④ 대학재학 중 시간제 상용직으로 근무할 의향이 있는 대학생은 전일제로 근무할 경우 전일제 고졸 근로자의 116.7%의 급여를 기대한다. 고졸 전일제 근로자보다 낮은 수준의 급여를 받아도 근무하겠다고 응답한 학생은 18.8%이다. 이 일자리가 전공과 무관한 일자리라고 특정하였음에도 81.2%의 대학생들이 전일제 고졸 근로자보다 높은 수준의 급여를 기대하는 것은, 이들의 업무가 전공과 무관하더라도 유무형의 대학교육의 가치를 근로 시 인정받을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⑤ 대학 소재지로 구분하면 수도권 대학생은 전일제 고졸 근로자의 119.7%의 시급을 기대하나 지방대 학생은 112.4%를 기대하여 지방대 학생의 희망시급이 더 낮다.

평균적으로 대학생들은 대학생활과 병행하는 상용직 일자리에 주당 18.47시간 근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현재 이들이 월 평균 80시간을 근무하는 점을 고려하면 대학생들은 현재 수준의 근로시간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은 평균 9,970원의 시급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들의 현재 평균시급이 8,820원인 점을 고려하면 상용직으로 근무 시 임시직이나 일용직보다 13% 정도 높은 수준의 임금을 기대한다. 희망 시급은 수도권 대학생이 10,500원으로 지방대 학생이 희망하는 시급인 9,200원보다 1,300원 높다. 부모의 학력이 고졸이거나 2년제 대졸인 학생은 9,120원의 시급을 희망하나 부모의 학력이 4년제 대졸인 학생은 10,590원을 희망하여 부모의 학력에 따라 희망 시급이 1,470원 차이가 난다. 대학재학 중 상용직 일자리에 근무할 의향이 있는 대학생은 본인의 희망임금을 지급하는 일자리가 있다면 평균적으로 19.3개월 근무할 것으로 답해, 현재 이들이 평균적으로 1년에 1.4회 일자리를 변경하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기간 근속할 의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은 대학재학 중 근무로 졸업이 평균 14.6개월 지연될 것으로 예상

했다.

또한 제5장은 대학생 근로자에 대한 노동시장의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시간제 상용직(파트타임 정규직) 인사제도를 가지고 있는 이케아 코리아를 면담한 결과를 제시한다. 면담결과 이들의 대학생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작지 않다. 인사팀 담당자에 따르면 주부 근로자는 육아로 인해 초중고교의 정규 수업시간에만 근무를 희망하지만 대학생의 경우 수업이 없는 평일, 늦은 밤, 주말 등 희망 근로시간대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이케아에서 근무하고 있는 대학생 근로자들 역시 시간제 상용직으로 근무하는 것에 대한 만족도가 기존의 아르바이트보다 훨씬 높고, 대학교육과의 병행이 어렵지 않다고 답했다.

본 연구는 본래 대학생이 노동시장에서 대학교육의 경제적 혜택에 대해서 과연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하지만 제2장에 제시된 바와 같이 중위권 4년제 대학교 학생 1,4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대학생들이 대학교육을 통해 기대하는 것은 노동시장에서의 경제적 이익에 한정되지 않고, 대학생들이 대학교육을 통해 기대하는 것은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오히려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활발히 소득활동을 하며 대학교육을 받고 있다. 또한 제3장의 분석결과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가정 출신의 학생들일수록 대학교육을 통해 사회인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양성하는 등의 비경제적 이유로 대학에 진학하였고, 학비 마련 등의 이유로 활발히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보여준다. 제4장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대학재학 중의 근로는 대학생의 졸업 후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재학 중 근로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대학재학 중 겪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이들의 졸업 후 취직에도 기여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물론 이들은 대학교육을 통해 대학에 진학하면서 기대했던 고졸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극복하고 사회생활에 필요한 교양 등을 쌓을 기회를 가질 것이다. 제5장에 제시된 결과와 같이 중위권 4년제 대학생의 40% 정도는 개선된 대학생 노동시장에 참여할 의지가 있고 이에 대한 기업

의 수요도 존재한다. 고졸자 일자리에 대한 개선과 동시에 대학생 노동시장 개선방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시기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고등학교 졸업 후 노동시장에 바로 참여하도록 장려하는 정책은 사회양극화 심화라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 현재 고등학교 졸업 후 노동시장에 바로 참여하거나 취업 후 대학에 진학하는 정책에 주로 참여하는 학생들은 상위권 대학에 진학할 정도로 학업성적이 높지 않은 학생인 것이 사실이다. 여러 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가족의 소득수준은 학업성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의 주된 참여자는 저소득층 학생들이일 가능성이 높다. 교육의 주된 기능 중 하나는 사회 계층 사다리의 역할이다. 따라서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는 시기에 저소득층의 대학진학에 대한 결정이 현재 노동시장에서 대학교육의 경제적인 혜택 감소, 대학교육의 비용 증가, 또는 이러한 이유를 바탕으로 한 정책적 변화 때문에 영향을 받는다면 이는 저소득 청년층의 사회적, 경제적 계층이동을 저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 제 1 장 서 론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높은 교육수준 및 교육열을 바탕으로 한 우리나라의 우수한 인적자본은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언급되었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이 지나치게 높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러한 대학교육에 대한 인식의 급격한 변화는 199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청년층의 낮은 취업률, 대학 졸업 후 첫 취직까지 소요되는 시간의 장기화, 높은 이직률 등 노동시장의 문제를 배경으로 한다. 더불어 대학생의 잦은 휴학 및 졸업유예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학졸업까지 소요되는 시간 및 첫 직장으로의 이행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인해 대학교육의 비용이 높아지는 반면 학사학위 편익(프리미엄)은 그와 비례하여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대학교육이 노동시장에서 갖는 경제적인 효과 자체가 감소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다수의 정책입안자는 우리 사회의 높은 대학진학률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일부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노동시장에 바로 참여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물론 노동시장의 수요보다 지나치게 대학졸업자가 많은 것은 사회적 문제이다. 하지만 교육 및 진학 관련 정책의 빠른 변화와는 달리 고등학교 졸업자가 참여하는 노동시장은 과거에 비해 크게 변하지 않아서 일부에서는 고졸 근로자가 참여하는 일자리의 낮은 질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 또한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의 대학교육을 둘러싼 비판을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재

검토하는 데서 출발한다. 첫째, 최근 대학교육이 노동시장에서 갖는 경제적 이익이 감소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크지만, 대학교육의 목적은 직업을 통한 경제적 이익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나은 인적 네트워크 형성 및 사회적 자질 양성 등의 사회적 목적을 포함한다. 김주섭(2005)이 언급한 바와 같이 고등교육 자체는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소비재로서의 성격도 지니고 있고, 고등교육을 보다 높은 개인의 미래소득과 사회적 지위에 대한 투자재로 한정해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이 투자에 대한 회수가 반드시 미래의 직업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김주섭, 2005: 69).

둘째, 대학교육 투자수익률이 낮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주된 이유는 대학교육의 혜택 자체가 줄어들기보다는 높은 등록금 등의 이유로 대학교육의 비용 자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교육통계연보를 바탕으로 사교육비를 제외한 4년제 대학 교육비를 추계한 남기곤(2013)에 따르면 4년제 대학 교육비는 1980년 98만 원, 1990년 244만 원, 2000년 740만 원, 2010년 1,260만 원으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렇듯 빠르게 증가하는 등록금에 대한 부담은 대학교육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고 현 우리나라 교육제도의 문제라고 해석하는 편이 맞다.

셋째, 대학교육은 아직도 저소득계층의 사회경제적 계층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저소득층의 대학진학률은 높지 않다. 예를 들어, 서울아동패널을 분석한 구인회·김정은(2015)에 따르면 저소득층 고등학생의 39.3%, 중간계층의 58.3%, 그리고 고소득층의 72.9%가 4년제 대학에 진학한다. 또한 고등학교 성적이 유사하더라도 저소득층 학생의 4년제 대학진학 확률은 중간소득계층 학생보다 7.9%p 낮으며, 중간계층 학생의 4년제 대학진학 확률 역시 고소득층 학생에 비해 7.5%p 낮다(구인회·김정은, 2015). 즉 가족의 경제적 배경과 대학진학률은 상당히 관련되어 있다.

물론 대학졸업자가 노동시장에서 갖는 경제적 혜택이 과거에 비해 작아졌는지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현재까지 대학졸업자가 노동시장에서 경제적으로 유리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또한 대졸자와 고졸자의 임금

격차가 나는 주된 이유인 기술진보와 산업구조의 변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대학졸업자가 고졸자보다 과거만큼은 아니더라도 상대적으로 더 높은 임금을 받는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Autor, 2010). 오히려 기술진보는 숙련편향적으로 이루어지고, 로봇과 인공지능에 의해 대체 가능성이 높은 저숙련 일자리의 임금은 떨어지는 반면 대체 가능성이 낮은 고숙련 일자리의 임금은 상승하여 노동시장에서 근로자에 대한 수요는 직무에 필요한 기술수준에 따라 양극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대세이다(Goldin & Katz, 2010). 만약 가족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대학진학에 영향을 미치고, 대학교육을 통해 높은 기술수준을 갖춘 대졸자가 고졸자에 비해 지금보다 높은 수준의 사회경제적 혜택을 누린다면 사회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하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한 목적 및 이들의 대학교육에 대한 비용 및 혜택 등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이들의 재학 중 소득활동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러한 대학교육 및 근로실태가 개인적인 특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파악하고, 대학생의 재학 중 근로활동이 향후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 자료를 이용해 대학생의 교육에 대한 인식과 근로실태를 동시에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2016년 8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20개 중위권 4년제 대학의 1,400여 명의 대학생에 대해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대학생들이 대학교육을 통해 기대하는 것은 노동시장에서의 경제적 이익에 한정되지 않고, 대학생들이 대학교육을 통해 기대하는 노동시장의 혜택은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즉 이들의 대학진학이 비합리적이지 않으며 이들은 학비 및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활발히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가정 출신의 학생들일수록 대학교육을 통해 사회인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양성하는 등의 비경제적 이유로 대학에 진학하였고, 학비 및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활발히 대학재학 중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대학재학 중의 근로는 대학생의 졸업 후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대학재학 중 근로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대학재학 중 겪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이들의 졸업 후 취직에도 기여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

#### 4 대학진학의 선택과 노동시장 성과

족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대학생이 재학 중 참가하고 있는 노동시장 관련 지표와 관련되어 있고, 부모의 교육수준이 낮은 학생일수록 고용의 질이 낮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생 대상 노동시장을 개선하여 대학교육에 따른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여 대학졸업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이들의 노동시장 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모색해 본다.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2장은 중위권 4년제 대학생의 대학진학 목적, 이들이 인식하는 대학교육의 혜택 및 비용, 이들의 소득활동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제시한다. 또한 이 결과가 학생들이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 전공계열,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라 상이한지를 분석한다. 제3장은 대학생들의 대학교육에 대한 인식 및 근로실태가 가족 배경 등과 연관되어 있는지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다. 제4장은 대학재학 중의 근로가 졸업 후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다. 제5장은 대학생이 활발하게 참가하는 노동시장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이에 대한 대학생의 기대수준을 조사한 결과를 제시한다. 제6장은 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 제 2 장

### 대학생의 대학교육 관련 인식 및 근로실태

본장은 현재 대학생의 대학진학 목적, 대학교육의 기대효과, 비용 및 편익, 문제점 등을 포함한 대학생 인식조사 결과와, 대학생이 재학 중 참가하는 근로활동의 기간, 종사상 지위, 직종, 업종, 임금 및 목적 등을 포함하는 대학생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제시한다. 대학생의 근로실태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및 청년패널조사를 통해 일부 파악할 수 있으나 이를 대학진학의 목적 등에 대한 인식과 연결시킬 수 있는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실태파악을 위해 2016년 8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20개 중위권 4년제 대학의 1,400여 명의 대학생에 대해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장은 대학생의 인식 및 근로실태 관련 기존 자료의 통계 및 선행연구 결과를 검토한 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의 세부사항을 설명하고, 이 조사결과를 제시한다. 조사결과를 재학 중인 대학교 소재지별, 전공계열별, 부모의 교육수준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여 대학교육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이끌어내고자 한다.

## 제1절 관련 통계 및 선행연구

### 1. 대학진학률, 중도탈락률 및 휴학률

우리 청년층(25~34세)의 고등교육 참가율은 OECD 회원국 최고 수준이다. 고등교육을 받은 청년층(25~34세)을 청년층 전체 수로 나눈 인구 비중은 2014년 기준 우리나라가 68%로 OECD 34개 회원국 중 가장 높으며, OECD 평균인 41%를 훨씬 웃돈다.<sup>1)</sup> 특히 학사학위를 취득한 청년층 비율은 우리나라가 45%로 OECD 평균인 21%의 두 배 이상이다. 하지만 2000년대 중후반부터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은 감소하고 있다. <표 2-1>의 1990년대 및 2000년대의 연도별 대학진학률에 제시된 바와 같이 2008년부터 2014년 동안 4년제 대학 진학률이 21%나 감소하였다. 전문대학 포함 대학진학률은 4년제 대학 진학률보다는 천천히 감소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구체적으로 2008년 전문대학 포함 대학진학률은 83.8%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4년 70.9%로 15.4%(12.9%p) 감소하였다. 특히 전문대학을 제외한 4년제 대학의 진학률은 최고치인 2008년 58.9%에서 2014년 46.6%로 20.9%(12.3%p) 감소하였다.

대학진학률 자체도 다소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표 2-2>에 제시된 대학생의 중도탈락률과 휴학률에 따르면 2000년대에 들어서 대학진학 자체가 대학졸업으로 연결되지 않거나 대학교육 자체가 장기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2-2>에 따르면 2014년 기준 대학생의 중도탈락률은 3.9%, 휴학률은 23.5%이며 이는 1980년대 및 1990년대에 비해 상당히 증가한 수준이다(한국교육개발원, 2015). 구체적으로 대학생 중도탈락률은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2%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으나 2000년에

1) OECD(2015), *Education at a Glance 2015: OECD Indicators*, Table A1.3a, Percentage of adults who have attained tertiary education, by type of programme and age group(2014).

〈표 2-1〉 연도별 대학진학률

(단위: %)

	대학진학률			4년제 대학 진학률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1991	33.2	32.6	33.7	21.0	19.6	22.3
1992	34.3	33.1	35.3	21.9	19.9	23.7
1993	38.4	36.7	39.9	24.6	22.3	26.8
1994	45.3	42.9	47.4	28.6	25.6	31.5
1995	51.4	49.8	52.8	34.2	31.5	36.7
1996	54.9	53.1	56.7	36.4	33.3	39.3
1997	60.1	57.7	62.4	40.5	38.0	42.8
1998	64.1	61.6	66.4	42.2	39.5	44.7
1999	66.6	63.9	69.2	44.9	42.0	47.7
2000	68.0	65.4	70.4	45.3	43.5	47.0
2001	70.5	67.6	73.1	46.5	44.7	48.2
2002	74.2	72.4	75.8	51.1	50.1	52.0
2003	79.7	77.8	81.5	57.5	56.1	58.8
2004	81.3	79.7	82.8	59.0	57.5	60.4
2005	82.1	80.8	83.3	58.3	56.7	59.7
2006	82.1	81.1	82.9	58.1	57.3	58.8
2007	82.8	82.2	83.3	58.1	57.7	58.4
2008	83.8	83.5	84.0	58.9	58.6	59.2
2009	81.9	82.4	81.6	55.5	55.1	55.8
2010	79.0	80.5	77.6	53.6	53.8	53.4
2011	72.5	75.0	70.2	46.0	47.0	45.1
2012	71.3	74.3	68.6	45.6	46.6	44.8
2013	70.7	74.5	67.4	46.2	47.7	44.9
2014	70.9	74.6	67.6	46.6	48.3	45.1

주: 1) 대학진학률은 당해연도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중 전문대학 포함 국내·외 상급학교에 진학한 사람의 비율(재수생 미포함).

2) 4년제 대학 진학률에는 교육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 방송통신대학이 포함됨.

3) 2011년부터 4월 등록자 기준(중전은 2월 합격자 기준).

자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연도(통계청(2015), 『2015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VI)』 통계표(18. 대학진학률)에서 재인용).

3.9%로 급증한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1980년에 10.6%에 불과했던 대학생 휴학률은 1990년대 초반까지 10%대 전반을 유지하였으나 2000년대에 들어서 20%를 넘어선 후 현재까지 줄어들지 않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15).

<표 2-2> 연도별 대학생 중도탈락률 및 휴학률

(단위: %)

	중도탈락률			휴학률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1980	2.7	3.0	1.5	10.6	13.3	1.5
1985	2.4	2.4	2.3	13.2	16.8	3.4
1990	1.4	1.5	1.3	13.6	18.0	2.7
1995	2.2	2.3	2.1	17.5	23.2	5.2
2000	3.9	3.9	3.9	21.4	26.8	11.8
2005	4.2	4.3	3.9	22.5	27.1	14.7
2006	4.1	4.4	3.7	22.8	27.0	15.5
2007	4.8	5.2	4.2	23.1	27.5	15.8
2008	4.1	4.4	3.6	24.5	28.9	17.1
2009	4.0	4.3	3.5	25.3	29.8	17.9
2010	4.0	4.4	3.4	24.9	29.3	17.8
2011	4.0	4.4	3.3	24.1	28.4	17.3
2012	4.0	4.5	3.2	24.1	28.3	17.4
2013	4.0	4.5	3.1	23.5	27.9	16.8
2014	3.9	4.4	3.1	23.5	27.9	16.9

주: 중도탈락률=(중도탈락자 수/전년도 재적 학생 수) × 100.

휴학률=(휴학생 수/전년도 재적 학생 수) × 100.

교육통계 분석자료집은 전수조사를 통해 생성된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DB 및 교육통계연보를 기초로 작성.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15), 『2015 교육통계 분석자료집(고등교육·취업통계편)』, <표 II-2-6> 및 <표 II-2-8>.

## 2. 대학진학의 목적

우리의 청년층이 대학을 진학하는 대표적 이유는 다양한데, 이는 크게 고졸층 노동시장의 부재, 고졸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 역사적으로 발전한 학력주의(김세움·김진영·조영준, 2011, 제5장 참조) 등이 포함된다. 물론 이러한 원인들은 상호 연관되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표 2-3>은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사회조사 중 대학진학의 목적에 대한 통계이다. 2000년부터 2014년까지 매 4년마다 대학교 재학생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의 대학생들은 좋은 직업을 얻거나 자신의 소질을 개발하기 위해서 대학에 진학하였다고 응답하였다. 그중 대학재학생들이 매 조사에서 1순위(39.3~45.8%)로 선택한 대학진학의 목적은 좋은

〈표 2-3〉 대학진학의 목적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	능력과 소질 개발	주위의 기대	학력 차별 분위기	인격, 교양을 쌓기 위해	기타
2000	39.3	36.9	1.5	16.2	5.2	0.9
2004	44.2	28.0	1.8	20.9	4.7	0.3
2008	45.8	39.2	1.2	11.2	2.5	0.1
2012	44.1	39.2	2.0	12.0	2.4	0.3
2014	43.0	41.5	1.0	10.2	3.5	0.8

주: 각 연도 자료는 통계청 사회조사 중 교육의 항목을 ‘기대교육목적’, ‘전국’, ‘대학교이상 재학’으로 제한하여 재구성한 자료로, 2년제 및 4년제 대학 재학생의 조사 결과임.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학생의 기대교육수준 및 목적」 각 연도2)를 바탕으로 저자가 재구성함.

직업을 갖기 위해서였다. 1순위 이외에 다른 요인에 대한 순위는 지난 14년간 다소 변했다. 구체적으로 대학재학생들이 능력 및 소질 개발을 선택한 비율은 동 기간 동안 36.9%에서 41.5%로 12.5%(4.6%p) 증가한 반면 학력 차별 분위기를 선택한 비율은 동 기간 동안 16.2%에서 10.2%로 37.0%(6.0%p) 감소하였다.

### 3. 대학휴학 사유 및 졸업유예

〈표 2-4〉에 따르면 대학생들이 휴학을 하는 이유 역시 변하고 있다. 대졸자를 대상으로 한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대학생들은 생활비 및 등록금 마련을 위한 경제활동, 취업 및 자격시험 준비, 어학연수 및 인턴/현장경험 등 개인의 발전 등의 사유로 휴학을 한다. 각 휴학 사유에 대한 비율을 살펴보면 2007년에는 휴학 사유가 병역의무 이행을 제외한 각 항목에 10.0~14.6%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만, 취업 및

2) [http://kosis.kr/common/meta\\_onedepth.jsp?vwcd=MT\\_ZTITLE&listid=D21](http://kosis.kr/common/meta_onedepth.jsp?vwcd=MT_ZTITLE&listid=D21)  
(접속일: 2016. 11. 07).

10 대학진학의 선택과 노동시장 성과

자격시험 준비 사유로 휴학을 한 비율은 2007년 14.6%에서 2016년 26.9%로 1.8배(12.3%p)로 증가하였고, 어학연수 및 인턴/현장경험 등의 사유로 휴학을 한 비율 역시 동 기간 10.0%에서 15.1%로 1.5배(5.1%p)로 증가하였다. 반면 동 기간 학비 및 생활비 마련을 휴학의 사유로 선택한 비율은 12.9%에서 11.4%로 다소(1.5%p) 감소하였다. 이러한 대학휴학 사유의 변화는 대학생의 대학교육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이 감소한다고 해석하기보다는 오히려 취업의 어려움을 일부 반영하는 듯하다. 김현동(2013)이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라도 휴학 사유는 고용시장의 어려움을 반영한다. 대학휴학 사유는 크게 취업/진학 준비, 어학연수, 경제적 사유 등으로 구분되며, 2011년 기준 취업/진학 준비로 인한 휴학이 전체의 55%, 어학연수로 인한 휴학이 32%, 그리고 경제적 사유로 인한 휴학이 12%를 차지했다(김현동, 2013). 즉 <표 2-4>에 제시된 결과와 마찬가지로 학비 및 생활비 마련 등의 경제적인 이유보다 취업 및 어학연수 등의 사유가 더 일반적인 휴학의 사유이다.

<표 2-4> 대학휴학 사유

(단위: %)

	(A) 병역의무	(B) 취업 및 자격시험	(C) 어학연수 및 인턴	(D) 학비 및 생활비 마련	(E) 기타
2007	74.5	14.6(29.9)	10.0(20.5)	12.9(26.4)	11.2(23.1)
2008	71.0	16.8(33.4)	11.3(22.4)	12.8(25.3)	9.5(18.9)
2009	70.4	17.2(33.7)	13.1(25.5)	12.7(24.7)	8.2(16.1)
2010	67.8	19.3(34.5)	14.8(26.4)	12.8(23.0)	9.0(16.1)
2011	68.1	17.9(31.8)	15.4(27.3)	12.4(22.0)	10.7(18.9)
2012	68.6	22.1(37.4)	15.5(26.3)	11.1(18.7)	10.4(17.6)
2013	68.8	23.2(40.7)	12.6(22.1)	12.5(21.8)	8.7(15.3)
2014	69.4	22.4(38.1)	14.2(24.2)	14.2(24.1)	8.0(13.6)
2015	72.3	20.2(38.4)	14.2(27.0)	13.1(25.0)	5.0(9.5)
2016	68.6	26.9(45.8)	15.1(25.7)	11.4(19.4)	5.4(9.1)

주: 휴학 사유는 복수응답으로 인하여 구성비 합이 100 이상임. 괄호는 병역의무를 제외한 나머지 중 각 항목이 차지하는 비율(B/(B+C+D+E)\*100%)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성별 휴학경험유무, 휴학사유, 평균휴학기간(대졸자)」, 각 연도3)를 바탕으로 저자가 재구성함.

휴학은 졸업유예와도 관련이 있는데 2013년 기준 대학생의 44.9%가 졸업유예를 한다(채창균, 2016).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 직업이동경로 조사 2008~14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졸업유예 대학생의 경우 일반 졸업자 대비 대학재학 기간이 2.6학기 더 길고, 졸업유예자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2013년 평균 대학재학 기간은 2007년 수치보다 0.6학기 증가하였다(채창균, 2016). 부모의 소득수준과 학력수준이 높아질수록 역시 졸업유예 비율이 상승한다(채창균, 2016).

휴학 및 졸업유예 등의 비율을 비롯하여 휴학 및 졸업유예의 사유도 가족배경과 연관된다. 저소득층은 학비 마련 등의 경제적인 이유로 휴학할 확률이 높다. 예를 들어, 서울에 소재한 여자종합대학교의 학생 455명을 설문한 김안나·김성훈(2010)에 따르면 저소득층 학생의 22.6%가 학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휴학을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중·고소득층 학생은 각각 6.6%와 1.2%만이 학비를 벌기 위해 휴학을 한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다.

#### 4. 대학재학 중 근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휴학을 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대학재학 중 근로 자체는 대학생들의 일반적인 현상이다.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분석한 이병희(2003)에 따르면 대졸자 64.2%가 재학 중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으며 이 중 31.1%는 재학 중 4회 이상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취업경험자의 66.7%는 주당 21시간 이상 일을 하여 비교적 높은 강도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재학 중 근로는 전공에 따라 영향을 받는데 2007년 대졸자직업이동경로 조사 자료를 분석한 정지선·이수정·신정철(2011)에 따르면 예체능계열 전공자의 55.0%는 재학 중 일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는 교육계열 41.2%, 인문계열 31.6%, 자연계열 27.6%, 공학계열 24.9%,

3)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E9050&vw\\_cd=MT\\_ZTITLE&list\\_id=B1A\\_18&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E1#](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E9050&vw_cd=MT_ZTITLE&list_id=B1A_18&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E1#)(접속일: 2016. 11. 07).

사회계열 24.4%, 그리고 의약계열 17.0%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3차 노동패널자료를 분석한 김주섭(2003)에 의하면 인문계열에 비하여 사회, 공학 및 기타계열 전공 학생이 재학 중 근로가 활발하다(김주섭, 2003).

재학 중 근로를 근로목적에 따라 생계형과 자기계발형으로 나누면 대학의 소재지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타난다.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를 분석한 정한나(2016)에 따르면 서울에 소재한 4년제 대학의 경우 재학 중 자기계발형 근로를 하는 학생의 비중이 27.5%로 생계형인 경우보다 2배 정도 많았던 반면 지방 4년제 대학은 국공립일 경우 소폭의 차이를 보이고, 사립인 경우 차이가 없었다. 이를 전공별로 보면 사회, 공학, 의약계열 전공에서 생계형 근로를 경험했던 비율이 1.6~1.9배 정도 높았고, 교육과 예체능계열은 자기계발형 근로를 2.1~4.0배 더 많이 경험하여 재학 중 근로유형의 분포는 전공에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제2절 실태조사 및 표본

본절은 대학생의 대학교육에 대한 인식 및 근로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사항을 설명한다. 표본은 중위권 4년제 대학 재학생 1,376명과 휴학생 58명을 포함한 총 1,434명이다. 실태조사의 개요 및 표본 특성은 다음과 같다.

### 1. 실태조사 개요

#### 가. 조사 설계

<표 2-5>에 요약되어 있듯이 본 연구를 위한 실태조사 대상 대학생은 중위권 4년제 대학의 재학생과 휴학생이다. 대학평가 종합 순위별로 대학 소재지를 서울, 경기, 인천 지역 등의 수도권 대학과 지방소재 대학으로 나누고 대학 순위별로 총 20개 대학표본을 층화추출하였다.<sup>4)</sup>

〈표 2-5〉 실태조사 설계 요약

	내 용
조사대상	- 4년제 중위권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 대학졸업생 및 대학원생, 의학, 치의학, 한의학, 약학, 간호학 전공자 제외
표본대학	- 총 20개 대학(수도권 12개 대학, 지방 8개 대학) - 경향신문 지속가능대학등급 그룹 I 및 그룹 II 대학 중 선정 - 상기 그룹 I, II 중 2015년 중앙일보 대학평가의 상위 10위 대학, 교육부 대학구조개혁 평가 A등급(최상위) 지방대학 및 교육부 대학구조개혁 평가 D등급(하위) 대학, 2005~15년 중앙일보 순위에 포함되지 않은 대학 및 교육대학교 제외
표본학생	- 총 20개 대학의 1,434명 - 성별(남녀), 전공계열별(인문계열, 사회계열, 교육계열, 공학계열, 자연계열, 예체능계열, 기타의약계열의 7개 전공계열) 할당
조사방법	- 전문 설문조사원을 대학에 파견하여 자발적으로 설문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태블릿 PC를 건네 온라인 설문 사이트를 통하여 설문을 진행(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 : CAPI)
조사기간	- 2016년 8월 말~9월 중순(각 대학의 개강일 이후)

자료: 필자가 직접 실태조사한 것임.

대학표본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선정되었다. 본 연구는 연구중심 대학으로 분류되는 최상위권 대학이나 향후 대학 구조조정을 통해 폐교될 수도 있는 최하위권 학교가 아닌 중위권 대학을 표본으로 선정한다는 전제하에, 일정 수준 이상의 대학만을 모집단으로 선정하기 위해서 경향신문 지속가능대학등급 그룹 I 및 그룹 II(일정 수준 이상의 대학)에서만 파악된 대학 중 최상위권 대학으로 구분할 수 있는 2015년 중앙일보 대학평가의 상위 10위 대학 및 교육부 대학구조개혁 평가 A등급(최상위) 지방대학과 최하위권 대학으로 구분할 수 있는 교육부 대학구조개혁 평가 D등급(하위) 대학은 제외하였다. 4년제 대학 중에서 졸업 후 취업 경로가 정해져 있는 교육대학교도 제외되었다. 그 후 남은 대학들 중에서 2005~15년 중앙일보 대학평가 순위에 포함되지 않은 대학을 제외하였

4) 이승렬(2015)에 따르면 2~3년제 대학생의 64.5%가 다시 4년제 대학에 입학한다. 따라서 4년제 대학으로 한정하여 조사하여도 2~3년제 대학생의 인식을 일부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 상기 대학 선정 기준에 따라 12개의 수도권 대학(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8개의 지방대학(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이 선정되었고, 이들 20개 대학을 대상으로 학생들에 대한 설문을 진행하였다.

추출된 표본대학의 표본학생은 대학졸업 후 소득활동을 할 예정이라고 응답한 학부과정 재학생 및 휴학생으로 한정했다. 학생들의 표본은 남녀 비율 및 전공계열 비율을 할당하였다. 전공 중 교육대와 마찬가지로 졸업 후 취업 경로가 정해져 있으며 재학 중 노동시장 참여가 한정된 의학, 치의학, 한의학, 약학, 간호학 전공자는 제외했다. 전공계열은 인문계열, 사회계열, 교육계열, 공학계열, 자연계열, 예체능계열, 기타의약계열(보건학, 재활학, 의료공학 등)의 7개 범주로 구분하여, 각 대학당 70여 명의 학생을 전공계열별로 조사하였다. 일부 대학에는 기타의약계열 등 몇 개 전공학과가 존재하지 않는데 이런 경우에는 대학별 실태조사 인원인 70명이 조사될 수 있도록 전공계열별 설문대상자 수를 조정하였다.

설문조사를 위해 상기 20개 대학의 2학기 개강 이후인 2016년 8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전문 설문조사원이 파견되었다. 이들은 설문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태블릿 PC를 건네 미리 구성된 온라인 설문사이트를 통하여 설문을 진행(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 : CAPI)하였다. 온라인 설문 사이트에서 선택항이 보이는 순서에 따라서 면접대상자가 답변의 우선순위를 인식하여 선택에 편의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도록 주요 선택항이 보이는 순서를 무작위로 처리하였다. 또한 일부 문항의 경우 응답자에게 노출되는 정보가 무작위로 나타나게 하여 설문대상자들이 이 무작위 정보에 따라 응답하는 내용이 달라지는지 여부도 점검하였다. 점검결과에 따르면 무작위 정보는 응답자의 대답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나. 주요 조사내용

실태조사는 ‘대학교육의 예상 혜택 및 비용’, ‘대학생의 근로실태’, ‘대학재학 중 상용직 근무 희망 여부 및 조건’, ‘대학진학에 대한 현재 평가’,

‘개인 및 가구 특성’ 등의 항목에 대해 이루어졌으며, 각 항목에 속하는 구체적인 세부 설문내용은 <표 2-6>과 같이 구성되었다. [부록 2]는 이번 연구에 사용한 설문조사지이다.

<표 2-6> 조사 항목 및 세부 내용

	세부 내용
대학교육의 예상 혜택 및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교육의 혜택 및 비용</li> <li>- 대학교육의 경제적 비용(학비/생활비/포기임금/기타)</li> <li>- 대학 졸업 후 희망하는 취업형태/근로시간</li> <li>- 대학 졸업 후 예상하는 소득활동 시기</li> <li>- 대학 졸업 후 예상하는 고졸 대비 임금수준</li> </ul>
대학생의 근로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년 평균 소득활동 개월 수/이직 횟수</li> <li>- 고용형태(정규직/비정규직/고용주 등)</li> <li>- 근로시간 형태(시간제/전일제)</li> <li>- 종사상 지위(상용/임시/일용직)</li> <li>- 담당업무/업종</li> <li>- 업무의 대학교육 필요 및 전공학습 기여 여부</li> <li>- 월평균 임금/근무시간/시간당 임금</li> <li>- 1년 평균임금(세전)/시간당 임금</li> <li>- 소득활동의 가장 큰 이유/어려웠던 점</li> <li>- 취업 시 고려사항/포기할 수 있는 것</li> </ul>
대학재학 중 상용직 근무 희망 여부 및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재학 중 상용직 근무 병행 희망 여부</li> <li>- 희망 근무기간(방학/정규학기 포함 연중 시간제)</li> <li>- 정규학기 상용직 근무 시 원하는 근무 형태</li> <li>- 희망 임금, 근무시간, 근속 예정기간</li> <li>- 정규학과 상용직 병행 시 과목 수 조절 의향</li> <li>- 희망 근무시간/급여 지급 시 중소기업 근무 희망 여부</li> <li>- 재학 중 일자리 선택 시 가장 중요한 요소</li> <li>- 재학 중 근무로 예상되는 추가 학업기간</li> </ul>
대학진학에 대한 현재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진학 사유</li> <li>- 학사학위 취득의 가장 큰 효과</li> <li>- 대학교육의 가장 큰 문제</li> <li>- 고졸자 대비 대졸자의 경제적 및 사회적 위치</li> <li>- 대학 졸업 후 고졸자 대비 기대 임금</li> </ul>
개인 및 가구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별, 연령, 병역 이행 여부</li> <li>- 학교명, 전공 계열, 재적 상태</li> <li>- 입학 연월, 총 이수학기, 졸업 예정 연월</li> <li>- 편입 희망여부</li> <li>- 향후 소득활동 희망여부</li> <li>- 부모님의 소득수준(본인 소득 제외, 월평균, 세전)</li> <li>- 부모 학력(아버지와 어머니 중 높은 쪽)</li> <li>- 부모님과 동거여부</li> </ul>

자료: 필자가 직접 실태조사한 것임.

## 2. 표본 특성

<표 2-7>은 실태조사에 참여한 학생들에 대한 기초통계이다. 표본학생들의 평균나이는 21.1세이며 평균이수학기는 3.6학기이다. 이들의 평균 입학시기는 2014년이고 고등학교 졸업 직후 대학교에 입학하는 연령이 만 19세인 점을 고려하면, 연령에 비해서 이수학기가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상당수의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한 후 휴학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남자 대학생의 주된 휴학사유는 병역의무 이행인데, 표

<표 2-7> 기초통계

		평균(표준편차)	표본수(명)
나이(만)		21.1(2.0)	1,434
이수학기(학기)		3.6(2.1)	1,434
부모소득(월평균, 천 원)		10,013(17,799)	1,434
		비율(%)	표본수(명)
재적 상태(%)	재학	96.0	1,376
	휴학	4.0	58
대학 소재지(%)	수도권 대학	60.2	863
	지방대학	39.8	571
전공계열(%)	인문계열	19.7	282
	사회계열	19.0	273
	교육계열	14.0	201
	공학계열	15.6	223
	자연계열	12.4	178
	예체능계열	14.4	206
	기타의약계열	5.0	71
성별(%)	남자	49.9	715
	여자	50.1	719
부모교육수준(%)	고졸 이하	32.7	469
	전문대 졸업	12.4	178
	4년제 졸업	43.0	616
	대학원 이상	11.9	174
거주상태(%)	부모님과 동거	74.3	1,066
	부모님과 미동거	25.7	368

자료: 필자가 직접 실태조사한 것임.

본 중 남학생의 48.3%가 병역의무를 이행했다고 밝혔다. 실태조사 대상 학생들의 부모소득(두 분 모두 근로하는 경우 합계금액)은 월평균 1천만 원으로 매우 높고, 표준편차는 1,800만 원으로 매우 넓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7>에 따르면 대학 소재지에 따라 12개 수도권 대학 학생은 총 863명, 8개 지방대학의 학생은 총 571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설문 당시 학생들의 대다수인 96%는 재학생, 4%는 휴학 중이었다. 전공계열의 경우 인문계열 19.7%, 사회계열 19.0%, 교육계열 14.0%, 공학계열 15.6%, 자연계열 12.4%, 예체능계열 14.4%, 기타의약계열 5%로 구성되어 있다. 전공별로 학생 수 분포에 다소 차이가 있는데 이는 대학별로 일부 전공계열 학과가 없기 때문이다. 성별은 대학별로 할당량을 정해서 남녀 학생의 성별 구성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부모 학력수준의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 중 높은 학력 기준으로 55%의 학생의 부모가 4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으며, 2년제 대학 졸업자까지 포함하면 67.3%의 학생의 부모가 대학교육을 받았다. 거주상태를 보면 전체 학생의 74.3%가 부모님과 동거하고 있고 25.7%는 부모님과 동거하지 않는다.

### 제3절 대학교육 관련 인식

본절은 중위권 대학 학생들이 대학교육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를 제시한다. 조사결과를 학생들이 진학한 대학의 소재지, 전공계열, 부모의 학력별로 구분한다. 대학 소재지에 따라 수도권 및 지방으로, 전공계열은 인문계열, 사회계열, 교육계열, 공학계열, 자연계열, 예체능계열, 기타의약계열로, 부모학력은 고졸 및 대졸 이상으로 구분한다. 부모학력의 경우 4년제 대졸을 기준으로 그 미만인 중졸, 고졸, 2년제 대졸을 편의상 고졸로 표현하며, 4년제 대졸 및 대학원 이상은 대졸 이상으로 표현한다.

<표 2-8>은 대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한 가장 큰 이유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이다. 설문문항은 취직 시 임금 및 근무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회생활에 필요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서, 사회인으로서 필요한 자질(예, 시민의식 등) 양성을 위해서, 고졸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서 자유롭기 위해서, 부모님의 권유와 주변 친구들의 대학진학 때문에, 진로 및 적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학업에 흥미를 느껴서의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표 2-8>에 따르면 가장 많은 학생인 22.2%가 취직 시 임금 및 근무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대학에 진학하였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대학진학의 이유는 16.9%가 선택한 진로 및 적성 파악이다. 학업에 흥미를 느껴서, 사회인으로서 필요한 자질 양성을 위해서, 부모님의 권유와 주변 친구들의 대학진학 때문이라는 항목이 각각 13~14%의 비슷한 비중으로 대학진학의 이유로 선택되었고, 기타 11.0%는

<표 2-8> 대학진학의 가장 큰 이유

(단위: %)

		임금 및 근무조건 향상을 위해서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서	사회인으로서 필요한 자질양성을 위해서	고졸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서 자유롭기 위해서	부모님의 권유와 친구들의 대학진학 때문에	진로 및 적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학업에 흥미를 느껴서
전 체		22.2	9.2	13.6	11.0	13.1	16.9	13.9
지역	수도권	23.2	9.6	13.7	12.7	14.5	14.0	12.3
	지방	20.8	8.6	13.5	8.4	11.0	21.2	16.5
전공 계열	인문	20.2	8.2	13.1	11.3	16.0	17.0	14.2
	사회	22.7	8.1	16.1	12.8	14.3	13.6	12.5
	교육	27.4	10.9	14.9	10.4	10.9	13.9	11.4
	공학	27.4	10.3	13.0	7.6	13.0	19.3	9.4
	자연	21.3	11.2	12.9	14.0	14.0	15.7	10.7
	예체능	12.1	8.3	11.7	12.1	10.2	19.9	25.7
	기타의약	29.6	7.0	11.3	4.2	9.9	23.9	14.1
부모 학력	고졸	21.6	8.7	12.8	13.5	12.2	19.2	12.1
	대졸이상	22.7	9.7	14.2	9.0	13.9	14.5	15.5

자료: 필자가 직접 실태조사한 것임.

고졸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서 자유롭기 위해서, 가장 낮은 비율인 9.2%는 사회생활에 필요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서를 대학진학의 이유로 선택하였다.

대학의 소재지 및 부모학력으로 구분하여 보면 고졸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대학에 진학했다는 응답비율은 수도권 대학 학생이 지방대학 학생보다, 2년제 대졸 또는 고졸 이하의 교육수준을 가진 부모를 둔 학생이 4년제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부모를 둔 학생보다 각각 4.3%p, 4.5%p 높다. 그리고 진로 및 적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대학에 진학했다는 비율은 지방대학 학생이 수도권 대학 학생보다, 2년제 대졸 또는 고졸 이하 교육수준의 부모를 둔 학생이 4년제 대졸 이상의 교육수준을 가진 부모를 둔 학생보다 각각 7.2%, 4.7%p 높다. 전공계열 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기타의약계열(보건학, 재활학, 의료공학 등) 학생들이 임금 및 근무조건 향상을 위해서, 그리고 진로 및 적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대학에 진학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다.

<표 2-9>는 대학생들이 인식하는 대학교육의 가장 큰 혜택에 대한 조사결과이다. 설문문항은 취직 시 임금 및 근무조건 향상, 사회생활에 필요한 인적 네트워크 형성, 사회인으로서 필요한 자질 양성, 고졸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로 구성되었다.

<표 2-9>에 따르면 가장 높은 비중인 37.0%의 대학생이 대학교육의 가장 큰 혜택으로 취직 시 임금 및 근무조건 향상을 선택하였다. 그다음으로는 25.9%의 대학생이 사회인으로서 필요한 자질 양성을 선택했고, 20.7%가 사회생활에 필요한 인적 네트워크 형성, 16.4%가 고졸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서 자유로움을 대학교육의 혜택으로 선택하였다. 대학 생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는 경제적인 이익으로 연결될 수 있지만 미래 배우자 및 친구들과의 교류를 포함하기도 한다. 따라서 2016년 현재 대학에 진학 중인 우리나라 청년층의 2/3 정도가 대학에 진학하는 가장 큰 혜택으로 노동시장에서의 경제적인 효과를 선택하지 않았다. 대학 소재지 및 전공계열별로 구분하는 경우 응답내용에 큰 차이는 없다. 반면 부모의 학력수준으로 구분하면 2년제 대졸 또는 고졸 이하 교육수준의 부모를 둔 학생이, 4년제 대졸 이상의 교육수준을 가진 부모

<표 2-9> (고졸자 대비) 대학교육의 가장 큰 혜택

(단위: %)

		취직시 임금 및 근무조건 향상	사회생활에 필요한 인적 네트워크 형성	사회인으로서 필요한 자질 양성	고졸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서 자유로움
전 체		37.0	20.7	25.9	16.4
지역	수도권	36.6	20.7	25.0	17.6
	지방	37.5	20.7	27.3	14.5
전공 계열	인문	41.5	18.1	25.5	14.9
	사회	34.1	19.8	27.8	18.3
	교육	38.8	20.9	26.4	13.9
	공학	39.5	20.6	25.1	14.8
	자연	30.3	27.5	23.0	19.1
	예체능	35.0	18.9	26.2	19.9
	기타의약	39.4	22.5	28.2	9.9
부모 교육	고졸	35.6	19.2	29.1	16.2
	대졸이상	38.1	22.0	23.4	16.5

자료: 필자가 직접 실태조사한 것임.

를 둔 학생보다 사회인으로서 필요한 자질 양성을 대학교육의 가장 큰 혜택으로 선택한 비율이 5.7%p 높다.

<표 2-10>은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대학교육의 가장 큰 문제에 대한 조사결과이다. 선택항은 취직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기술 습득의 어려움,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타 능력 개발의 어려움, 높은 등록금, 대학교육의 서열화, 대학교육의 평준화, 대학 내 인간관계의 부재, 취직만 강조하는 풍토, 높은 대학진학률로 구성되었다.

<표 2-10>에 따르면 대학교육의 문제로 27.0%의 대학생은 높은 등록금, 18.1%는 취직만 강조하는 풍토, 13% 정도가 높은 대학진학률 및 대학교육의 서열화, 8~9%가 전문지식 및 기술 습득의 어려움 및 직무수행능력 외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타 능력개발의 어려움을 선택하였다. 즉 대학생은 대학교육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대학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있다. 높은 등록금 다음으로는 취직만 강조하는 풍토가 대학교육의 문제점으로 선택되었는데, <표 2-9>에 제시된 바와 같이

3/4 정도의 학생들이 노동시장에서 경제적 효과 이외의 요인을 대학교육의 가장 큰 혜택으로 선택한 결과와 취직만 강조하는 풍토가 대학교육의 가장 큰 문제로 높은 비중으로 선택된 것은 일맥상통한다. 또한 단 9%의 학생들이 취직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기술 습득의 어려움을 대학교육의 가장 큰 문제로 선택하였다. 이 결과는 대학생들이 현재의 교육을 통해 이러한 전문지식 및 기술 습득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한다고 해석하기보다는, 대학교육의 내용 자체에 대한 불만보다는 경제적 부담이나 전반적인 대학 분위기에 대한 불만이 큰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 소재지별로 살펴보면 지방대학 학생은 수도권 대학 학생보다 높은 등록금을 대학교육의 가장 큰 문제로 선택한 비율이 5.8%p 높고, 수도권 대학 학생은 지방대학 학생보다 취직만을 강조하는 풍토를 선택한 비율이 7.4%p 높다. 전공계열별로 살펴보면 20% 이상의 인문·사회·교육계열의 대학생들이 높은 등록금 다음으로 취직만 강조하는 풍토를 대

〈표 2-10〉 대학교육의 가장 큰 문제

(단위: %)

		전문지식 및 기술 습득의 어려움	사회생활 능력 개발의 어려움	높은 등록금	대학 교육의 서열화	대학 교육의 평준화	대학내 인간 관계의 부재	취직만 강조하는 풍토	높은 대학진학 률
전 체		9.0	8.0	27.0	13.4	5.9	5.2	18.1	13.3
지역	수도권	10.2	7.8	24.7	13.4	5.2	4.6	21.1	13.0
	지방	7.2	8.4	30.5	13.3	7.0	6.1	13.7	13.8
전공 계열	인문	7.4	7.1	27.7	13.5	4.6	6.0	20.6	13.1
	사회	11.7	7.7	24.9	15.8	1.8	2.9	20.5	14.7
	교육	7.0	7.5	22.9	13.4	8.5	5.5	22.9	12.4
	공학	10.8	6.7	30.0	10.3	5.8	4.9	18.4	13.0
	자연	9.6	10.7	29.2	12.4	10.1	4.5	10.7	12.9
	예체능	8.3	10.2	26.7	12.6	5.3	8.3	16.5	12.1
	기타의약	5.6	5.6	29.6	18.3	11.3	4.2	8.5	16.9
부모 학력	고졸	7.6	7.7	27.4	14.5	5.9	5.4	18.2	13.3
	대졸이상	10.2	8.3	26.7	12.5	6.0	5.1	18.0	13.3

자료: 필자가 직접 실태조사한 것임.

학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고 있다. 높은 대학진학률을 대학교육의 가장 큰 문제로 꼽은 학생의 비율은 대학 소재지별, 전공계열별, 부모학력별로 구분해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표 2-10>에서 가장 많은 대학생(전체의 27.0%)이 선택한 대학교육의 문제는 높은 등록금이다. <표 2-11>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학생들이 대학교육의 가장 큰 비용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이다. 설문항목은 대학교육의 비용 중 경제적 비용인 학비, 생활비, 고등학교 졸업 후 취직할 경우 대학 재학기간 동안에 벌 수 있었던 임금(포기임금) 및 비경제적 비용인 대학 재학기간 동안의 시간과 자유로 구성되었다.

<표 2-11>에 따르면 대학교육의 가장 큰 비용으로 60.9%는 학비, 20.3%는 생활비, 12.6%는 시간과 자유, 6.2%는 포기임금을 선택하였다. 60.9%의 대학생들이 학비를 대학교육의 가장 큰 비용으로 선택하였는데 이 결과는 대학교육의 가장 큰 문제로 높은 등록금이 선택된 것과 일치한다. 비경제적 비용인 시간과 자유가 선택된 비율이 12.6%로 높지 않은 것은 대학생이 경제적 비용에 대해 큰 부담을 갖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현재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은 자신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재학기간에 근무를 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포기임금, 즉 기회비용에 대해

<표 2-11> 대학교육의 가장 큰 비용

(단위: %)

		포기임금	학비	생활비	시간과 자유
전 체		6.2	60.9	20.3	12.6
지역	수도권	7.4	61.5	17.5	13.6
	지방	4.4	59.9	24.5	11.2
전공 계열	인문계열	7.4	58.5	18.8	15.2
	사회계열	7.0	59.3	20.1	13.6
	교육계열	7.0	54.7	25.9	12.4
	공학계열	4.5	64.1	18.4	13.0
	자연계열	7.3	64.6	19.1	9.0
	예체능계열	4.4	64.1	21.8	9.7
	기타의약계열	4.2	64.8	15.5	15.5
부모 학력	고졸	5.9	60.4	23.2	10.5
	대졸이상	6.5	61.3	17.9	14.4

자료: 필자가 직접 실태조사한 것임.

서는 크게 고려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설문에 참여한 중위권 4년제 대학 학생들의 경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할 의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 고졸자의 취업전망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반영한 것일 수도 있다.

대학 소재지로 구분하면 지방대 학생이나 수도권 대학 학생이나 부모님과 동거하는 비율은 유사하지만, 수도권 대학 학생이 지방대학 학생보다 생활비를 대학교육의 가장 큰 비용으로 선택한 비율이 7.0%p 정도 낮고, 포기임금을 선택한 비율은 3.0%p 높다. 부모의 교육수준으로 구분하면 2년제 대졸 또는 고졸 이하 교육수준의 부모를 둔 학생이 4년제 대졸 이상의 교육수준을 가진 부모를 둔 학생보다 생활비를 대학교육의 가장 큰 비용으로 선택한 비율은 5.3%p 높지만, 포기임금을 가장 큰 비용으로 선택한 비율에는 큰 차이가 없다.

<표 2-12>는 대학교육의 경제적 비용에 대한 예상평균액을 조사한 결과이다. 중위권 대학생은 평균적으로 학비 3,950만 원, 생활비 2,770만 원, 기타 비용으로 1,59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부표 1>과 <부표 2>에 제시된 실태조사에 포함된 20개 대학의 2014~16년 평균 연 등록금은 720만 원이므로 4년으로 환산하면 2,880만 원이어서 대학생의 예상 학비가 현실보다 다소 높다. 실태조사에 참가한 중위권 대학생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소득활동을 한다면 벌 수 있었던 기회비용인 포기임금으로는 5,010만 원을 예상했다. 평균적으로 중위권 대학생은 포기임금 포함 대학교육에 총 1억 3천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2015년 기준 20~24세 고졸 근로자의 평균 월급여 총액은 172만 원인데,<sup>5)</sup> 포기임금 5,010만 원을 2016년 기준 전국 4년제 대학생들의 졸업 소요기간 평균인 61개월(부표 3 참조)로 나누면 중위권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포기임금은 한 달 평균 82만 원 정도로 낮은 수준이다. 남학생의 경우 4년제 대학 졸업 소요기간은 75개월이고 병역의무로 인한 20개월 동안 소득활동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소득 가능기간을 55개월로 계산하더라도 남학생들이 예상

5)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8&tblId=DT\\_PAY0004&conn\\_pat h=I2#\(접속일:2016. 11. 21\)](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8&tblId=DT_PAY0004&conn_pat h=I2#(접속일:2016. 11. 21)).

〈표 2-12〉 대학교육의 평균 예상비용

(단위: 백만 원)

		학비	생활비	기타	포기임금	총액
전 체		39.5 (26.7)	27.7 (25.5)	15.9 (21.9)	50.1 (47.0)	133.2 (84.7)
지역	수도권	41.1 (25.8)	26.9 (22.7)	17.5 (23.0)	56.1 (48.5)	141.6 (84.8)
	지방	37.1 (27.8)	29.1 (29.2)	13.4 (19.8)	41.2 (43.3)	120.7 (82.9)
전공 계열	인문계열	40.2 (28.9)	29.0 (25.2)	16.6 (23.1)	55.2 (48.5)	141.1 (93.7)
	사회계열	36.9 (25.4)	26.5 (22.8)	15.6 (19.6)	54.0 (51.3)	133.0 (84.9)
	교육계열	34.9 (23.2)	25.0 (20.3)	13.3 (18.1)	46.3 (39.0)	119.5 (64.5)
	공학계열	37.0 (20.6)	26.5 (30.2)	15.8 (22.5)	43.4 (41.1)	122.7 (76.9)
	자연계열	43.3 (29.1)	26.2 (20.8)	19.4 (29.1)	52.1 (57.7)	141.0 (99.3)
	예체능계열	44.0 (30.3)	32.7 (31.7)	16.5 (20.5)	44.8 (42.8)	138.1 (85.7)
	기타의약계열	44.6 (27.5)	28.5 (22.9)	10.7 (13.8)	58.0 (40.2)	141.8 (70.4)
부모 학력	고졸	39.2 (27.2)	26.3 (25.2)	15.6 (22.4)	48.4 (45.8)	129.5 (84.1)
	대졸이상	39.7 (26.2)	29.0 (25.7)	16.1 (21.5)	51.6 (48.1)	136.4 (85.1)

주: 각 셀은 해당 학생의 평균치이며 괄호안은 표준편차임.  
 자료: 필자가 직접 실태조사한 것임.

하는 기회비용은 93만 원 정도로 낮다. 이처럼 낮은 포기임금은 대학생들이 고졸 근로자로 취직 시 대학재학의 전체 기간 동안 취직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인식과 고졸 근로자의 임금이 낮을 것이라는 다양한 인식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포기임금 포함 총액 기준으로 수도권 지역 대학생은 지방대 학생보다 대학졸업까지 2,090만 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생활비를 제외한 학비, 기타비용, 포기임금, 총 예상비용에서 수도권 지역 대학생들이 지방대학생보다 높은 비용을 예상했으며 이 차이는 t 검정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p<0.01)하다. 지방대생의 경우 수도권 대학생보다 대학졸업까지 400만 원 낮은 학비를 예상하는데 이는 <부표 1>과 <부표 2>에 제시된

실태조사에 포함된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의 2014~16년 평균 연간 등록금 차이가 110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 4년 등록금 기준 현실과 유사하다. 표본대학생의 전공계열 및 부모의 학력수준으로 구분한 대학교육의 예상 비용에는 큰 차이가 없다.

<표 2-13>은 학생들에게 대학졸업 후 소득활동을 할 경우 고졸 근로자의 임금에 비교하여 어느 정도의 임금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조사결과이다. 대학생은 평균적으로 20대에는 고졸자의 180.9%, 30대에는 200.2%, 40대에는 223.2%, 50대에는 242.8%, 60대에는 219.6%의 임금을 기대하며, 50대까지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고졸자 대비 높은 임금을 기대한다. 생애 전체의 평균으로는 고졸자의 214.4%의 임금수준을 기대했다.

<표 2-13> 고졸 근로자 대비 예상 임금비율

(단위: %)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평생
전 체		180.9 (194.2)	200.2 (189.5)	223.2 (196.5)	242.8 (209.7)	219.6 (188.7)	214.4 (181.8)
지역	수도권	209.6 (243.4)	231.3 (232.5)	259.9 (236.1)	285.2 (246.9)	254.8 (222.5)	248.9 (218.7)
	지방	137.7 (46.0)	153.1 (69.7)	167.8 (87.7)	178.7 (107.5)	166.4 (99.8)	162.2 (79.0)
전공 계열	인문계열	180.2 (191.4)	206.2 (196.1)	230.1 (205.7)	248.2 (220.1)	220.7 (179.5)	217.8 (185.6)
	사회계열	189.7 (212.2)	214.0 (212.4)	244.2 (229.1)	266.1 (244.9)	237.8 (219.7)	231.4 (214.8)
	교육계열	200.9 (231.9)	220.7 (229.2)	247.0 (237.4)	256.8 (227.7)	246.5 (224.0)	235.3 (216.3)
	공학계열	183.5 (196.5)	201.4 (190.0)	220.0 (191.3)	241.6 (208.7)	215.3 (197.0)	213.2 (184.8)
	자연계열	173.1 (178.2)	206.8 (192.7)	224.0 (184.6)	256.3 (212.4)	214.1 (156.5)	216.6 (166.2)
	예체능계열	143.5 (93.2)	162.8 (95.8)	186.8 (109.5)	204.8 (131.0)	183.9 (126.0)	177.3 (101.6)
	기타의약계열	214.4 (247.7)	152.3 (107.5)	161.3 (86.7)	172.4 (99.9)	200.6 (172.0)	182.9 (99.4)
부모 학력	고졸	187.1 (209.3)	205.2 (210.2)	218.8 (209.5)	230.5 (211.9)	212.0 (190.4)	211.3 (196.0)
	대졸이상	175.9 (180.9)	196.1 (170.6)	226.8 (185.3)	252.9 (207.5)	225.9 (187.2)	217.0 (169.4)

주: 각 셀은 해당 학생의 평균치이며 괄호 안은 표준편차임.  
자료: 필자가 직접 실태조사한 것임.

고졸 근로자 대비 기대하는 임금수준을 대학 소재지로 구분하면, 수도권 지역 대학생은 지방대 학생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임금을 기대하고 있다. 대학 소재지에 따라 모든 연령대의 기대임금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이 차이는 t 검정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p < 0.01$ ). 평생 임금을 기준으로 수도권 지역 대학생은 고졸 대비 248.9%의 임금을 기대하지만 지방대 학생은 고졸 대비 162.2%의 임금을 기대해 그 차이는 86.7%p로 상당하다. 전공계열로 구분하면 예체능계열 및 기타의약계열 전공자가 고졸자 대비 기대하는 임금수준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부모가 4년제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학생의 경우 부모가 고졸 또는 2년제 대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학생보다 높은 임금수준을 기대하지만(20대 및 30대 임금 제외) 그 차이는 전반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50대 임금 제외).

<표 2-13>에 제시된 결과는 대학생들의 기대임금에 대한 인식이 현실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사되었다. 4년제 대학 졸업자가 고등학교 졸업자의 생애 전체 기준 214.4%의 임금수준을 기대하는 것은 실제 현실에서 대졸 근로자가 고졸자 대비 150% 정도 수준의 월평균 임금을 받는 것에 비하면 다소 높은 기대치라고 보일 수도 있다(표 3-1 참조). 하지만 이 임금에는 성과급여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고졸자와 대졸자 간 고용률이 12~14%p 정도 차이가 나는 점을 고려하면(표 3-2 참조) 고졸과 대졸 근로자 간 생애 전체 임금이 실제로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과 유사하다.<sup>6)</sup>

또한 대학생들이 기대하는 임금수준이 실제 학력별 임금수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시하는 경우 영향을 받는지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 마지막 문항에서 “2015년 기준 고졸자의 월평균 임금은 212만 원, 대졸자의 월평균 임금은 350만 원으로, 고졸자는 대졸자 임금의 65% 수준을 받

6) 대졸 근로자는 고졸 근로자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노동시장에 늦게 참여하지만 이들의 퇴직시기도 고졸자에 비해 늦은 것을 감안하여 고졸 및 대졸 근로자의 경제활동기간이 40년으로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고졸자와 대졸자의 경제활동기간, 고용률, 월평균 임금수준을 곱한 수치의 격차는 1.9배이다( $40 \times 0.749 \times 1.59 / 40 \times 0.625 \times 1$ , 고용률 및 임금수준은 2015년 기준 수치임). 성과급여 등을 감안한 실제 임금격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고 있습니다”라는 정보를 무작위로 제시한 후 고졸 근로자 평균임금의 몇 %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지를 재질문하였다. <표 2-14>의 사전 질문·임금정보 미제시(부록 2 설문지 A-Q5번 조사결과) 열에 제시된 수치는 <표 2-13>의 평생 기준 고졸자 대비 대졸자 임금수준이며, 사후 질문·임금정보 미제시(부록 2 설문지 D-Q5번 조사결과) 열의 수치는 설문조사 마지막에 동일한 문항을 재질문한 결과(부록 2 D-Q5번)이며, 사후 질문·임금정보 제시 열의 수치는 동일 문항을 실제 임금 차이에 대한 정보를 제시한 후 재질문한 결과이다. 사전 질문·임금정보 미제시 열의 수치와 추후 질문·임금정보 미제시 열의 수치를 비교하면 0.7%p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는 t 검정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따라서 동일한 질문을 설문조사 초반에 하는지 마지막에 하는지의 질문시기는 답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사후 질문·임금정보 미제시 열의 수치와 사후 질문·임금정보 제시 열의 수치를 비교하면 10.6%p 차이가 나지만 이 차이 역시 t 검정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즉 대학생들이 고졸자에 비해 예상하는 임금수준은 현실에 나타나는 임금격차 정보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데, 이 결과는 대학생들이 대학교육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혜택에 대해 현실을 반영한 기대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표 2-15>는 대학졸업 후 고졸자와 비교해서 본인이 위치할 경제적 지위에 대한 조사결과이다. 대학졸업 후 고졸자 중위 미만의 경제적 지위에 위치할 것이라고 응답한 대학생은 전체의 3.9%에 불과하며, 대졸자 중위 이상의 경제적 지위에 위치할 것이라고 예상한 대학생이 전체의 58.2%이다.

<표 2-14> 고졸 근로자 대비 예상 임금비율(평생 기준)

(단위: %)

	사전 질문	사후 질문	차이	사후 질문		차이
	임금정보 미제시	임금정보 미제시		임금정보 미제시	임금정보 제시	
전 체	214.4 (181.8)	203.1 (152.0)	0.7	203.1 (152.0)	213.8 (176.7)	10.6
표본수	1,434	718	-	718	716	-

주: 각 셀은 해당 학생의 평균치이며 괄호 안은 표준편차임.  
자료: 필자가 직접 실태조사한 것임.

〈표 2-15〉 대학졸업 후 예상하는 경제적 지위

(단위: %)

		고졸자 중위 미만	기타	대졸자 중위 이상
전 체		3.9	37.9	58.2
지역	수도권	5.6	32.6	61.9
	지방	1.4	46.1	52.5
전공 계열	인문계열	2.5	42.9	54.6
	사회계열	7.3	37.0	55.7
	교육계열	1.0	36.3	62.7
	공학계열	7.2	34.1	58.7
	자연계열	1.7	37.6	60.7
	예체능계열	1.9	31.6	66.5
	기타의약계열	5.6	57.8	36.6
부모 학력	고졸	5.4	42.2	52.4
	대졸이상	2.7	34.4	62.9

자료: 필자가 직접 실태조사한 것임.

수도권 지역 대학생은 지방대 학생보다 본인의 경제적 위치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더 낙관적이다. 대졸자 중위 이상의 경제적 지위에 위치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수도권 지역 대학생은 전체의 61.9%이나 지방대 학생은 52.5%이다. 전공계열로 구분하면 예체능계열 학생들의 66.5%가 대학졸업 후 대졸자 중위 이상의 경제적 지위에 위치할 것이라고 응답해 가장 낙관적인 반면 기타의약계열은 36.6%만 대졸자 중위 이상의 경제적 지위에 위치할 것이라고 응답하여 가장 비관적이다. 부모의 교육수준으로 구분하면 부모가 고졸 또는 2년제 대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학생의 52.4% 및 부모가 4년제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학생의 62.9%가 대학졸업 후 대졸자 중위 이상의 경제적 지위에 위치할 것이라고 응답해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라 10.5%p의 차이를 보인다.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은 학생의 경우 본인의 졸업 후 경제적 위치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낙관적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고졸자 중위 미만의 경제적 지위에 위치할 것이라고 답변한 학생은 수도권 대학 학생이 5.6%로 지방대 학생의 1.4%보다 높고, 전공계열로 구분하면 사회계열 및 공학계열 학생이 7.2~7.3%로 가장 높지만 교육계열 전공자는 1.0%로 가장 낮고, 부모의 교육수준이 고졸이거나 2년

제 대졸 이하인 학생은 5.4%이나 부모가 4년제 대졸인 학생은 2.7%이다. 이는 대학교육에 대해 비관적인 학생은 지방대학보다 수도권 대학에, 교육계열보다 사회계열 및 공학계열에, 부모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2-16>은 대학졸업 후 고졸자와 비교해서 본인이 위치할 사회적 지위에 대한 조사결과이다. 대학졸업 후 고졸자 중위 미만의 사회적 지위에 위치할 것이라고 응답한 대학생은 전체의 1.7%에 불과하며, 대졸자 중위 이상의 경제적 지위에 위치할 것이라고 예상한 대학생은 전체의 59.8%이다.

수도권 지역 대학생은 지방대 학생보다 본인의 사회적 위치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더 낙관적이다. 대졸자 중위 이상의 사회적 지위에 위치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수도권 지역 대학생은 전체의 65.7%이나 지방대 학생은 50.8%이다. 전공계열로 구분하면 교육계열 학생들의 68.2%가 대학졸업 후 대졸자 중위 이상의 사회적 지위에 위치할 것이라고 응답하여 가장 낙관적인 반면 기타의약계열은 46.5%만 대졸자 중위 이상의 사회

<표 2-16> 대학졸업 후 예상하는 사회적 지위

(단위: %)

		고졸자 중위 미만	기타	대졸자 중위 이상
전 체		1.7	38.6	59.8
지역	수도권	2.0	32.3	65.7
	지방	1.2	48.0	50.8
전공 계열	인문계열	2.5	41.1	56.4
	사회계열	2.2	44.0	53.9
	교육계열	0.5	31.3	68.2
	공학계열	1.8	37.7	60.5
	자연계열	1.1	38.2	60.7
	예체능계열	1.0	32.0	67.0
	기타의약계열	2.8	50.7	46.5
부모 학력	고졸	2.5	44.2	53.3
	대졸이상	1.0	33.9	65.1

자료: 필자가 직접 실태조사한 것임.

적 지위에 위치할 것이라고 응답해 가장 비관적이다. 부모의 교육수준으로 구분하면 부모가 고졸 또는 2년제 대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학생의 53.3% 및 부모가 4년제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학생의 65.1%가 대학 졸업 후 대졸자 중위 이상의 사회적 지위에 위치할 것이라고 응답해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라 11.8%p의 차이를 보인다.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은 학생의 경우 본인의 미래 사회적 위치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낙관적이다.

<표 2-15>의 결과와 <표 2-16>의 결과를 비교하면 대학생들이 대학 졸업 후 예상하는 사회적 지위는 경제적 지위보다 다소 높다. 특히 고졸자 중위 미만에 위치할 것이라고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학생의 비율은 사회적 지위가 경제적 지위의 절반 이하이다.

## 제4절 대학생의 근로실태

본절은 중위권 대학 학생들의 대학재학 중 근로실태에 대한 조사결과를 제시한다. 대학생들이 재학 중 종사하는 소득활동의 기간, 이직횟수, 고용상태, 근로시간 형태, 종사상 지위, 직종, 업종, 업무 특성, 소득활동 목적, 소득활동의 어려움, 월평균 근로시간, 시급, 월급 등의 다양한 지표를 제3절과 동일하게 부모의 학력, 대학의 소재지, 전공계열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표 2-17>은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학생을 포함한 전체 학생의 연평균 소득활동 종사기간에 대한 통계이다. 실태조사 대상인 중위권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의 50.5%에 해당하는 724명은 대학재학 중 소득활동에 종사한다. 상당히 높은 비중의 학생이 대학교육과 소득활동을 병행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의 연평균 소득활동 종사기간(근로시간 형태 무관)은 3.1개월이다. 전체 학생 중 연간 소득활동에 참여하는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가 전체의 14.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4~5개월, 6개월, 6~11개월, 12개월인 경우는 각각 9% 정도로 비슷한 분포를 보인다. 대학생 중 1년 내내 소득활동을 하는 학생은 전체의 8.9%로 적지 않다.

〈표 2-17〉 대학생의 연평균 소득활동 종사기간(개월)

(단위: %)

		0개월	1~3개월	4~5개월	6개월	6~11개월	12개월	평균(개월)
전체		49.5	14.8	9.8	9.0	8.1	8.9	3.1
지역	수도권	44.5	13.1	11.2	10.1	10.8	10.3	3.6
	지방	57.1	17.3	7.5	7.4	4.0	6.7	2.3
전공 계열	인문	51.8	13.8	10.6	7.5	9.9	6.4	3.0
	사회	43.2	15.8	12.5	12.1	8.4	8.1	3.4
	교육	41.8	11.9	12.9	10.0	10.0	13.4	4.0
	공학	51.6	14.8	7.6	9.4	5.4	11.2	3.1
	자연	55.1	15.7	10.1	6.7	6.8	5.6	2.5
	예체능	52.9	18.0	5.3	9.2	5.8	8.7	2.8
	기타의약	56.3	11.3	5.6	4.2	12.7	9.9	3.2
부모 학력	고졸	45.3	16.4	10.4	11.0	8.0	9.0	3.3
	대졸이상	53.0	13.5	9.3	7.4	8.1	8.8	3.0

자료: 필자가 직접 실태조사한 것임.

설문 당시 휴학 중인 학생(전체의 4.0%)을 제외한 재학생만으로 소득활동 종사기간을 구분해도 상기 비율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대학 소재지에 따라 수도권 대학 학생과 지방대학 학생으로 구분하면, 수도권 대학의 학생이 더 활발하게 소득활동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비율은 지방대학 학생의 경우 전체의 57.1%이지만 수도권 대학 학생의 경우 전체의 44.5%로 지방대학 학생의 비율이 12.6%p 더 높다. 연평균 소득활동 종사기간의 평균의 경우 수도권 대학 학생은 3.6개월, 지방대학 학생은 2.3개월로 수도권 대학 학생의 근로기간이 1.3개월 더 길다. 전공별로 보면 교육계열 학생들의 연평균 소득활동 기간이 4.0개월로 가장 길다. 부모의 학력으로 구분하면 소득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비율은 부모의 학력이 4년제 대졸 이상인 학생의 경우는 53.0%이고 그 미만인 경우는 45.3%로 부모가 4년제 대졸 이상인 경우 소득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7.7%p 낮아 가족배경에 따른 학생들의 근로 여부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표 2-18〉은 소득활동을 한다고 응답한 724명의 학생만을 대상으로

연평균 소득활동 종사기간을 재구성한 표이다. 우선 소득활동을 하는 학생들의 연평균 소득활동 종사기간은 6.2개월로 전체 학생의 평균인 3.1개월의 두 배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평균 근로개월수가 1~3개월인 학생은 29.3%, 4~5개월은 19.3%, 6개월은 17.8%, 6~11개월은 16%, 12개월은 17.5%이다. 소득활동을 하는 대학생 중 1년 내내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학생의 비율은 17.5%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표 2-18>에 제시된 실태조사 결과는 재학 중 소득활동을 한다고 응답한 절반의 학생들이 재학 중 활발하게 소득활동을 하는 것을 보여준다.

연평균 소득활동 종사기간을 지역으로 구분하면 수도권 대학 학생들의 연평균 소득활동 기간은 6.6개월로 지방대 학생의 평균인 5.4개월보다 1.2개월 길다. 전공별로 구분하면 연평균 근로개월수가 가장 긴 전공은 기타의약계열로 관련 전공자의 평균 근로기간은 7.4개월이다. 기타의약계열 다음으로 연평균 근로개월수가 긴 전공은 교육계열로, 이들은 연평균 6.8개월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대학생의 소득활동 참여 자체가

<표 2-18> 대학생 근로자의 연평균 소득활동 종사기간(개월)

(단위: %)

		1~3개월	4~5개월	6개월	6~11개월	12개월	평균(개월)
전 체		29.3	19.3	17.8	16.0	17.5	6.2
지역	수도권	23.6	20.3	18.2	19.4	18.6	6.6
	지방	40.4	17.6	17.1	9.4	15.5	5.4
전공 계열	인문	28.7	22.1	15.4	20.6	13.2	6.1
	사회	27.7	21.9	21.3	14.8	14.2	5.9
	교육	20.5	22.2	17.1	17.1	23.1	6.8
	공학	30.6	15.7	19.4	11.1	23.2	6.3
	자연	35.0	22.5	15.0	15.0	12.5	5.6
	예체능	38.1	11.3	19.6	12.4	18.6	5.9
	기타의약	25.8	12.9	9.7	29.0	22.6	7.4
부모 학력	고졸	29.9	18.9	20.1	14.7	16.4	6.0
	대졸이상	28.7	19.7	15.7	17.3	18.7	6.3

주: 분석대상은 소득활동을 하는 724명임.  
 자료: 필자가 직접 실태조사한 것임.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학생 중 부모의 교육수준과 소득활동 종사기간에는 큰 차이가 없다.

<표 2-19>는 1년에 평균적으로 소득활동을 위해 일자리를 바꾸는 빈도를 보여준다. <표 2-19>에 따르면 소득활동을 하는 대학생(724명)의 연평균 이직횟수는 1.39번이며 75.0%가 1년에 1회 이상 일자리를 바꾼다. 1년에 1회 이직하는 대학생은 전체의 37.9%이며, 2회 이직하는 대학생은 23.6%, 3회 이직하는 대학생은 8.6%, 4회 이상 이직하는 대학생은 5.0%이다. 소득활동을 하는 학생들의 연평균 소득활동 기간은 6.2개월인데 1년에 일자리를 2회 이상 바꾸는 대학생이 전체의 37.2%인 점에서 대학생의 일자리 지속성이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2-19> 대학생 근로자의 연평균 일자리를 바꾸는 횟수

(단위: %)

		바꾸지 않음		1번	2번	3번	4번 이상	평균 (횟수)
		소득활동 미종사자 포함	0번					
전 체		(62.1)	25.0	37.9	23.6	8.6	5.0	1.39
지역	수도권	(56.7)	21.9	35.5	25.7	10.4	6.5	1.55
	지방	(70.4)	31.0	42.4	19.6	4.9	2.0	1.08
전공 계열	인문	(69.8)	25.0	39.0	21.3	10.3	4.4	1.36
	사회	(59.3)	28.4	38.1	20.0	7.1	6.5	1.35
	교육	(55.7)	23.9	35.9	26.5	9.4	4.3	1.46
	공학	(65.5)	28.7	31.5	30.6	7.4	1.9	1.26
	자연	(64.0)	20.0	40.0	26.3	8.8	5.0	1.43
	예체능	(64.1)	23.7	41.2	17.5	9.3	8.2	1.53
	기타의약	(63.4)	16.1	45.2	29.0	6.5	3.2	1.39
부모 학력	고졸	(59.5)	26.0	35.3	23.2	10.7	4.8	1.41
	대졸이상	(64.3)	24.1	40.3	24.1	6.4	5.1	1.37

주: 분석대상은 소득활동을 하는 724명이나, 괄호 안 수치는 전체 학생 중 소득활동을 하지 않아서 일자리를 변경할 이유가 없거나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일자리를 바꾸지 않는 경우의 비율임.

자료: 필자가 직접 실태조사한 것임.

대학 소재지로 구분하는 경우 수도권 대학 학생이 일자리를 더 자주 바꾸는 것을 알 수 있다. 수도권 대학 학생의 경우 1년에 평균 1.55번 일자리를 바꾸는데 지방대학 학생은 1.08번 바꾼다. 전공계열에 따른 대학생의 이직횟수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부모의 교육수준별로 구분한 대학생의 연평균 이직횟수는 큰 차이가 없다. 이는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라 대학생의 재학 중 소득활동 비율 자체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표 2-19>의 일자리를 바꾸는 빈도는 소득활동을 하는 학생에 한하여 조사된 것이기 때문에 <표 2-19>의 가장 왼쪽(소득활동 안함 포함) 열에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학생 전부를 일자리를 바꾸지 않는다고 처리한 통계를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하면 소득활동 미중사자를 포함하여 일자리를 바꾸지 않은 학생의 비율은 부모의 학력이 4년제 대졸 이상인 경우에는 64.3%이며 그 미만인 경우보다 4.8%p 높다.

본절의 이하 표부터는 소득활동을 한다고 답한 724명의 학생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표 2-20>은 현재 하는 일 또는 가장 최근에 그만둔 일의 고용상태를 보여준다.<sup>7)</sup> <표 2-20>에 따르면 대학생 근로자의 대다수인 78.9%는 비정규직 임금근로자이며, 7.9%는 정규직 근로자, 11.1%는 창업 등의 이유로 고용주이며, 2.1%는 무급가족종사자이다.

고용주의 비율의 경우 수도권 대학 학생은 10.0%이며 지방대학 학생은 6.5%로 수도권 대학 학생이 3.5%p 높은데 이는 창업 등을 하는 비율이 수도권 학생이 더 높은 것을 의미한다. 전공별로 보면 정규직 임금근로자 비율은 교육계열 전공자가 11.1%로 가장 높다. 부모의 학력으로 구분한 학생별 고용상태에는 큰 차이가 없다.

<표 2-21>은 현재 하는 일 또는 가장 최근에 그만둔 일의 근로시간 형태에 대한 조사결과이다. 91.6%의 중위권 대학생이 현재 하는 일 또는 가장 최근에 그만둔 일자리에서 시간제 근로를 했으며 8.4%가 전일제 근로를 했다. 시간제 근로를 하는 대학생의 대부분은 파트타임이나 아르바이트의 형태가 아니라 근로시간이 주 35시간 미만인 시간제로 근무한

7) 실태조사가 2학기 개강 이후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52.1%의 학생이 실태조사 당시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표 2-20〉 대학생 근로자의 고용상태

(단위: %)

		정규직 임금근로자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종업원 있는 고용주	종업원 없는 고용주	무급가족 종사자
전 체		7.9	78.9	8.8	2.3	2.1
지역	수도권	7.3	79.3	10.0	2.1	1.3
	지방	9.0	78.0	6.5	2.9	3.7
전공 계열	인문	10.3	77.9	10.3	0.7	0.7
	사회	7.1	84.5	5.2	1.9	1.3
	교육	11.1	74.4	3.4	6.0	5.1
	공학	4.6	80.6	13.0	0.9	0.9
	자연	7.5	71.3	15.0	5.0	1.3
	예체능	8.2	77.3	9.3	1.0	4.1
	기타의약	0.0	90.3	9.7	0.0	0.0
부모 학력	고졸	6.8	79.9	8.2	2.8	2.3
	대졸이상	8.9	77.8	9.5	1.9	1.9

주: 분석대상은 소득활동을 하는 724명임.

자료: 필자가 직접 실태조사한 것임.

다고 응답했다. 전공별로 살펴보면 자연계열 전공자의 전일제 근무 비율이 12.5%로 가장 높고 기타의약계열 전공자의 전일제 근무 비율이 3.2%로 가장 낮다. 전일제 근로 비율은 대학 소재지나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라 큰 차이가 없다. <표 2-20>에서 정규직 여부는 고용의 안정성을 의미하는 긍정적인 고용지표를 의미할 수 있으나, <표 2-21>에서 전일제 근로 여부는 학생들의 평균 연령이 21.1세이고 평균 이수학기가 3.6개월인 것을 감안하면 대학생의 장시간 근로로 인하여 대학 졸업시기가 늦춰지거나 학업에 방해가 된다면 부정적인 고용지표로도 해석될 수 있다.

<표 2-22>는 현재 하는 일 또는 가장 최근에 그만둔 일의 계약기간에 따른 종사상 지위에 대한 통계이다. 종사상 지위를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으로 구분하면, 대학생 근로자 전체의 26.9%가 상용직, 57.1%가 임시직, 16.0%가 일용직이다. 상용직 및 임시직인 대학생을 계약기간이 있는지 여부로 구분하면, 상용직 중 계약기간이 없는 근로자의 비중은 71.3% (상용직 195명 중 139명)이며, 임시직 중 계약기간이 없는 근로자의 비중

〈표 2-21〉 대학생 근로자의 근로시간 형태

(단위: %)

		시간제 근로		전일제 근로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계약된 근로시간이 주 35시간 미만	
전 체		10.6	80.9	8.4
지역	수도권	11.1	80.0	9.0
	지방	9.8	82.9	7.3
전공 계열	인문	9.6	83.1	7.4
	사회	9.0	84.5	6.5
	교육	8.5	79.5	12.0
	공학	9.3	84.3	6.5
	자연	8.8	78.8	12.5
	예체능	15.5	75.3	9.3
	기타의약	25.8	71.0	3.2
부모 학력	고졸	8.2	82.8	9.0
	대졸이상	13.0	79.2	7.8

주: 분석대상은 소득활동을 하는 724명임.  
 자료: 필자가 직접 실태조사한 것임.

은 39.7%(임시직 413명 중 164명)이다. 대학생 근로자 중 절반 이상(57.1%)이 임시직이며, 전체 대학생 근로자(임시직 포함)의 절반(50.6%, 724명 중 366명)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소득활동에 종사한다. 전공별로 살펴보면 교육계열 및 자연계열 학생의 상용직 비율이 30% 이상으로 가장 높다.

대학 소재지로 구분하면 29.5%의 수도권 대학 학생은 상용직(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및 정해진 계약기간이 없는 경우)이나 지방대학 학생의 상용직 비율은 22.0%이다. 따라서 소득활동을 한다면 수도권 대학 학생들이 안정적인 직장을 갖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전공계열별로 살펴보면 교육계열의 상용직 비율이 30.8%로 가장 높다. 부모의 교육수준으로 구분하면 부모의 학력이 4년제 대졸 이상인 경우 상용직 비율이 29.2%이며, 2년제 대졸 또는 고졸 이하인 경우에는 상용직 비율이 24.6%이다.

〈표 2-22〉 대학생 근로자의 종사상 지위

(단위: %)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근로계약 기간 1년 이상	정해진 계약기간 없음	근로계약 기간 1개월~ 1년	근로계약 기간 없지만 1년 내 종료 예상	근로계약 기간 1개월 미만	매일 고용 일당제 급여 수령	일한 곳에서 일한 대가 수령
전 체		7.7	19.2	34.4	22.7	7.3	6.2	2.5
지역	수도권	8.4	21.1	34.7	20.5	7.9	5.8	1.7
	지방	6.5	15.5	33.9	26.9	6.1	6.9	4.1
전공 계열	인문	10.3	19.1	33.1	22.1	5.1	6.6	3.7
	사회	7.1	16.1	32.3	29.0	7.7	5.8	1.9
	교육	9.4	21.4	29.9	20.5	11.1	3.4	4.3
	공학	6.5	17.6	41.7	18.5	8.3	7.4	0.0
	자연	5.0	25.0	38.8	21.3	2.5	6.3	1.3
	예체능	7.2	17.5	34.0	19.6	9.3	9.3	3.1
	기타의약	6.5	22.6	32.3	29.0	3.2	3.2	3.2
부모 학력	고졸	7.6	17.0	36.4	20.9	7.1	7.6	3.4
	대졸이상	7.8	21.4	32.4	24.3	7.6	4.9	1.6

주: 분석대상은 소득활동을 하는 724명임.

자료: 필자가 직접 실태조사한 것임.

〈표 2-23〉은 현재 하는 일 또는 가장 최근에 그만둔 일에서 담당한 업무에 대한 조사결과이다. 대학생 근로자 전체의 43.1%는 서비스종사자, 16.4%는 판매종사자, 16.3%는 교육종사자, 각각 9.1%는 사무종사자와 단순노무종사자, 4.7%는 기능·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이다.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의 합은 대략 60%로 대학생들의 소득활동을 위한 일자리가 서비스업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학 소재지로 구분하면 사무종사자는 지방대학 학생들의 경우 5.7%로 수도권 대학 학생의 10.9%보다 5.2%p 낮다. 전공별로 살펴보면 사무종사자 비율은 기타의약계열이 22.6%로 가장 높고, 서비스종사자 비율은 인문계열이 50.7%로 가장 높고, 판매종사자와 기능·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의 비율은 예체능계열이 각각 19.6%, 10.3%로 가장 높고, 단

〈표 2-23〉 대학생 근로자의 직종

(단위: %)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림·어 업 종사자	기능, 장치, 기계 조작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교육 종사자
전 체		9.1	43.1	16.4	1.2	4.7	9.1	16.3
지역	수도권	10.9	41.5	16.3	0.8	4.6	8.8	17.1
	지방	5.7	46.1	16.7	2.0	4.9	9.8	14.7
전공 계열	인문	8.1	50.7	19.1	1.5	3.7	5.9	11.0
	사회	9.7	46.5	12.3	0.0	3.9	9.0	18.7
	교육	6.8	33.3	17.1	0.9	1.7	7.7	32.5
	공학	10.2	46.3	16.7	3.7	5.6	8.3	9.3
	자연	7.5	40.0	17.5	1.3	6.3	15.0	12.5
	예체능	8.2	41.2	19.6	1.0	10.3	8.2	11.3
	기타의약	22.6	32.3	9.7	0.0	0.0	19.4	16.1
부모 학력	고졸	7.3	42.9	19.2	1.7	5.1	9.0	14.7
	대졸이상	10.8	43.2	13.8	0.8	4.3	9.2	17.8

주: 분석대상은 소득활동을 하는 724명임.  
자료: 필자가 직접 실태조사한 것임.

순노무종사자는 기타의약계열이 19.4%로 가장 높고, 교육종사자 비율은 교육계열 전공자가 32.5%로 가장 높다. 즉 교육계열 전공자를 제외하고는 대학생 근로자의 전공과 직종의 관련성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부모의 교육수준으로 구분하면 부모가 4년제 대졸 이상인 학생은 부모가 2년제 대졸이나 고졸 이하인 경우보다 사무종사자와 교육종사자 비율이 각각 3.5%p, 3.1%p 높은 반면 판매종사자 비율은 5.4%p 낮아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대학생 근로자의 직종에 다소 차이를 보인다.

〈표 2-24〉는 중위권 대학생들이 현재 하는 일 또는 가장 최근에 그만둔 일의 업종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이다. 설문문항은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기타서비스업 등으로 구성되었다. 〈표 2-24〉에 따르면 대학생이 하는 일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은 30.0%가 종사한 숙박 및 음식점업이다. 그 다음으로는 대학생 근로자의 19.2%가 교육서비스업, 13.4%가 기타서비스업, 12.2%가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8.2%가 도소매업에

중사하였다. <표 2-23>에서 교육종사자를 선택한 비율이 16.3%이나 <표 2-24>에서 교육서비스업을 선택한 비율이 2.9%p 높은 19.2%인 것은, 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것 이외에도 재학 중인 대학교나 사설학원 등의 교육기관에서 행정업무를 하는 대학생이 다소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2-23> 및 <표 2-24>의 결과를 종합하면, 대학생들의 소득활동을 위한 근로활동은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기타서비스업에 편중되어 있고, 대학생들이 소득활동을 위해 하는 일은 대학교육 및 전공학습과는 큰 연관성이 없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표 2-25>는 직접적으로 재학 중 중사한 일이 대학교육이 필요한 일이었는지, 전공학습에 도움이 되는 일이었는지를 조사한 결과이다. <표 2-25>에 따르면 중위권 대학생들의 71.7%는 현재 하는 일 또는 가장 최근에 그만둔 일이 대학교육이 필요하지 않았으며, 69.2%는 그 일이 전공학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부정적인 응답 비율은 지

<표 2-24> 대학생 근로자의 업종

(단위: %)

		도소 매업	숙박, 음식업	서비스업			기타
				교육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여가관련 서비스업	기타 서비스업	
전 체		8.2	30.0	19.2	12.2	13.4	17.1
지역	수도권	5.2	27.8	20.3	13.4	15.7	17.8
	지방	13.9	34.3	17.1	9.8	9.0	15.9
전공 계열	인문	7.4	35.3	14.0	11.0	11.0	21.3
	사회	6.5	34.8	21.9	8.4	12.9	15.5
	교육	6.0	20.5	37.6	6.8	14.5	14.5
	공학	6.5	35.2	11.1	8.3	19.4	19.4
	자연	10.0	30.0	13.8	10.0	18.8	17.5
	예체능	15.5	24.7	10.3	35.1	4.1	10.3
	기타의약	6.5	16.1	29.0	3.2	16.1	29.0
부모 학력	고졸	11.3	28.0	16.7	11.9	13.8	18.4
	대졸이상	5.1	31.9	21.6	12.4	13.0	16.0

주: 분석대상은 소득활동을 하는 724명임.  
자료: 필자가 직접 실태조사한 것임.

방대학 학생의 경우 수도권 대학 학생보다 12.0~13.8%p 높다. 중위권 대학생 중에서 하고 있는 일에서 대학교육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자연계열, 사회계열, 인문계열, 공학계열, 예체능계열, 기타의약계열, 교육계열 순으로 높다. 하고 있는 일이 전공학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자연계열, 인문계열, 사회계열, 공학계열, 기타의약계열, 교육계열, 예체능계열 순으로 높다. 즉 중위권 대학 학생 중 사회, 인문, 자연, 공학계열의 학생들은 대학재학 중 본인들의 전공학습에도 관계가 적고 대학교육도 크게 필요가 없는 일을 한다.

그렇다면 대학생들이 전공학습에 도움이 되지도 않고 대학교육이 필요하지도 않은 단순 서비스에 종사하며 소득활동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표 2-26>은 중위권 대학생들이 대학생활 중에 소득활동을 하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한 조사결과이다. 선택된 비중이 높은 순서대로 나열하면 중위권 대학생의 32.2%는 학업 외 다른 목적(여행, 소비, 창업, 독

<표 2-25> 대학생 근로자의 업무 특성

(단위: %)

		대학교육이 필요한지 여부		전공학습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전 체		28.3	71.7	30.8	69.2
지역	수도권	33.0	67.0	34.9	65.1
	지방	19.2	80.8	22.9	77.1
전공 계열	인문	24.3	75.7	24.3	75.7
	사회	23.2	76.8	25.2	74.8
	교육	40.2	59.8	43.6	56.4
	공학	27.8	72.2	26.9	73.2
	자연	21.3	78.8	21.3	78.8
	예체능	32.0	68.0	44.3	55.7
	기타의약	35.5	64.5	35.5	64.5
부모 학력	고졸	28.5	71.5	31.6	68.4
	대졸이상	28.1	71.9	30.0	70.0

주: 분석대상은 소득활동을 하는 724명임.  
 자료: 필자가 직접 실태조사한 것임.

립 등)으로 돈이 필요해서, 30.9%는 학업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학비, 생활비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12.6%는 인생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기 위해서, 6.9%는 일이 의미 있고 흥미롭기 때문이라고 선택했으며, 기타 이유가 3~4%의 비중으로 선택되었다. <표 2-26>은 두 가지 흥미로운 결과를 제시한다. 첫째, 대학생들이 소득활동을 하는 이유로 학업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해결 및 학업 외 다른 목적으로 돈이 필요해서라는 두 가지 이유를 유사한 비율로 선택하였다. 둘째, 대학생 중 취직 관련 이유로 재학 중 근로를 하는 학생이 12.7%밖에 되지 않았다.

부모의 교육수준으로 구분하면 부모가 4년제 대졸 이상인 학생들이 부모가 2년제 대졸이나 고졸 이하인 학생들에 비하여 학업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근무한다는 비율이 5.8%p 낮지만, 학업 외 쇼핑이나 여행 등의 다른 목적 때문에 근무하는 비율이 7.7%p 높다. 즉 가

<표 2-26> 대학생 근로자의 소득활동 목적

(단위: %)

		학비, 생활비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행, 소비 등 학업 외 다른 이유 때문에	취직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진로 및 적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재학중 근무한 곳에 최종 취직하기 위해서	일이 의미 있고 흥미롭기 때문에	학교만 다니기는 생활이 무료해서	다양한 경험을 쌓기 위해서
전 체		30.9	32.2	4.6	4.6	3.5	6.9	4.8	12.6
지역	수도권	30.3	32.2	4.6	4.4	2.9	7.1	4.8	13.8
	지방	32.2	32.2	4.5	4.9	4.5	6.5	4.9	10.2
전공 계열	인문	28.7	36.8	1.5	1.5	4.4	5.9	5.9	15.4
	사회	34.8	35.5	3.2	3.2	0.6	5.8	4.5	12.3
	교육	28.2	34.2	3.4	6.8	1.7	8.5	5.1	12.0
	공학	32.4	32.4	2.8	3.7	5.6	5.6	4.6	13.0
	자연	38.8	28.8	7.5	3.8	3.8	6.3	3.8	7.5
	예체능	22.7	24.7	12.4	7.2	5.2	7.2	6.2	14.4
	기타의약	32.3	19.4	3.2	12.9	6.5	16.1	0.0	9.7
부모 학력	고졸	33.9	28.3	4.5	5.1	4.2	7.6	4.8	11.6
	대졸이상	28.1	36.0	4.6	4.1	2.7	6.2	4.9	13.5

주: 분석대상은 소득활동을 하는 724명임.

자료: 필자가 직접 실태조사한 것임.

족의 배경에 따라 대학시절 소득활동을 하는 이유에 차이가 있다. 대학 소재지에 따라 구분하면 수도권 대학 및 지방대학 학생 간 소득활동을 하는 이유에 큰 차이는 없다. 전공별로 살펴보면 기타의약계열 학생 중 일이 의미 있고 흥미롭기 때문에 근무한다고 하는 비중이 16.1%로 다른 전공자가 해당 이유를 선택한 비율의 두 배 이상이다. 기타의약계열 다음으로 동 이유를 선택한 비율이 높은 전공은 교육계열이다. 기타의약계열과 교육계열 학생들은 진로 및 적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소득활동을 한다는 비율 역시 높다.

<표 2-27>은 대학생들이 대학재학 중 소득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가장 어려웠던 점에 대하여 설문한 결과이다. 가장 높은 비중인 48.5%의 학생들이 선택한 어려움은 육체적 또는 정신적 피곤함이다. 기타 18.6%의 학생이 학업에 집중하기 어려움, 18.2%가 강의시간과 근무시간 조율의 어려움, 14.6%가 일 자체가 지루하거나 무의미함을 선택하였다.

<표 2-27> 대학생 근로자의 소득활동의 어려움

(단위: %)

		강의시간과 근무시간 조율	근무로 인해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피곤함	학업에 집중하기 어려움	일 자체가 지루하거나 무의미함
전 체		18.2	48.5	18.6	14.6
지역	수도권	21.5	45.7	18.6	14.2
	지방	11.8	53.9	18.8	15.5
전공 계열	인문	15.4	54.4	16.9	13.2
	사회	20.0	42.6	21.3	16.1
	교육	18.8	48.7	20.5	12.0
	공학	14.8	50.9	16.7	17.6
	자연	17.5	48.8	18.8	15.0
	예체능	20.6	49.5	16.5	13.4
	기타의약	25.8	38.7	19.4	16.1
부모 학력	고졸	17.2	47.7	17.2	17.8
	대졸이상	19.2	49.2	20.0	11.6

주: 분석대상은 소득활동을 하는 724명임.  
자료: 필자가 직접 실태조사한 것임.

대학 소재지로 구분하면 수도권 지역 대학생들이 지방대학 학생보다 강의시간과 근무시간 조율이 소득활동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라고 선택한 비율이 9.7%p 정도 높지만 육체적 및 정신적 피로함을 선택한 비율은 8.2%p 낮다. 수도권 지역 대학생들이 지방의 대학생보다 근로에 따른 시간적 제약에 대해 더 큰 부담을 가진 것을 알 수 있다. 전공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강의시간과의 조율을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은 전공은 기타의약계열이며, 육체적 및 정신적 피곤함을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은 전공은 인문계열이다. 재학 중 소득활동의 어려움에 대한 답변은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큰 차이가 없다.

<표 2-28>은 대학생들이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가장 최근에 그만둔 일의 월평균 근로시간에 대한 통계이다. <표 2-28>에 따르면 대학생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80시간이다. 대학생 근로자 전체의 18.7%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40시간 미만, 35.9%의 근로시간은 40시간 이상 80시간 미만, 35.8%의 근로시간은 80시간 이상 160시간 미만, 9.7%의 근로시간은 160시간 이상이다.

<표 2-28> 대학생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

(단위: %)

		40시간 미만	40~ 80시간	80~ 160시간	160시간 이상	평균 (시간)
전 체		18.7	35.9	35.8	9.7	80.09
지역	수도권	15.9	39.0	35.9	9.2	78.98
	지방	24.1	29.8	35.5	10.6	82.26
전공 계열	인문	12.5	42.7	32.4	12.5	86.36
	사회	18.7	37.4	36.1	7.7	76.49
	교육	28.2	34.2	31.6	6.0	66.50
	공학	14.8	34.3	43.5	7.4	83.31
	자연	16.3	41.3	33.8	8.8	77.03
	예체능	17.5	26.8	40.2	15.5	92.31
	기타의약	32.3	25.8	29.0	12.9	80.23
부모 학력	고졸	17.2	36.4	36.7	9.6	81.83
	대졸이상	20.0	35.4	34.9	9.7	78.42

주: 분석대상은 소득활동을 하는 724명임.  
자료: 필자가 직접 실태조사한 것임.

전공별로 살펴보면 예체능계열 대학생의 평균 근로시간이 92.3시간으로 가장 길고, 교육계열 대학생의 평균 근로시간이 66.5시간으로 가장 짧다. 지방대 학생의 월평균 근로시간이 수도권 대학생의 근로시간보다, 부모가 2년제 대졸 또는 고졸인 학생이 부모가 4년제 대졸 이상의 학력인 학생보다 월평균 근로시간이 다소 길지만 크게 차이는 없다.

<표 2-29>는 대학생들이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가장 최근에 그만둔 일의 시급에 대한 통계이다. 대학생 근로자의 평균시급은 8,820원이며, 시급이 2016년 최저임금과 가장 가까운 6천 원 미만인 경우는 4%에 불과하여 대학생 근로자의 대다수가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모의 교육수준으로 구분하면 4년제 대졸 이상인 학력의 부모를 가진 학생들의 시급이 2년제 대졸 또는 고졸 이하 학력의 부모를 가진 학생보다 1,600원 정도 높다. 대학 소재지에 따른 근로대학생의 시급에 특별한 차이는 없다. 전공으로 구분하면 기타의약계열, 예체능계열 및 교육계열 전공자의 시급이 타 전공자들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 세 전공계열

<표 2-29> 대학생 근로자의 시급

(단위: %)

		6천 원 미만	6천~ 1만 원 미만	1만 원 이상	평균(천 원)
전 체		4.0	75.6	20.4	8.82
지역	수도권	3.5	75.6	20.9	8.92
	지방	4.9	75.5	19.6	8.64
전공 계열	인문	0.7	83.1	16.2	8.24
	사회	3.2	74.2	22.6	8.98
	교육	1.7	70.1	28.2	9.92
	공학	6.5	80.6	13.0	7.89
	자연	6.3	76.3	17.5	7.92
	예체능	9.3	67.0	23.7	9.39
	기타의약	0.0	77.4	22.6	10.26
부모 학력	고졸	4.0	79.7	16.4	8.0
	대졸이상	4.1	71.6	24.3	9.6

주: 분석대상은 소득활동을 하는 724명임.

자료: 필자가 직접 실태조사한 것임.

의 학생은 하고 있는 일이 대학교육이 필요하고 전공학습에도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다.

<표 2-30>은 대학생들이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가장 최근에 그만둔 일의 월평균 임금에 대한 통계이다. <표 2-30>에 따르면 대학생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68만 원이다. 39.2%의 대학생 근로자가 50만 원 미만의 임금을, 39.8%는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의 임금을, 12.7%는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의 임금을 받고 있다. 월 150만 원 이상의 임금을 받는 대학생 근로자는 전체의 8.3%에 불과하다.

전공계열로 구분하면 인문계열 및 기타의약계열 학생의 월평균 임금이 가장 높고, 교육계열 학생의 월평균 임금이 가장 낮다. 대학 소재지 및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월평균 임금에는 큰 차이가 없다. 시급이 높은 것은 양질의 고용지표로 해석될 수 있지만, 월평균 임금은 시급과 월평균 근로시간에 모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월평균 임금이 높은 것은 긴 근로시간을 의미할 수도 있어 양질의 고용지표만으로 해석되기에는 무리가 있다.

<표 2-30> 대학생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단위: %)

		50만 원 미만	50만~ 100만 원	100만~ 150만 원	150만~ 200만 원	200만 원 이상	평균 (만 원)
전 체		39.2	39.8	12.7	5.0	3.3	68.39
지역	수도권	38.0	42.2	11.7	5.0	3.1	68.29
	지방	41.6	35.1	14.7	4.9	3.7	68.57
전공 계열	인문	37.5	36.8	12.5	9.6	3.7	73.55
	사회	38.7	43.2	11.6	1.9	4.5	66.60
	교육	44.4	38.5	11.1	4.3	1.7	59.54
	공학	37.0	46.3	11.1	0.9	4.6	70.73
	자연	45.0	37.5	10.0	2.5	5.0	66.99
	예체능	35.1	36.1	21.6	6.2	1.0	71.49
	기타의약	35.5	35.5	9.7	19.4	0.0	73.80
부모 학력	고졸	40.1	39.0	13.6	5.1	2.3	66.90
	대졸이상	38.4	40.5	11.9	4.9	4.3	69.80

주: 분석대상은 소득활동을 하는 724명임.

자료: 필자가 직접 실태조사한 것임.

<표 2-31>은 대학생들이 1년에 평균적으로 벌어들이는 연평균 임금에 대한 통계이다. <표 2-31>에 제시된 결과에 따르면 중위권 4년제 대학생 근로자의 연평균 임금은 514만 원이다. 수도권 대학생의 연평균 임금이 542만 원으로 지방대생의 459만 원보다 높다. 전공별로 살펴보면 기타의 약계열의 임금이 669만 원으로 가장 높다. 부모가 2년제 대졸 또는 고졸 이하의 학력인 학생의 연평균 임금은 489만 원이나 4년제 대졸 이상인 학력의 부모를 가진 학생의 연평균 임금은 538만 원이다. 연평균 임금의 차이는 학생의 특성에 따른 연간 근로시간 차이와도 관련되어 있다.

<표 2-32>는 대학생들이 1년에 평균적으로 벌어들이는 연평균 시간당 임금에 대한 통계이다. 대학생 근로자의 평균 시급은 9,290원을 받는 데 이는 <표 2-29>의 현재 또는 가장 최근 일의 평균 시급보다는 다소 높다. 대학 소재지에 따른 연평균 시간당 임금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부모의 학력에 따른 연평균 시간당 임금은 부모가 4년제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학생이 부모가 2년제 대졸 또는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학생보다 1,600원가량 높다.

<표 2-31> 대학생 근로자의 연평균 임금

(단위: %)

		100만 원 미만	100만~500만 원	500만~1000만 원	1,000만 원 이상	평균 (만 원)
전 체		4.7	56.9	25.1	13.3	514.07
지역	수도권	3.8	55.7	26.7	13.8	542.19
	지방	6.5	59.2	22.0	12.2	459.10
전공 계열	인문	2.9	57.4	25.7	14.0	532.81
	사회	3.9	58.7	27.1	10.3	516.32
	교육	4.3	60.7	24.8	10.3	478.89
	공학	7.4	55.6	22.2	14.8	508.43
	자연	6.3	62.5	20.0	11.3	464.23
	예체능	6.2	50.5	24.7	18.6	524.52
	기타의약	0.0	41.9	38.7	19.4	669.03
부모 학력	고졸	4.8	60.2	22.6	12.4	488.73
	대졸이상	4.6	53.8	27.6	14.1	538.32

주: 분석대상은 소득활동을 하는 724명임.  
 자료: 필자가 직접 실태조사한 것임.

〈표 2-32〉 대학생 근로자의 연평균 시간당 임금

(단위: %)

		6천 원 미만	6천 원 ~ 1만 원	1만 원 이상	평균 (천 원)
전 체		4.4	72.2	23.3	9.29
지역	수도권	4.8	70.8	24.4	9.61
	지방	3.7	75.1	21.2	8.67
전공 계열	인문	1.5	80.1	18.4	8.80
	사회	5.8	67.7	26.5	9.48
	교육	7.7	62.4	29.9	10.30
	공학	6.5	79.6	13.9	8.07
	자연	3.8	72.5	23.8	8.62
	예체능	2.1	69.1	28.9	10.05
	기타의약	0.0	80.6	19.4	10.33
부모 학력	고졸	3.7	76.8	19.5	8.47
	대졸이상	5.1	67.8	27.0	10.08

주: 분석대상은 소득활동을 하는 724명임.

자료: 필자가 직접 실태조사한 것임.

## 제5절 소 결

본 연구에서 진행한 중위권 4년제 대학생 대상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학생들의 1/4만 취직 등의 목적으로 대학에 진학하였다. 나머지 3/4 정도의 대학생들이 대학교육의 혜택으로 선택한 것은 사회생활에 필요한 인적 네트워크 형성, 사회인으로 필요한 자질 양성, 고졸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서 자유로움이라는, 노동시장에서의 경제적 이익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항들이다. 특히 1/4 이상의 대학생들이 대학에서 사회인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양성하고자 대학에 진학했다는 것은 미래 사회에서 의사소통 등 사회적 능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청년층의 인식변화는 인생에서 직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이나 혹은 직업을 평가할 때 중요시하는 요소가 과거와는 다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인식변화가 대학교육의 목적 및 대학교육에 대한 기대효과에도 반영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학교육의 가장 큰 문제로 27%의 대학생은 높은 등록금, 18.1%는 취직만 강조하는 풍토, 13% 정도가 높은 대학진학률 및 대학교육의 서열화, 8~9%가 전문지식 및 기술 습득의 어려움 및 직무수행능력 외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타 능력개발의 어려움을 선택하였다. 즉 대학생들이 인식하는 대학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경제적인 부담이다. 대학교육의 혜택과 관련하여 대학생들은 대학 졸업 후 소득활동을 할 경우 고졸 근로자의 임금에 비교하여 20대에는 고졸자의 181%, 30대는 고졸자의 200%, 40대는 고졸자의 243%, 60대는 고졸자의 220%, 생애 전체의 평균으로는 고졸자의 214%의 임금수준을 기대했다. 생애 전체를 기준으로 고졸자의 2배 수준의 임금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에서 나타나는 고졸자 대비 4년제 대졸자의 생애 임금 수준과 유사하여, 대학생들이 노동시장에서 대학교육이 갖는 경제적 혜택에 대한 기대치가 합리적인 것을 알 수 있다. 그 밖에 대학생의 58~59%는 대학졸업 후 본인이 대졸자 중위 이상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에 위치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대학생의 재학 중 근로실태에 대한 조사결과, 중위권 대학 학생의 절반(50.5%)이 대학재학 중 소득활동을 한 경험이 있고 일을 하는 경우 연평균 6.2개월을 근무할 만큼 이들은 활발하게 노동시장에 참여한다. 특히 부모의 교육수준이 낮은 학생일수록 활발하게 노동시장에 참여한다. 하지만 이들의 고용의 질은 우려할 만하다. 소득활동을 하는 대학생들의 연평균 이직횟수는 1.39번이며, 75%가 1년에 1회 이상 이직한다. 또한 이들의 대다수인 78.9%가 비정규직 임금근로자이며, 59.5%가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이다. 이들이 현재 하는 일 또는 가장 최근에 그만둔 일은 주로 대학교육이 필요하지 않았으며, 전공학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대학생 근로자의 32.2%는 학업 외 다른 목적(여행, 소비, 창업, 독립 등)으로 돈이 필요해서 소득활동을 하고, 30.9%는 학업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학비, 생활비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득활동을 한다고 응답해서 이들의 노동시장 참여목적은 대다수 경제적인 이유 때문인 것을 알

수 있다. 즉 대학생의 노동시장 참여 자체가 이들의 대학교육과 반드시 연관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대학생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가족배경과 관련된다는 것은 정책적으로 관심을 가질 문제이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반드시 대학교육 자체와 연결시킬 필요는 없다는 시사점을 가진다.

## 제 3 장

### 대학생 인식 및 근로실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본장은 개인적 특성이 대학교육 및 근로실태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본다.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본 후, 본 연구를 위해 진행된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부모의 교육수준, 지방대 재학 여부, 성별 등의 개인적 특성이 대학진학의 목적, 대학교육의 혜택 및 비용에 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다. 또한 이러한 개인적 특성이 대학재학 중 근로실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결과도 제시한다.

#### 제1절 관련 통계 및 선행연구

##### 1. 대학교육과 노동시장 성과

다수의 국내문헌에 따르면 대학교육은 비용을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높은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최기성(2015)에 따르면 대학졸업 후 65세까지 근속하여 근무하는 경우 4년제 학사학위 취득의 총 미래 편익(benefit)은 4억 7천만 원이며, 4년제 대졸자의 개인적 투자 수익률(고졸자 대비)은 7.5%이다. 다수의 국내연구는 대학교육에 대한 수익률을 10% 내외로 추정했다(부표 4 참조).

<표 3-1>은 연도별 고졸자 및 4년제 대졸자 임금수준 및 고졸자 대비

대졸자의 임금비율이다. 2015년 기준 4년제 대졸자는 고졸자 월평균 임금의 159%를 받고 있으며, [그림 3-1]에 제시된 바와 같이 2000년 이후 고졸자 및 4년제 대졸자 임금격차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소폭이나마 커지는 추세이다.

취직 시 고졸자 및 대졸자 간 임금격차 이외에도 고용률을 포함한 다양한 노동시장 지표에서 대졸자가 고졸자보다 평균적으로 유리하다. <표 3-2>에 제시된 연도별 고졸자 및 대졸자의 고용률을 보면 2015년 기준 고졸자 및 대졸자 간 고용률 차이는 12.4%p이다. [그림 3-2]에 제시된 바와 같이 2000년 이후 각 연도별 대졸자의 고용률은 고졸자의 고용률보다 항상 12~14%p 높다.

<표 3-1> 연도별 고졸자 및 대졸자의 월평균 임금

(단위: 원, 비율)

	학력별 평균 월평균 임금		고졸자 대비 대졸자 임금수준 (B)/(A)
	고졸(A)	대졸이상(B)	
2000	1,185,870	1,789,179	1.51
2001	1,243,649	1,893,873	1.52
2002	1,362,881	2,035,761	1.49
2003	1,455,716	2,208,440	1.52
2004	1,541,551	2,347,257	1.52
2005	1,618,091	2,505,661	1.55
2006	1,731,274	2,635,732	1.52
2007	1,779,570	2,806,885	1.58
2008	1,894,338	2,950,365	1.56
2009	1,894,846	2,923,995	1.54
2010	1,946,577	3,005,691	1.54
2011	2,033,919	3,131,925	1.54
2012	2,112,050	3,264,439	1.55
2013	2,188,551	3,381,382	1.55
2014	2,245,093	3,455,496	1.54
2015	2,248,797	3,572,097	1.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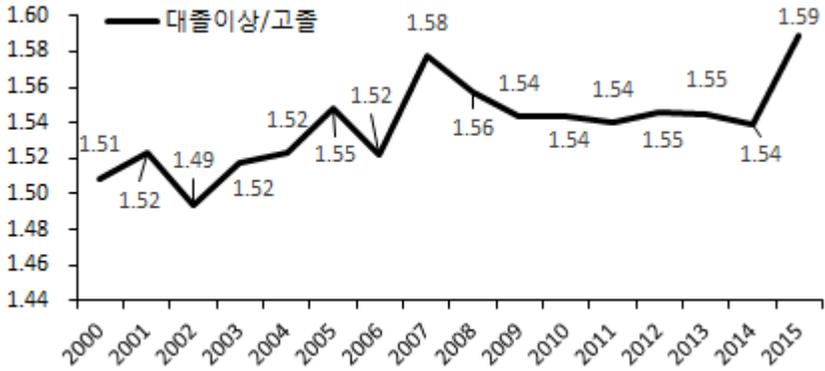
주: 1) 임금은 5인 이상 규모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월급여 총액이며 이는 월정액급여 및 초과급여의 합으로 계산됨.

2) 대졸자는 전문대졸 제외 4년제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근로자를 의미함.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사업체 규모, 학력별 통계」, 각 연도<sup>8)</sup>를 바탕으로 저자가 재구성함.

8)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8&tblId=DT\\_PAY0004&conn\\_path=I2](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8&tblId=DT_PAY0004&conn_path=I2)(접속일: 2016. 11. 21).

(그림 3-1) 연도별 고졸자 대비 대졸자 임금비율



주: 본문 <표 3-1>의 (B)/(A)를 바탕으로 작성함.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사업체 규모, 학력별 통계』, 각 연도를 바탕으로 저자가 재구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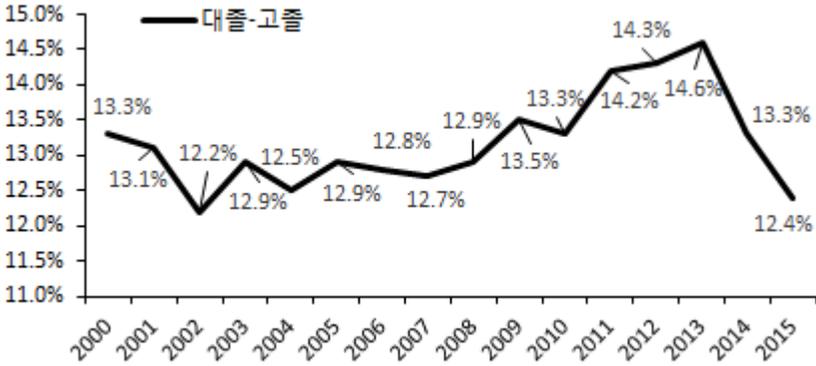
<표 3-2> 연도별 고졸자 및 대졸자의 고용률

연도	고졸	대졸	대졸-고졸
2000	61.4%	74.7%	13.3%p
2001	61.8%	74.9%	13.1%p
2002	62.9%	75.1%	12.2%p
2003	62.0%	74.9%	12.9%p
2004	62.9%	75.4%	12.5%p
2005	62.7%	75.6%	12.9%p
2006	62.7%	75.5%	12.8%p
2007	62.7%	75.4%	12.7%p
2008	62.3%	75.2%	12.9%p
2009	60.9%	74.4%	13.5%p
2010	61.4%	74.7%	13.3%p
2011	61.4%	75.6%	14.2%p
2012	61.4%	75.7%	14.3%p
2013	61.1%	75.7%	14.6%p
2014	62.1%	75.4%	13.3%p
2015	62.5%	74.9%	12.4%p

주: 대졸자는 전문대졸 제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근로자를 의미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교육정도별 경제활동인구』, 각 연도를 바탕으로 저자가 재구성함.

9)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003&conn\\_pat h=I3#](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003&conn_pat h=I3#)( 접속일: 2016. 12. 14).

(그림 3-2) 연도별 고졸자와 대졸자의 고용률 격차



주: <표 3-2>의 고용률 대졸-고졸 값을 바탕으로 작성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교육정도별 경제활동인구』, 각 연도를 바탕으로 저자가 재구성함.

미국에서도 한국과 유사하게 학력별 임금 및 근로조건 격차가 벌어지는 추세이다. Acemoglu & Autor(2010)의 조사에 의하면 미국 내 고졸 대비 대학졸업생의 임금 프리미엄은 1970년대 후반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08년에는 고졸자 대비 대졸자 평균임금이 약 97% 정도 더 높아 현재 격차가 상당히 벌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격차의 주된 이유로 Acemoglu & Autor(2010)는 1980년대 이후 급격히 상승하는 대학원 졸업자의 실질임금과 그와 동시에 급격하게 줄어드는 고졸 이하 근로자의 실질임금에 주목한다. Autor(2010)에 따르면 1963년에는 대졸자가 고졸자의 시간당 임금의 1.5배를 받았으나 2009년에는 그 비율이 1.9배로 상승했다. 또한 미국에서 대졸자는 고졸자보다 주당 근로시간이 길고, 취업률도 높고, 병가, 유급휴일, 보험, 연금, 근로조건 등의 측면에서 더 큰 혜택을 받기 때문에, 대학졸업자와 고졸자가 시급에서 보여주는 격차보다 대학졸업자가 노동시장에서 실제로 누리는 혜택은 더 크다 (Autor, 2010).

## 2. 대학교육 및 근로실태와 가족배경

현재까지 대학졸업자가 노동시장에서 경제적으로 유리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또한 대졸자와 고졸자의 임금격차가 나는 주된 이유인 기술진보와 산업구조의 변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대학졸업자가 고졸자보다 과거만큼은 아니더라도 상대적으로 더 높은 임금을 받는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Autor, 2010). 하지만 최근 여러 연구에 따르면 가족의 사회경제적 배경(SES: Socioeconomic status) 등 개개인이 선택할 수 없는 요인들이 대학진학률, 대학에 진학한 경우 학업성취도, 졸업 시 취업 등의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의 대학진학 여부를 추적 조사한 서울아동패널 자료를 분석한 구인희·김정은(2015)에 따르면 가족소득은 대학진학에 영향을 미친다. 구체적으로 성적이 유사하더라도 고등학교 시절 저소득층이었던 학생의 경우 중간소득계층의 학생보다 4년제 대학에 진학할 확률이 7.9%p 낮은 반면 고소득층의 학생은 중간소득계층의 학생에 비하여 4년제 대학 진학의 확률이 7.5%p 높다(구인희·김정은, 2015). 특히 고등학생 시절 학업성취도는 월평균 사교육비와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 시절 가족소득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구인희·김정은, 2015), 가족의 경제적 배경이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쳐 대학진학 여부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또한 가족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진학하는 대학의 질에도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가족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일반계 고등학생이 2년제보다 4년제 대학에, 4년제 대학 중에서도 상위권 대학으로 이행할 확률에 정(+)<sup>1</sup>의 영향을 준다(김경근·변수용, 2006; 김성식, 2008).

가족배경은 대학생이 학업에 몰두할 수 있는 여건과도 관계가 있다. 통계청에서 5년 주기로 실시하는 한국생활시간조사를 활용한 이용관(2016)에 따르면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석사 이상인 학생의 경우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중졸 이하인 학생보다 학업에 투자하는 시간은 더 길지만 총 노동시간(시장근로와 가사활동 포함)은 더 짧다. 평균적으로 부모의 교육수준은 가구소득과 정(+)<sup>2</sup>의 관계를 가지므로 이러한 학습시간의 차이는 소득계층 간 학업성취도의 격차로 이어질 수도 있다. 즉 저소득층 대학생의 경우 시간이라는 한정된 자원을 학업에 상대적으로 적게 투자하는 것이다. 실제로 이찬영(2012)에 따르면 저소득층 대학생일수록 재학 중 근로시간이 더 길다. 대학생의 아르바이트 경험은 학업성취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김지하·이병식, 2009), 근로시간 감소를 통한 학습시간 증가는 성적향상에 도움이 된다(이성은·이상돈·백종면, 2016). 따라서 저소득층의 재학 중 장시간 근로는 학업성취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궁극적으로 대학에서의 학업성취도는 취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채구묵, 2007; 최문경·이기엽, 2008) 가정배경에 따른 학업 몰입도의 차이는 직장으로의 이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는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개인의 학력 및 직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조우현, 2004). 유사하게 대학의 명성이 임금에 미치는 효과도 소득이 높은 가정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조운서, 2013). 반면 저소득층의 재학 중 소득활동이 궁극적으로 대학졸업 자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학업성적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대졸자 일자리에 취업을 가능하게 하여 노동시장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또한 부모의 출신지역과 관련이 깊은 대학의 소재지도 취업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물론 수도권 대학 진학여부는 개개인의 학업성취도 및 출신지역의 대학에 진학을 희망하는지 여부와도 관계가 있지만, 수도권 대학 진학에 따른 학비 및 생활비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지도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이는 부모의 경제력과의 밀접한 관련이 있다. 남기곤(2012)에 따르면 같은 능력을 갖춘 학생이라도 서울 소재의 대학을 졸업할 경우 더 높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데, 지방에서 거주하는 학생 중 경제적인 이유로 수도권 대학 진학을 포기하였다면 이는 가족의 경제력이 대학생의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이 될 수 있다.

요약하면, 저소득층 학생은 대학에 진학할 확률이 낮으며 대학에 진학 하더라도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기도 힘들다. 이들은 상위권 대학에 진학한다고 하더라도 대학 재학시절 사교육에 대한 투자가 힘들고(박지윤·김병주, 2012; 정지선·김훈호, 2009), 이러한 인적자본에 대한 상이한 투자는 저소득층 학생이 고소득층 학생에 비해 영어 점수나 학점이 낮은 결과로 연결되며(박현진·김영화, 2010), 대학 재학시절 경제력과 정보력 부족으로 인한 개인발전 및 취업의 질을 높일 기회가 부족해(조운서, 2013) 저소득층 학생이 받는 대학졸업의 혜택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

수 있다.

상기 연구들은 대학교육이 가져오는 경제적인 효과에서 가족의 사회 경제적 배경이 낮을수록 대학교육의 경제적 이익이 작다는 것을 일관되게 보여준다. 하지만 대학교육의 혜택은 경제적인 것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실제로 대학에 진학한 이유나 대학교육의 필요성으로 선택한 사유는 학생의 가족배경에 따라 상이하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 대학 진학자 및 진학을 고려하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에 따르면 저소득층 학생들은 저학력자가 가지는 사회적 편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대학에 진학했거나 진학을 희망하는 경향이 있다(문준희·김성환·김민주, 2014).

## 제2절 개인적 특성과 대학관련 인식 및 근로실태의 관계

본절은 가족배경, 대학 소재지 등의 개인적 특성이 대학교육의 혜택과 비용에 대한 인식, 대학재학 중 소득활동을 하는 목적, 다양한 근로실태 관련 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다. 기존 자료로는 대학관련 인식 혹은 근로활동 실태 중 한 가지만을 분석할 수 있을 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분석하여 두 결과를 통합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절의 분석자료로 2016년 8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20개 중위권 대학의 1,400여 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이용한다.

### 1. 분석방법

제2장은 부모의 교육수준 등의 가족배경, 대학 소재지, 전공계열 등으로 구분한 학생들의 대학교육 및 근로실태에 대한 통계를 제시하였다. 본장에서는 계량모형을 통해 다른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각 변수가 미치는 독립적인 영향력을 분석한다. 종속변수가 범주변수, 이항변수, 연속변수인 경우 각각 분석에 사용된 계량모형은 다음과 같다.

### 가. 다항로짓 모형

종속변수가 범주변수인 경우 다항로짓 모형을 사용한다. 다항로짓 모형의 비선형성 때문에 이 모형의 추정계수( $\beta$ )는 독립변수들의 각 선택에 대한 한계적 영향을 나타내지 않는다. 따라서 다항로짓 모형의 추정계수( $\beta$ )와 함께  $\exp(\beta)$ 를 계산하여 상대위험비(ratios of relative risks : RRR)를 제시한다.<sup>10)</sup> 관심 설명변수가 이항변수인 경우  $\exp(\beta)$ , 추정된 계수를 지수화한 값은 다른 설명변수( $X_s$ )가 통제된 상황에서 이 이항변수가 변화할 때 그 한계효과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범주변수(categorical variable)가 종속변수인 경우 그 범주 중 참조항목에 비해 이항변수(예, 부모대졸 이항변수)인 관심변수의  $\exp(\beta)$ 는 다음의 상대위험비를 의미한다.

$$\frac{\frac{\Pr(y = \text{기타 사유} | \text{관심 독립변수} = 1, X_s)}{\Pr(y = \text{참조 항목} | \text{관심 독립변수} = 1, X_s)}}{\frac{\Pr(y = \text{기타 사유} | \text{관심 독립변수} = 0, X_s)}{\Pr(y = \text{참조 항목} | \text{관심 독립변수} = 0, X_s)}} \quad (3-1)$$

범주변수인  $y$ 는 대학졸업 후 예상하는 주된 혜택, 대학교육의 가장 큰 비용, 대학재학 중 소득활동의 목적이 포함된다. 관심 독립변수는 부모의 학력이 4년제 대졸인지 및 지방대 학생인지 여부이다. 관심 독립변수의 한계효과는 다른 요인이 유사할 때, 부모가 4년제 대졸 이상의 학력인지 또는 지방대생인지에 따라 참조항목에 비하여 기타 사유를 선택할 확률을 의미한다.  $X_s$ 는 여성 더미(1=여성, 0=남성), 자연로그(부모소득), 연령, 연령제곱, 전공계열 더미를 포함한다.<sup>11)</sup>

10) 종속변수에 두 개의 범주만 있을 경우에는  $\exp(\beta)$ 는 로짓의 오즈비(odds ratios)와 같다. 하지만 다항로짓 분석의  $\exp(\beta)$ 는 오즈비가 아니라 상대위험비(ratios of relative risks)로 해석해야 한다.

11) 전공계열 더미와 함께 학교 더미를 동시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표본수의 부족으로 전공계열 및 학교 더미를 동시에 분석하는 것은 비교집단을 지나치게 축소하여 부적절하다. 질적으로 전공계열 더미만을 포함한 분석과 학교 더미만을 포함한 분석의 결과는 매우 유사하다.

## 나. 로짓모형 및 최소자승법

종속변수가 이항변수인 경우에는 로짓모형으로, 종속변수가 연속변수인 경우에는 최소자승법 회귀모형(OLS)으로 개인적 특성이 대학교육에 대한 인식 및 근로실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sup>12)</sup>

$$y_i = \alpha_0 + \alpha_1 \text{부모대출}_i + \alpha_2 \text{지방대}_i + \alpha_3 X_i + e_i \quad (3-2)$$

이항변수인  $y$ 는 대학재학 중 소득활동 종사 여부, 사무 및 교육종사자 여부, 대학졸업 후 대출자 평균 50% 이상의 경제적 지위 또는 사회적 지위를 가질 것으로 예상하는지 여부, 대학생이 소득활동에 종사하는지 여부, 소득활동 시 사무종사자 및 교육종사자인지 여부이며, 학생  $i$ 가 분석 내용에 해당하면 1, 아니면 0이다. 연속변수인  $y$ 는 학생  $i$ 의 대학교육의 예상 학비, 생활비, 포기임금, 기타비용, 총비용, 졸업 후 고졸자 대비 기대하는 임금수준(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및 평생기준), 연평균 근로개월수, 이직횟수 및 시간당 임금이다. 부모대출 <sub>$i$</sub> 는 학생  $i$ 의 부모가 4년제 대출 이상의 학력이면 1 아니면 0, 지방대 <sub>$i$</sub> 는 학생  $i$ 가 지방대에 재학 중이면 1, 아니면 0,  $X' i$ 는 식 (3-1)에서 정의한 통제변수와 같다.  $e_i$ 는 교란항이다. 따라서  $\alpha_1$ 은 부모의 교육수준,  $\alpha_2$ 은 지방대 여부가 각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의 추정계수이다.

<표 3-3>은 분석에 사용된 각 변수의 구체적인 정의 및 측정방법을 제시한다.

12) 대학생 근로자의 경우 임금근로자, 전일제 근로자, 상용직 여부는 일자리의 질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대학생이 학업이 아니라 소득활동에 전념해야만 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의미할 수도 있어 정책적 함의 도출이 어려워 고용상태, 근로시간 형태, 종사상 지위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표 3-3〉 변수의 정의 및 측정방법

변수명		정의 및 측정방법
독립변수		
이항변수	부모대출	부모(아버지와 어머니 중 높은 학력 기준)가 4년제 대출 이상의 학력인지에 대한 이항변수(예=1, 아니오=0)
	지방대	재학 또는 휴학 중인 학교가 지방대인지 여부에 대한 이항변수(예=1, 아니오=0)
연속변수	여성	여성 여부에 대한 이항변수(여성=1, 남성=0)
	ln(부모소득)	월평균 부모님 소득의 자연로그값
	연령	학생 개인의 연령(단위: 세)
	연령제곱	학생 개인의 연령제곱값(단위: 세)
종속변수		
범주변수	대학교육의 가장 큰 혜택	① 취직 시 임금 및 근무조건 향상, ② 사회생활에 필요한 인적 네트워크 형성, ③ 사회인으로서 필요한 자질 양성, ④ 고졸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서 자유로움 중 선택된 항목은 1, 아니면 0
	대학교육의 가장 큰 비용	①(대학 재학기간 동안) 고등학교 졸업 후 취직할 경우 벌 수 있었던 임금(포기임금), ② 학비, ③ 생활비, ④(대학 재학기간 동안의) 시간과 자유 중 선택된 항목은 1, 아니면 0
	대학재학 중 소득활동의 목적	① 학업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학비, 생활비 등) 해결, ② 학업 외 다른 목적(여행, 소비, 창업, 독립 등)을 위한 비용 마련, ③ 취직 관련 목적(취직에 유리, 진로 및 적성 파악, 재학 중 근무한 곳에 최종 취직), ④ 기타 이유(다양한 경험, 일에 대한 흥미, 생활의 무료함) 중 선택된 항목은 1, 아니면 0
이항변수	대학졸업 후 경제적 지위	대학졸업 후 본인이 대출자 중위 이상의 경제적 지위에 위치할 것으로 예상하는지 여부(예=1, 아니오=0)
	대학졸업 후 사회적 지위	대학졸업 후 본인이 대출자 중위 이상의 사회적 지위에 위치할 것으로 예상하는지 여부(예=1, 아니오=0)
	대학재학 중 소득활동 종사	대학재학 중 소득활동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예=1, 아니오=0)
	대학교육 필요	현재 또는 가장 최근에 그만둔 일에서 대학교육이 필요한지 여부(예=1, 아니오=0)
	전공학습 기여	현재 또는 가장 최근에 그만둔 일이 전공학습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예=1, 아니오=0)
	사무·교육업무	학생 근로자가 사무종사자 및 교육종사자인지 여부(예=1, 아니오=0)

〈표 3-3〉의 계속

변수명	정의 및 측정방법	
대학교육의 예상 학비	대학졸업까지 소요되는 예상 학비(단위: 백만 원)	
대학교육의 예상 생활비	대학졸업까지 소요되는 예상 생활비(단위: 백만 원)	
대학교육의 기타 예상비용	대학졸업까지 소요되는 기타 예상 비용(단위: 백만 원)	
대학교육의 예상 포기임금	대학 재학기간 동안 고등학교 졸업 후 취직하였다면 벌었을 것으로 예상하는 포기임금(단위: 백만 원)	
대학교육의 예상 총비용	대학졸업까지 소요되는 총비용(단위: 백만 원)	
연 속 변 수	대학졸업 후 임금수준-20대	대학졸업 후 20대에 고졸 근로자의 임금에 비교하여 어느 정도의 임금을 받을 것인지 비율(단위: %)
	대학졸업 후 임금수준-30대	대학졸업 후 30대에 고졸 근로자의 임금에 비교하여 어느 정도의 임금을 받을 것인지 비율(단위: %)
	대학졸업 후 임금수준-40대	대학졸업 후 40대에 고졸 근로자의 임금에 비교하여 어느 정도의 임금을 받을 것인지 비율(단위: %)
	대학졸업 후 임금수준-50대	대학졸업 후 50대에 고졸 근로자의 임금에 비교하여 어느 정도의 임금을 받을 것인지 비율(단위: %)
	대학졸업 후 임금수준-60대	대학졸업 후 60대에 고졸 근로자의 임금에 비교하여 어느 정도의 임금을 받을 것인지 비율(단위: %)
	대학졸업 후 임금수준-평생	대학졸업 후 생애 근로기간 동안 고졸 근로자의 임금에 비교하여 어느 정도의 임금을 받을 것인지 비율(단위: %)
	연평균 근로개월수	1년 평균 소득활동 개월수(단위: 월)
	연평균 이직횟수	1년 평균 소득활동 일자리 변경횟수(단위: 번)
	시간당 임금	현재 또는 최근에 그만둔 소득활동의 시간당 임금(단위: 천 원)

자료: 필자가 직접 실태조사한 것임.

## 2. 분석결과

### 가. 대학교육의 예상 혜택 및 비용

<표 3-4>는 개인적 특성이 대학교육의 가장 큰 혜택으로 네 가지 항목 중 어느 항목을 선택하는지에 미치는 영향을 다항로짓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네 가지 항목으로 구분한 대학졸업 후 예상하는 주된 혜택은 1) 취직 시 임금 및 근무조건 향상, 2) 사회생활에 필요한 인적 네트워크 형성, 3) 사회인으로서 필요한 자질 양성, 4) 고졸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서 자유로움이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부모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임금 및 근로조건 향상’보다는 ‘사회인으로서 필요한 자질 양성’을 대학교육의 가장 큰 혜택으로 선택할 확률이 높다. 참조항목인 ‘임금 및 근로조건 향상’에 비해

<표 3-4> 개인적 특성과 대학교육의 가장 큰 혜택에 대한 인식과의 관계

변수	인적 네트워크 형성 vs 임금 및 근로조건 향상		사회인으로서 필요한 자질 양성 vs 임금 및 근로조건 향상		고졸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 극복 vs 임금 및 근로조건 향상	
	$\beta$	exp( $\beta$ )	$\beta$	exp( $\beta$ )	$\beta$	exp( $\beta$ )
부모대졸	0.070 (0.151)	1.072	-0.270* (0.139)	0.763*	-0.054 (0.162)	0.947
지방대	-0.051 (0.152)	0.950	0.026 (0.141)	1.027	-0.253 (0.167)	0.777
여성	-0.272* (0.151)	0.762*	-0.118 (0.140)	0.888	-0.244 (0.162)	0.783
ln(부모소득)	0.075 (0.088)	1.078	-0.044 (0.085)	0.957	-0.021 (0.098)	0.979
연령	-1.360** (0.570)	0.257**	-0.374 (0.600)	0.688	-0.522 (0.718)	0.593
연령제곱	0.030** (0.013)	1.030**	0.008 (0.014)	1.008	0.010 (0.016)	0.010
표본수	1,434		1,434		1,434	

주: 전공 더미 계수는 생략하였음. 괄호 안 숫자는 표준오차를 나타냄. \*, \*\*, \*\*\*는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자료: 필자가 직접 실태조사한 것임.

‘사회인으로서 필요한 자질 양성’의 부모대졸의 한계효과는 0.763인데, 이 추정계수는 부모가 대졸인 학생이 ‘임금 및 근로조건 향상’에 대비해 ‘사회인으로서 필요한 자질 양성’의 범주를 선택할 가능성(상대위험)이 부모가 고졸인 학생의 가능성(상대위험)에 비해 76.3%임을 의미한다. 즉 설명변수가 통제된 상황에서 부모의 학력수준이 고졸에서 대졸로 바뀌게 되면 ‘임금 및 근로조건 향상’에 대비해 ‘사회인으로서 필요한 자질 양성’ 범주를 선택할 가능성(상대위험)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대 여부나 부모의 소득수준은 대학진학의 사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밖에 여학생일수록 남학생에 비하여, 나이가 어릴수록 ‘임금 및 근로조건 향상’보다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이유로 대학에 진학한 확률이 낮다.

<표 3-5>는 대학교육의 가장 큰 비용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을 다항로지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대학교육의 가장 큰 비용은 1) (대학 재학 기간 동안) 고등학교 졸업 후 취직한 경우 벌 수 있었던 임금(포기임금), 2) 학비, 3) 생활비, 4) (대학 재학기간 동안) 시간과 자유의 네 가지 항목이다. <표 3-5>의 주요 결과는 지방대 학생일 경우 포기임금을 학비보다 대학교육의 가장 큰 비용으로 선택할 확률이 낮지만 생활비를 학비보다 가장 큰 비용으로 인식할 확률은 높다는 점이다. 이는 수도권 지역에 비해 고등학교 졸업 후 취직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지 않거나 고졸자 임금이 낮은 지방 노동시장의 현실과 함께 지방대의 학비가 수도권에 비해 비교적 저렴한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부모의 학력이나 경제적 배경은 대학교육의 가장 큰 비용으로 인식하는 요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이는 대학교육의 가장 큰 부담은 가족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상관없이 학비이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밖에 여성이 남성보다 포기임금이나 생활비보다 학비를 가장 큰 비용으로 생각할 확률이 높다.

<표 3-6>은 대학교육의 예상비용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을 최소자승법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주요 결과는 지방대생이 예상하는 생활비 제외 대학교육에 대한 비용이 수도권 대학생보다 적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지방대생은 학비는 479만 원, 기타비용은 432만 원, 포기임금은 1,406만 원, 대학교육에 필요한 전체 비용은 2,128만 원을 적게 예상했다.

〈표 3-5〉 개인적 특성과 대학교육의 가장 큰 비용에 대한 인식과의 관계

변수	포기임금 vs 학비		생활비 vs 학비		시간과 자유 vs 학비	
	$\beta$	$\exp(\beta)$	$\beta$	$\exp(\beta)$	$\beta$	$\exp(\beta)$
부모대졸	0.142 (0.233)	1.152	-0.222 (0.139)	0.801	0.269 (0.172)	1.309
지방대	-0.426* (0.252)	0.653*	0.394*** (0.140)	1.483***	-0.115 (0.174)	0.891
여성	-0.558** (0.237)	0.572**	-0.271* (0.140)	0.763*	-0.240 (0.170)	0.787
ln(부모소득)	-0.226 (0.149)	0.798	-0.042 (0.085)	0.959	0.036 (0.099)	1.037
연령	-0.740 (0.728)	0.477	0.673 (0.629)	1.960	1.071 (0.779)	2.919
연령제곱	0.019 (0.016)	1.018	-0.016 (0.014)	0.984	-0.024 (0.018)	0.977
표본수	1,434		1,434		1,434	

주: 전공 더미 계수는 생략하였음. 괄호 안 숫자는 표준오차를 나타냄. \*, \*\*, \*\*\*는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자료: 필자가 직접 실태조사한 것임.

〈표 3-6〉 개인적 특성과 대학교육의 예상비용과의 관계

변수	학비	생활비	기타	포기임금	총액
부모대졸	-0.452 (1.431)	2.385* (1.374)	-0.309 (1.179)	2.760 (2.494)	4.384 (4.541)
지방대	-4.785*** (1.454)	1.883 (1.396)	-4.316*** (1.198)	-14.060*** (2.534)	-21.278*** (4.614)
여성	1.817 (1.434)	3.974*** (1.377)	-0.611 (1.181)	-0.053 (2.498)	5.127 (4.549)
ln(부모소득)	1.617* (0.858)	0.915 (0.824)	1.528** (0.707)	-4.278*** (1.494)	-0.218 (2.721)
연령	0.007 (5.684)	-0.493 (5.457)	2.388 (4.683)	1.184 (9.901)	3.087 (18.032)
연령제곱	0.001 (0.129)	0.007 (0.124)	-0.064 (0.107)	0.032 (0.225)	-0.024 (0.411)
상수	41.858 (62.051)	25.669 (59.572)	-10.096 (51.127)	34.208 (108.090)	91.639 (196.861)
표본수	1,434		1,434	1,434	1,434

주: 전공 더미 계수는 생략하였음. 괄호 안 숫자는 표준오차를 나타냄. \*, \*\*, \*\*\*는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자료: 필자가 직접 실태조사한 것임.

이는 실제로 지방대일수록 학비가 평균적으로 낮은 것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할 기회가 적거나 취직을 하더라도 고졸자의 임금 등이 낮다는 것을 대학생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밖에 부모가 4년제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 대학졸업까지 생활비가 239만 원 더 필요할 것으로, 여성의 경우 생활비가 397만 원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3-7>은 대학졸업 후 고졸자 대비 예상하는 임금수준을 최소자승법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주요 결과는 지방대생일수록 전 연령대에서 수도권 지역 학생들보다 자신들의 고졸자 대비 임금수준을 낮게 평가한다는 것이다. 지방대생은 수도권 지역 대학생에 비하여 20대에는 72.8%p, 30대에는 76.3%p, 40대에는 87.7%p, 50대에는 101.3%p, 60대에는 85.9%p, 평생 소득활동 기간에는 84%p 낮은 고졸자 대비 임금수준을 기대했다.

<표 3-7> 개인적 특성과 대학졸업 후 예상 임금수준의 관계

변수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평생
부모대졸	-14.46 (10.313)	-12.27 (10.035)	3.69 (10.337)	15.95 (10.969)	8.02 (9.939)	0.93 (9.565)
지방대	-72.82*** (10.479)	-76.30*** (10.196)	-87.73*** (10.503)	-101.29*** (11.145)	-85.85*** (10.099)	-84.18*** (9.719)
여성	-23.66** (10.330)	-21.77** (10.052)	-24.74** (10.354)	-29.66*** (10.987)	-23.70** (9.955)	-24.71** (9.581)
ln(부모소득)	-9.22 (6.180)	-7.06 (6.013)	-6.40 (6.195)	-1.94 (6.573)	-1.55 (5.956)	-4.55 (5.732)
연령	19.59 (40.950)	-39.24 (39.846)	-58.91 (41.046)	-55.02 (43.556)	-53.48 (39.465)	-40.05 (37.981)
연령제곱	-0.42 (0.932)	0.87 (0.907)	1.35 (0.934)	1.28 (0.992)	1.21 (0.898)	0.91 (0.865)
상수	34.63 (446.654)	724.27* (434.609)	939.14** (447.699)	920.75* (475.074)	865.52** (430.455)	727.99* (414.271)
표본수	1,434	1,434	1,434	1,434	1,434	1,434

주: 전공 더미 계수는 생략하였음. 괄호 안 숫자는 표준오차를 나타냄. \*, \*\*, \*\*\*는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자료: 필자가 직접 실태조사한 것임.

즉 지방대생일수록 취직을 하더라도 고졸자의 임금에 비해서 수도권 대학생만큼 높은 임금수준을 기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여성은 남성보다 22~30%p 낮은 고졸자 대비 임금수준을 예상한다. 즉 지방대생과 여성은 자신들의 대학교육의 경제적 혜택에 대해 더 비관적인 것이다.

<표 3-8>은 대학졸업 후 고졸자에 비해 어떠한 경제적 및 사회적 위치에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지를 로짓모형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주요 결과는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본인의 대학졸업 후 경제적 및 사회적 지위가 대졸자 중위 이상일 확률이 높다고 예상하며, 지방대생일수록 대학졸업 후 본인의 지위가 대졸자 중위 이상일 확률이 낮다고 예상한다는 것이다.

<표 3-8> 개인적 특성과 대학졸업 후 예상 지위의 관계

변수	경제적 지위	사회적 지위
부모대졸	0.422*** (0.112)	0.461*** (0.113)
지방대	-0.341*** (0.113)	-0.588*** (0.114)
여성	0.001 (0.112)	0.052 (0.113)
ln(부모소득)	0.032 (0.067)	0.040 (0.068)
연령	-0.033 (0.442)	0.013 (0.446)
연령제곱	-0.000 (0.010)	-0.001 (0.010)
상수	0.042 (4.825)	-0.147 (4.873)
표본수	1,434	1,434

주: 전공 더미 계수는 생략하였음. 괄호 안 숫자는 표준오차를 나타냄. \*, \*\*, \*\*\*는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자료: 필자가 직접 실태조사한 것임.

나. 대학교육 중 근로실태

<표 2-26>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대학생들이 재학 중 소득활동을 하는 이유는 학업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학비, 생활비 등) 해결, 학업 외 다른 목적(여행, 소비, 창업, 독립 등)을 위한 비용 마련, 취직 관련 목적(취직에 유리, 진로 및 적성 파악, 재학 중 근무한 곳에 최종 취직), 기타 이유(다양한 경험, 일에 대한 흥미, 생활의 무료함) 등이 있다.

<표 3-9>는 대학재학 중 소득활동 경험이 있는 학생 724명의 근로활동 이유를 다항로짓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주요 분석결과는 부모의 학력이 4년제 대졸 이상일수록 ‘학업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해결’보다는

<표 3-9> 개인적 특성과 대학재학 중 소득활동을 하는 이유의 관계

변수	여행, 소비, 창업, 독립 등을 위한 비용 마련 vs 학업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해결		취직 관련 목적으로 vs 학업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해결		기타(다양한 경험, 일에 대한 흥미, 삶의 무료함) vs 학업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해결	
	$\beta$	exp( $\beta$ )	$\beta$	exp( $\beta$ )	$\beta$	exp( $\beta$ )
부모대졸	0.380** (0.194)	1.462**	-0.093 (0.261)	0.911	0.150 (0.209)	1.162
지방대	-0.068 (0.203)	0.934	-0.002 (0.272)	0.998	-0.314 (0.224)	0.730
여성	0.184 (0.195)	1.202	-0.178 (0.264)	0.837	-0.390* (0.211)	0.677*
ln(부모소득)	0.152 (0.111)	1.164	0.315** (0.134)	1.370	0.234** (0.116)	1.263
연령	-0.121 (0.826)	0.886	1.934 (1.347)	6.916	-0.763 (0.809)	0.466
연령제곱	0.002 (0.019)	1.002	-0.044 (0.031)	0.957	0.017 (0.018)	1.018
표본수	724		724		724	

주: 전공 더미 계수는 생략하였음. 괄호 안 숫자는 표준오차를 나타냄. \*, \*\*, \*\*\*는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분석대상은 소득활동을 하는 724명임.

자료: 필자가 직접 실태조사한 것임.

‘여행, 소비, 창업, 독립 등을 위한 비용 마련’을 대학재학 중 소득활동을 하는 이유로 선택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대졸 변수의 경우 참조항목인 ‘학업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해결’에 대한 ‘여행, 소비, 창업, 독립 등을 위한 비용 마련’의 한계효과는 1.462이다. 이는 부모가 대졸인 학생이 ‘학업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해결’에 대비해 ‘여행, 소비, 창업, 독립 등을 위한 비용 마련’의 범주를 선택할 가능성(상대위험)이 부모가 고졸인 학생이 선택할 가능성(상대위험)에 비해 146.2%임을 의미한다. 즉 설명변수가 통제된 상황에서 부모의 학력수준이 고졸에서 대졸로 바뀌게 되면 ‘학업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해결’에 비해 ‘여행, 소비, 창업, 독립 등을 위한 비용 마련’ 범주를 선택할 가능성(상대위험)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3-9>에 제시된 바와 같이 소득활동을 하는 이유는 부모의 소득수준과 관계가 있다. 부모의 소득이 높을수록 부모의 소득이 낮은 학생에 비해 학업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해결보다는 취직 관련 목적이나 다양한 경험, 일에 대한 흥미 등의 이유로 대학재학 중 소득활동을 하는 확률이 높아진다.

<표 3-10>의 (A)열은 개인적 특성이 대학재학 중 소득활동에 종사하는지 여부, (B)열은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업무에 대학교육이 필요한지 여부, (C)열은 그 일이 전공학습에 기여하는지 여부, (D)열은 사무 및 교육 업무에 종사하는지 여부를 로짓모형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표 3-10>의 추정치에 따르면 부모가 4년제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졌다면 대학재학 중 소득활동을 하는 확률은 낮다. 하지만 부모의 학력수준은 소득활동에서 담당한 업무에 대학교육이 필요했는지 여부와 그 일이 전공분야의 학습에 도움이 되는 일인지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는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족배경은 학생들이 소득활동에 참가하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일자리의 질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가 4년제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졌다면 사무 및 교육 업무에 종사할 확률이 높다. 제2장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대학생 근로자의 60%는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였는데 일반적으로 업무가

더 편하다고 알려진 사무 및 교육 업무에 종사할 가능성은 가족배경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또한 지방대생일수록 소득활동에 종사할 확률이 낮고, 소득활동에 종사하더라도 그 일에 대학교육이 필요하거나 그 일이 전공학습에 기여할 확률이 낮다. 이 결과는 지방대에 재학할수록 소득활동에 참여할 기회 자체도 적기 때문에 업무 자체가 대학교육이 필요하거나 전공학습에 기여하지 않더라도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근무를 할 가능성이 많다고 해석될 수 있다. 이 밖에 여성일수록 소득활동에 종사하더라도 그 일에 대학교육이 필요하거나 그 일이 전공학습에 기여할 확률이 낮다. 마지막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업무가 전공학습에 기여하거나 또는 사무·교육 업무에 종사할 확률이 높지만 이 연령에 대한 한계

〈표 3-10〉 개인적 특성과 대학생의 근로실태와의 관계 1

변수	(A) 소득활동 종사 <sup>1)</sup>	(B) 대학교육 필요 <sup>2)</sup>	(C) 전공학습 기여 <sup>2)</sup>	(D) 사무·교육 업무 <sup>2)</sup>
부모대졸	-0.372*** (0.112)	0.003 (0.174)	-0.046 (0.170)	0.367** (0.181)
지방대	-0.474*** (0.113)	-0.708*** (0.196)	-0.616*** (0.189)	-0.244 (0.197)
여성	-0.053 (0.111)	-0.376** (0.176)	-0.242 (0.172)	-0.182 (0.182)
ln(부모소득)	-0.014 (0.067)	-0.120 (0.097)	-0.163* (0.095)	-0.033 (0.100)
연령	1.067** (0.442)	1.264 (0.798)	1.350* (0.792)	1.955** (0.839)
연령제곱	-0.021** (0.010)	-0.028 (0.018)	-0.030* (0.018)	-0.042** (0.019)
상수	-12.571*** (4.830)	-13.965 (8.728)	-14.867* (8.643)	-22.926** (9.196)
표본수	1,434	724	724	724

주: 1) 분석대상은 전체 표본인 1,434명임.

2) 분석대상은 소득활동을 하는 724명임.

전공 더미 계수는 생략하였음. 괄호 안 숫자는 표준오차를 나타냄. \*, \*\*, \*\*\*는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자료: 필자가 직접 실태조사한 것임.

효과는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감소한다.

<표 3-11>의 (A)열은 가족배경이 대학생의 연평균 근로개월수, (B)열은 연평균 이직횟수, (C)열은 시간당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자승법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A)의 연평균 근로개월수 분석에서 부모대졸 추정계수는 -0.387이다. 이 결과는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평균적으로 부모가 대졸인 학생은 연평균 근로개월수가 0.4개월 정도 짧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계수값의 크기는 표준편차 한 단위(4.028)의 10% 정도이다. 또한 지방대일수록 근로개월수가 짧다. (B)의 연평균 이직횟수 분석에서 부모대졸 추정계수는 -0.177이다. 이 결과는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평균적으로 부모가 대졸인 학생은 연평균 이직횟수가 대략 0.2회 적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계수값의 크기는 연평균 이직횟수의 표준편차 한 단위(1.227)의 14% 정도이다. (C)의 시간당 임금 분석에서 부모대졸 추정

<표 3-11> 개인적 특성과 대학생의 근로실태와의 관계 2

변수	(A) 연평균 근로개월수 <sup>1)</sup>	(B) 연평균 이직횟수 <sup>1)</sup>	(C) 시간당 임금 <sup>2)</sup>
부모대졸	-0.387* (0.213)	-0.177*** (0.066)	1.488*** (0.542)
지방대	-1.216*** (0.216)	-0.397*** (0.067)	-0.096 (0.573)
여성	0.120 (0.213)	-0.070 (0.066)	-0.023 (0.544)
ln(부모소득)	-0.204 (0.128)	0.041 (0.039)	0.157 (0.291)
연령	2.310*** (0.846)	0.242 (0.261)	2.227 (2.158)
연령제곱	-0.047** (0.019)	-0.005 (0.006)	-0.051 (0.049)
상수	-24.243*** (9.223)	-1.921 (2.842)	-15.165 (23.775)
표본수	1,434	1,434	724

주: 1) 분석대상은 전체 표본인 1,434명임.

2) 분석대상은 소득활동을 하는 724명임.

전공 더미 계수는 생략하였음. 괄호 안 숫자는 표준오차를 나타냄. \*, \*\*, \*\*\*는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자료: 필자가 직접 실태조사한 것임.

계수는 1.488이다. 이 결과는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평균적으로 부모가 대졸인 학생의 시간당 임금이 1,488원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계수값의 크기는 대학생의 평균 시간당 임금(8,824원)의 17%이며 표준편차 한 단위(7,164원)의 21% 정도이다. 이 밖에 연령이 많을수록 연평균 근로개월수가 길어지지만 이 연령에 대한 한계효과는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감소한다.

<표 3-10>과 <표 3-11>의 결과를 종합하면 부모의 교육수준은 대학생의 대학재학 중 소득활동 참여여부, 근로개월수, 이직횟수, 시간당 임금, 사무 및 교육 업무에 종사하는지 여부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즉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은 대학생은 그렇지 않은 대학생에 비하여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소득활동을 할 이유가 적고 따라서 근로기간도 짧고 이직도 잦지 않지만,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급여나 업무내용이 더 나은 일자리에 종사한다. 하지만 <표 3-11>에 제시된 부모의 교육수준이 미치는 영향은 각 변수의 표준편차 한 단위(one standard deviation)의 10~21% 정도로 크지는 않다. 부모의 교육수준은 시간당 임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근로개월수에 가장 작은 영향을 미친다. 부모의 교육수준이 아닌 소득수준은 대학생 근로자의 근로상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제3절 소 결

본장에 제시된 분석결과에 따르면 부모의 교육수준이나 대학 소재지는 대학교육의 비용 및 혜택 등에 대한 인식과 대학재학 중의 근로상태에 영향을 미친다. 우선 부모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임금 및 근로조건 향상보다는 사회인으로서 필요한 자질 양성을 대학교육의 가장 큰 혜택으로 선택할 확률이 높다. 이 결과는 중위권 4년제 대학생들의 졸업 후 취업이나 임금수준 등의 경제적 지표만을 가지고 이들의 대학진학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기에는 무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여러

변수에 대한 분석결과에서 지방대 학생은 대학교육의 혜택에 대해서 수도권 대학생보다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파악하는 것은 본 연구의 분석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지만, 지방대생이 마주하는 노동시장에서의 기회가 제약되어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듯 보인다. 지방대 학생은 대학재학 중 소득활동에도 수도권 대학생보다 활발히 참여하지 않고 소득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업무내용 등이 더 열악한 것으로 파악된다. 물론 지방대 학생이 학비 등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수도권 대학생보다 작기 때문에 대학재학 중 소득활동 자체를 할 유인이 작을 수도 있지만, 지방대 학생이 경제적 필요에 의해 소득활동을 하고자 하더라도 지방에서는 근로기회 자체가 많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현재 대졸자의 높은 실업률 등 여러 고용지표에서 대학교육에 대한 경제적인 효과가 다소 감소하는 듯 보인다. 하지만 일본의 사례에서 보여주듯이 경기가 회복된다면 대졸자에 대한 노동시장에서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수 있다. 또한 높은 학자금 대출에 대한 부담 등 대학교육 관련 사회적 문제는 대학진학 자체를 지양해서 해결되는 문제라기보다는 등록금 인하 등의 대학교육제도 자체의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대졸자 관련 고용지표에서 나타나는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졸자는 고졸자보다 노동시장에서 여러 측면에서 유리한 위치를 가진다. 따라서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하도록 장려하는 정책은 저소득층 학생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이 고졸 일자리의 질은 향상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대학진학률이 낮은 저소득층 학생의 대학진학을 지양하도록 유도한다면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학생이 대학에 진학한 경우 학업 및 노동시장 성과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적 대안은 현재 부모의 교육수준이 낮은 중위권 대학생일수록 다른 목적보다는 학업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대학재학 중 소득활동을 한다는 현상에서 출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들은 소득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며 장시간 근로하고 일자리를 더 자주 이동하지만 이들의 시간당 임금은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은 학생보다 낮다. 이러한 근로활동의 불규칙성과 낮은 질은 학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학재학 중의 근로활동 자체가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학생의 대학졸업 자체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지만, 학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여지도 존재한다. 결과적으로 대학생의 재학 중 소득활동이 졸업 자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고졸자 일자리가 아닌 대졸자 일자리에 취업을 가능하게 하여 노동시장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이들의 소득활동이 학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노동시장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제4장에서는 대학재학 중의 근로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 제 4 장

### 대학재학 중 근로와 노동시장 성과

앞 장에서 제시되었듯이 가족배경은 대학진학 여부, 목적, 대학진학 중의 근로와 관계가 있다. 현재 학교교육과 함께 학생들이 직업능력을 습득하도록 돕는 일학습병행제 등의 정부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주로 저소득층 출신인 경우가 많은데, 과연 현재의 직업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 참여가 이들의 계층 상승까지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제4장은 4년제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이 대학교육의 경제적인 부담을 낮추기 위해 활발하게 참여하는 대학재학 중 근로활동이 대학생들의 졸업 후 노동시장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이러한 대학재학 중의 근로는 궁극적으로 대학재학 기간의 경제적 비용을 낮추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으로 대학진학을 포기할 경계(at margins)에 있는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향후 대학교육의 경제적 및 비경제적 효과를 누리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이러한 대학재학 중의 근로가 학습 등에 악영향을 끼쳐서 궁극적으로 졸업 후 이들의 노동시장 진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이를 통해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것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본장은 재학 중 근로를 경험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차별화되는 노동시장 성과를 보이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이때 노동시장 성과 지표에는 취업 여부, 취업 시 임금수준, 종사상 지위 및 고용형태가 포함된다.

본장에서 수행된 분석결과는 향후 대학재학 중 근로에 초점을 맞춘 정

책이 시행될 때 나타날 효과를 예측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특히 대학생이 대학교육과 재학 중 근로에 동시에 참여할 때 졸업생들의 취업확률로 대표되는 고용의 양과 졸업생들이 취업 후 누리는 임금수준, 종사상 지위 및 고용형태 등으로 대표되는 고용의 질을 모두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본장의 분석결과는 향후 대학생의 재학 중 근로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 어떤 부분에 있어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지에 대한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제1절 선행연구

대학재학 중 근로와 졸업 후 노동시장 성과 간의 관계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제1차 청년패널자료(2001년)를 분석한 이병희(2003)에 따르면 재학 중 근로경험이 있거나 재학기간 중 아르바이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첫 일자리로의 이행이 빠르다. 하지만 개인적 특성(성별 및 학력 등)과 첫 일자리 특성(사업체 규모 및 정규직 여부 등)을 통제하는 경우 위의 두 변수는 첫 일자리 임금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박성재·반정호(2006)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2003년 전문대 및 대학교 졸업생의 취업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재학 중 일자리 경험이 첫 일자리 임금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일자리 경험을 정규직 경험, 시간제 취업경험, 현장실습 경험, 창업 경험으로 세분화한 후 분석한 결과, 4년제 대졸자가 재학 중 시간제로 일해 본 경험이 있는 경우 일자리 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첫 임금이 6.2% 낮았지만, 창업 경험이 있는 경우는 임금이 3.0% 더 높았다. 하지만 정규직 및 현장 경험은 임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자료를 분석한 남기곤·윤진호·이시균(2010)에 따르면 재학 중 일자리 경험은 현재 취업한 일자리의 시간당 임금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반면 성별(남성 여부), 연령, 부

모 학력, 학점, 복수 전공 여부, 전공의 재선택, 어학연수 경험 등은 시간당 임금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동일한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자료를 분석한 안준기·배호중(2011)은 재학 중 근로가 첫 직장에 영향을 주는데 이는 재학 중 근로의 성향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고하였다. 구체적으로 인적 특성, 부모의 학력 및 소득, 대학 관련 변수를 통제하더라도 재학 중 근로는 임금을 높이는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생계형 근로인 경우에는 첫 일자리의 임금을 낮추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 2~6차 자료를 분석한 윤주영·조민호(2015)는 높은 자립경향을 가진 대학생, 즉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충당 하였던 대학생의 첫 취업 임금은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으며 생활비도 가족으로부터 지원받았던 의존경향적인 대학생의 첫 임금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아르바이트 경험은 있으나 생활비를 가족으로부터 지원받았던 대학생의 초기임금은 의존경향적인 대학생에 비해 7.7% 낮았다.

마지막으로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자료를 분석한 정기덕·조민호(2016)에 따르면 개인배경, 가족배경, 고용형태, 기업규모 등 다양한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재학 중 전공과 일치하는 일자리만 경험한 경우에는 월평균 임금이 4.7% 증가한다. 즉 재학 중 전공과 일치하는 일자리에 참여하는지 여부가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 제2절 분석모형

본장에서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이들 중 취업자와 미취업자를 포괄한 표본에 대해 재학 중 근로 여부가 최근 시점에서의 취업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우선 제시한다.

다음으로는 4년제 대학 졸업 후 최근 시점에서 취업 상태에 있는 이들에 국한된 표본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임금방정식 모형을 추정하고자

한다.<sup>13)</sup>

$$y = \alpha + \beta Participation + \gamma Age + \delta Age^2 + \epsilon \quad (4-1)$$

위 추정식에서 핵심 설명변수인 Participation은 대학재학 중 파트타임 근로와 학업을 병행한 적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더미 변수이다. Age는 연령, Age<sup>2</sup>는 연령의 제곱값이다.

상기 식 (4-1)을 이용하여 졸업 후 노동시장 성과를 나타내는 다양한 지표를 종속변수로 놓고 분석에 활용하고자 한다. y가 임금의 자연로그 값인 경우 재학 중 근로 수행 여부가 취업 후 임금이 미치는 영향을, y가 종사상 지위 및 고용형태 변수인 경우 대학재학 중 근로가 이들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 제3절 분석자료

앞 절에서 제시된 취업 결정 회귀식 및 임금방정식의 추정을 위해서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이들을 대상으로 현재 취업 여부, 대학재학 중 파트타임 근로 여부, 파트타임 근로가 휴학기간이 아닌 실제로 학교에 다니는 기간에 이루어졌는지 여부, 그리고 현재 임금수준 및 종사상 지위와 고용형태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물론 여기에 더해 충분한 표본 크기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본장의 분석 목적을 충족시킬 가능성이 있는 자료로는 한국직업능력 개발원이 조사하는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자료,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 자료 및 청년패널(YP) 자료가 있다. 이들 자료의 분석 목적 부합 여부는 <표 4-1>에 정리되어 있다.

<표 4-1>에 나타나 있듯, 본장의 분석 목적 충족을 위해 필요한 가

13) 이러한 기본 모형에 성별, 전공계열 등 통제변수가 분석에 추가된다.

〈표 4-1〉 KEEP, GOMS 및 YP 자료의 분석 목적 부합 여부

	재학 중 휴학기간이 아닌 기간 동안 파트타임 근로 여부	취업자 노동시장 성과
한국고용고용패널 (KEEP)	교내 아르바이트 및 인턴십만 파악 가능	파악 가능
대졸자직업이동 경로조사 (GOMS)	파악 불가능	파악 가능
청년패널(YP)	파악 가능	파악 가능

자료: 필자 작성.

장 완전한 데이터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YP) 자료가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본장에서는 해당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할 것이다.<sup>14)</sup>

본 분석에서 활용된 YP2007 자료는 2016년 7월 현재 8차 조사 자료까지 가용하다. 2007년 당시 만 15~29세 사이의 청년층 10,20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하여, 현재 가장 나이 많은 조사 대상자의 경우 2014년 8차 조사 당시 만 36세에 도달하였다. 따라서 대학졸업 후 노동시장에 안착하기에 충분한 시일이 지난 표본의 비중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sup>15)</sup>

YP2007 자료에서 2014년도에 수행된 8차 조사에 참여한 표본 중, 최종학력이 4년제 대학 졸업인 이들을 추출하였다. 다음으로 이들에 대해 대학재학 중 파트타임 근로와 학업 병행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아르바이트 및 휴학 관련 데이터를 활용한다.

이때 표본에 포함된 각 개인에 대해 1차 조사에 나타난 이전 아르바이트 여부 및 이후연도 조사에 포함된 지난 1년간 아르바이트 여부를 8차 조사까지 모두 검토하여 재학 중 파트타임 근로 여부를 식별한다. 그 후 재학 중 파트타임 근로를 수행한 적이 있는 이들에 대해 아르바이트 기

14) 앞 절에 제시된 선행연구 다수가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해당 자료로는 휴학기간을 제외한 대학재학 중 근로 여부를 판별할 수 없어, 본 연구에서는 사용하지 않기로 한다.

15) 이에 반해 KEEP 자료의 경우 2014년 10차 조사 당시 가장 나이 많은 조사 대상자가 만 27세 정도에 불과하여, 대학졸업 후 노동시장에 정착해 있는 표본의 크기가 작을 것으로 예측된다.

간과 휴학기간이 겹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이를 통해 실제로 파트타임 근로가 학업과 병행되는 형태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분석 표본에 포함된 각 개인의 재학 중 근로 수행 여부를 파악한 후, 앞서 제시된 모형을 활용하여 노동시장 성과와 어떻게 연관되는지 분석한다. 다음 절에서 그 결과를 제시한다.

## 제4절 분석결과

### 1. 기초통계

표본에 포함된 4년제 대학 졸업생들의 노동시장 성과가 대학재학 중 근로 여부와 어떻게 연관되는지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하기 전에 <표 4-2>에서 본 분석에 사용된 주요 변수들에 대한 기초통계를 제시한다.

<표 4-2>에 따르면 분석대상 표본의 평균 연령은 30세에 육박하여 이미 졸업 후 노동시장에 안착할 만한 연령에 도달한 이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수도권(서울, 인천 및 경기) 소재 대학을 졸업한 이들의 비율은 38% 정도이며, 전공계열별로는 사회계열(상경계열 포함) 및 공학계열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재학 중 근로경험이 있는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71%(휴학기간 근로를 제외할 경우)에서 73%(휴학기간 근로를 포함할 경우)로 나타나, 표본에 포함된 4년제 대졸자 중 대다수가 대학재학 중 근로경험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본 내 취업자들이 현재 재직 중인 일자리에서 받고 있는 근로소득(연 환산)은 평균 2,940만 원으로 나타난다. 더불어 종사상 지위 및 고용형태에 있어서는 상용직(86%)과 정규직(87%)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종사상 지위 및 고용형태에 대해 응답자 스스로 상용직 및 정규직 여부를 판단하여 답변하도록 되어 있는 관계로 답변상의 오류가 상당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 4-2〉 기초통계

변수(단위)	관측수	평균	표준편차
여성 더미	2,638	0.5633	0.4961
연령	2,638	29.3025	48.1814
취업 더미	2,637	0.7406	0.4384
부모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더미	2,637	0.3220	0.4673
비수도권 대학 더미	2,406	0.6201	0.4855
대학 인문계열 전공 더미	2,394	0.1266	0.3326
대학 사회계열 전공 더미	2,394	0.2932	0.4553
대학 자연계열 전공 더미	2,394	0.1232	0.3288
대학 공학계열 전공 더미	2,394	0.2552	0.4361
대학 의/약학계열 전공 더미	2,394	0.0447	0.2067
대학 교육계열 전공 더미	2,394	0.0656	0.2476
대학 예체능계열 전공 더미	2,394	0.0894	0.2854
대학 사관학교, 경찰대 전공 더미	2,394	0.0021	0.0457
대학 기타계열 전공 더미	2,394	0	0
재학 중 근로(휴학기간 포함) 더미	2,638	0.7301	0.4440
재학 중 근로(휴학기간 제외) 더미	2,638	0.7058	0.4558
재학 중 근로 이유: 금전적 요인 더미	2,001	0.9355	0.2456
재학 중 근로 이유: 여가 활용 더미	2,001	0.0215	0.1450
재학 중 근로 이유: 취업경험 더미	2,001	0.0340	0.1812
재학 중 근로 이유: 기타 더미	2,001	0.0090	0.0944
종사상 지위-상용직 더미	1,955	0.8604	0.3467
종사상 지위-임시직 더미	1,955	0.0854	0.2796
종사상 지위-일용직 더미	1,955	0.0051	0.0714
종사상 지위-고용주 더미	1,955	0.0210	0.1433
종사상 지위-자영업자 더미	1,955	0.0240	0.1532
종사상 지위-무급가족종사자 더미	1,955	0.0041	0.0639
연 환산 근로소득(만 원)	1,878	2940.358	1157.582
정규직 더미	1,859	0.8709	0.3354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청년패널(YP2007)」, 각 연도.

## 2. 재학 중 근로가 취업 확률에 미치는 영향

청년패널 8차년도 조사 시점에 이미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이들을 포괄하는 표본에 대해, 8차년도 조사 시점 당시 취업 여부에 대해 대학재학 중 근로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4-3>과 <표 4-4>에 제시되어 있다.

<표 4-3>은 휴학기간을 제외한 재학 중 근로가 졸업 후 최근 시점에서 취업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한계효과(marginal effect) 개념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통제변수로서 연령 및 연령제곱, 성별, 부모학력, 출신대학 소재지, 재학 중 근로 이유(금전적 요인, 여가 활용, 취업경험, 기타), 전공계열(인문, 사회, 자연, 공학, 의/약학, 교육, 예체능, 사관학교, 기타 등) 등을 모형에 따라 활용하였다.<sup>16)</sup>

이때 일부 선행연구에서 통제변수로 활용된 적이 있는 변수들 중, 결과변수로 간주되어야 할 변수들은 의도적으로 통제변수로 활용하지 않으므로써 추정계수에 편의(bias)가 발생하는 것을 최대한 예방하고자 하였다. 즉 재학 중 근로 여부와 동시 혹은 그 이전에 결정된 변수들만을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예를 들어, 재직 중인 기업규모, 종사상 지위, 고용형태, 그리고 어학연수, 학점, 복수전공/부전공, 어학점수, 자격증 유무 등은 모두 통제변수로 포함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4-3>에서 먼저 눈에 띄는 결과는, 통제변수를 분석에 얼마나 포함했는지에 따라 구분된 네 가지 모형 모두에서 재학 중 근로는 최근 시점 취업 여부에 통계적으로 강하게 유의한 정의 효과를 갖는다는 점이다. 모형 1~3에 제시된 결과에 따르면 휴학기간 제외 재학 중 근로경험이 있는 졸업생은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현재 취업확률이 대략 5%p 정

16) 재학 중 근로이유를 묻는 청년패널조사 설문지 문항에서 '가족의 생계를 돕기 위해', '학비를 벌려고', '용돈이 필요해서', '독립하기 위한 자금을 모으려고' 등 네 개의 보기를 하나로 묶어 금전적 요인으로 간주하였다. 다음으로 '여가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를 하나의 요인으로, '졸업 후 취업을 위한 경험을 쌓기 위해'를 또 다른 하나의 요인으로 간주하였다. 마지막으로 '주위(부모님 혹은 친지 등)에서 시켜서', '주위 친구들이 하나까', '기타' 등 세 개의 보기를 하나로 묶어 기타 이유로 분류하였다.

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추정치는 모두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이러한 한계효과의 크기는 재학 중 근로 이유를 추가로 통제한 모형 4에서는 훨씬 더 크게 추정되고 있다.

〈표 4-3〉 재학 중 근로(휴학기간 제외)가 취업에 미치는 영향 : 로짓 분석 결과  
(종속변수: 취업 여부 더미(취업=1))

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재학 중 근로 (휴학기간 제외)	0.0559*** (0.0180)	0.0475*** (0.0170)	0.0501*** (0.0169)	0.2049*** (0.0247)
연령	0.1527*** (0.0368)	0.2675*** (0.0324)	0.2632*** (0.0323)	0.2791*** (0.0376)
연령제곱	-0.0023*** (0.0006)	-0.0043*** (0.0005)	-0.0043*** (0.0005)	-0.0049*** (0.0006)
여성		-0.1143*** (0.0174)	-0.1170*** (0.0185)	-0.0679*** (0.0210)
부모 대졸 이상		-0.0157 (0.0171)	-0.0136 (0.0171)	-0.0132 (0.0192)
비수도권 대학		0.0501*** (0.0164)	0.0427*** (0.0165)	0.0426** (0.0181)
재학 중 근로 이유: 금전적 요인	(생략)			
재학 중 근로 이유: 여가 활용				-0.0507 (0.0598)
재학 중 근로 이유: 취업경험				0.0194 (0.0545)
재학 중 근로 이유: 기타				-0.0626 (0.0920)
전공 더미	X	X	O	O
관측수	2,637	2,405	2,383	1,806
Pseudo $R^2$	0.0187	0.0650	0.0713	0.0970

주: 제시된 숫자는 한계효과를 나타냄. 괄호 안 숫자는 표준오차를 나타냄. \*, \*\*, \*\*\*는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청년패널(YP2007)」, 각 연도.

이러한 결과는 재학 중 근로가 최소한 졸업 후 취업 여부에 있어 유의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통계적 유의성뿐만 아니라, 앞서 기초통계에서 제시했듯 분석대상 표본의 평균 현재 취업 비율이 74%가량을 감안할 때, 5%p가량의 취업 비율 상승은 상당히 큰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재학 중 근로를 장려하는 정책이 긍정적 효과를 가질 여지를 실증적으로 확인한 결과라 할 수 있겠다.

다른 설명변수들에 대해 살펴보면, 여성의 현재 취업 확률이 남성보다 유의하게 낮고, 부모 학력은 유의한 영향을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비수도권 대학 출신자의 취업 확률이 수도권 대학 졸업자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재학 중 근로 이유에 따른 취업 확률 차이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즉 재학 중 근로를 금전적 이유에 의해 수행하든, 취업을 위한 경험 축적을 명시적으로 염두에 두고 수행하든 혹은 다른 이유에서이든 그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드러나지 않는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재학 중 근로를 휴학기간에 수행된 것까지 포함하여 확장 정의한 후 분석하더라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표 4-4>에 따르면 휴학기간 포함 재학 중 근로는 졸업 후 최근 시점 취업 확률에 대해 강하게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4-4>의 모형 1~3에 제시된 결과에 따르면 휴학기간 포함 재학 중 근로경험이 있는 졸업생의 현재 취업 확률이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대략 8%p 안팎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앞서 휴학기간을 제외한 재학 중 근로 여부가 현재 취업에 미치는 영향보다 더 강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휴학기간을 제외한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모형 4에서는 이러한 효과가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난다. 그 밖의 다른 통제변수들이 현재 취업 여부에 미치는 영향은 <표 4-3>에서와 유사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대학생들의 재학 중 근로를 장려하는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반드시 휴학기간이 아니어야 한다는 전제를 달 필요는 없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물론 근로 수행을 위해 휴학을 하게 되는 경우 학생 본인 입장에서는 사회 전체적으로든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되므로 특별

히 재학 중 휴학을 하고 근로를 하도록 장려할 이유는 전혀 없을 것이다. 다만 본인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휴학을 하게 되었을 때 근로경험을 쌓게 하는 것은 얼마든지 순기능을 가질 수 있음을 <표 4-4>의 분석결과를 시사하고 있다.

<표 4-3>과 <표 4-4>는 로짓 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강건성 검증 차원에서 프로빗 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표 4-5>와 <표 4-6>에 제시되어 있다.

<표 4-4> 재학 중 근로(휴학기간 포함)가 취업에 미치는 영향 : 로짓 분석 결과  
(종속변수: 취업 여부 더미(취업=1))

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재학 중 근로 (휴학기간 포함)	0.0852*** (0.0182)	0.0741*** (0.0172)	0.0785*** (0.0170)	0.3949*** (0.0312)
연령	0.1449*** (0.0368)	0.2606*** (0.0324)	0.2559*** (0.0323)	0.2635*** (0.0363)
연령제곱	-0.0022*** (0.0006)	-0.0042*** (0.0005)	-0.0041*** (0.0005)	-0.0042*** (0.0006)
여성		-0.1131*** (0.0173)	-0.1155*** (0.0185)	-0.0373* (0.0203)
부모 대졸 이상		-0.0143 (0.0171)	-0.0124 (0.0171)	-0.0107 (0.0183)
비수도권 대학		0.0537*** (0.0164)	0.0463*** (0.0165)	0.0527*** (0.0175)
재학 중 근로 이유: 급전적 요인	(생략)			
재학 중 근로 이유: 여가 활용				-0.0497 (0.0555)
재학 중 근로 이유: 취업경험				0.0061 (0.0505)
재학 중 근로 이유: 기타				-0.0817 (0.0836)
전공 더미	X	X	O	O
관측수	2,637	2,405	2,383	1,806
Pseudo R <sup>2</sup>	0.0226	0.0692	0.0762	0.1500

주: 제시된 숫자는 한계효과를 나타냄. 괄호 안 숫자는 표준오차를 나타냄. \*, \*\*, \*\*\*는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청년패널(YP2007)」, 각 연도.

〈표 4-5〉 재학 중 근로(휴학기간 제외)가 취업에 미치는 영향 : 프로빗 분석 결과  
(종속변수: 취업 여부 더미(취업=1))

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재학 중 근로 (휴학기간 제외)	0.0584*** (0.0181)	0.0450*** (0.0174)	0.0478*** (0.0172)	0.2162*** (0.0263)
연령	0.1566*** (0.0373)	0.2751*** (0.0336)	0.2709*** (0.0336)	0.2864*** (0.0389)
연령제곱	-0.0024*** (0.0006)	-0.0044*** (0.0006)	-0.0044*** (0.0006)	-0.0046*** (0.0006)
여성		-0.1091*** (0.0167)	-0.1113*** (0.0179)	-0.0610*** (0.0203)
부모 대졸 이상		-0.0151 (0.0172)	-0.0129 (0.0172)	-0.0128 (0.0191)
비수도권 대학		0.0486*** (0.0165)	0.0415** (0.0166)	0.0429** (0.0181)
재학 중 근로 이유: 금전적 요인	(생략)			
재학 중 근로 이유: 여가 활용				-0.0496 (0.0606)
재학 중 근로 이유: 취업경험				0.0220 (0.0538)
재학 중 근로 이유: 기타				-0.0594 (0.0946)
전공 더미	X	X	O	O
관측수	2,637	2,405	2,383	1,806
Pseudo R <sup>2</sup>	0.0190	0.0651	0.0714	0.0985

주: 제시된 숫자는 한계효과를 나타냄. 괄호 안 숫자는 표준오차를 나타냄. \*, \*\*, \*\*\*는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청년패널(YP2007)」, 각 연도.

〈표 4-5〉와 〈표 4-6〉에 제시된 결과는 분석방법을 로짓이 아닌 프로빗으로 대신하더라도 분석결과가 질적으로 달라지지 않음을 보여준다. 심지어는 재학 중 근로가 현재 취업 여부에 미치는 영향의 양적 크기 역시 거의 유사함을 볼 수 있다. 즉 〈표 4-5〉에서 휴학기간을 제외한 재학 중 근로의 현재 취업 확률에 대한 영향은 모형 1~3에서 대략 5%p 안팎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표 4-3〉의 로짓 모형 분석결과와 거의 동일하

〈표 4-6〉 재학 중 근로(휴학기간 포함)가 취업에 미치는 영향 : 프로빗 분석 결과  
(종속변수: 취업 여부 더미(취업=1))

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재학 중 근로 (휴학기간 포함)	0.0877*** (0.0184)	0.0718*** (0.0177)	0.0764*** (0.0175)	0.4151*** (0.0319)
연령	0.1493*** (0.0372)	0.2690*** (0.0336)	0.2644*** (0.0335)	0.2725*** (0.0374)
연령제곱	-0.0023*** (0.0006)	-0.0043*** (0.0006)	-0.0042*** (0.0006)	-0.0043*** (0.0006)
여성		-0.1064*** (0.0167)	-0.1082*** (0.0178)	-0.0361* (0.0196)
부모 대졸 이상		-0.0140 (0.0172)	-0.0119 (0.0172)	-0.0112 (0.0183)
비수도권 대학		0.0519*** (0.0165)	0.0449*** (0.0165)	0.0516*** (0.0174)
재학 중 근로 이유: 금전적 요인	(생략)			
재학 중 근로 이유: 여가 활용				-0.0517 (0.0568)
재학 중 근로 이유: 취업경험				0.0105 (0.0510)
재학 중 근로 이유: 기타				-0.0784 (0.0895)
전공 더미	X	X	O	O
관측수	2,637	2,405	2,383	1,806
Pseudo R <sup>2</sup>	0.0230	0.0690	0.0759	0.1507

주: 제시된 숫자는 한계효과를 나타냄. 괄호 안 숫자는 표준오차를 나타냄. \*, \*\*, \*\*\*는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청년패널(YP2007)」, 각 연도.

다. 한편 〈표 4-6〉에서도 휴학기간 포함 재학 중 근로는 졸업 후 현재 취업확률을 모형 1~3에서 대략 8%p 안팎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 역시 〈표 4-4〉에 제시된 것과 흡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표 4-3〉~〈표 4-6〉까지 제시된 결과를 요약하면, 대학재학 중 근로를 휴학기간 근로를 포함하여 정의하든 제외하고 정의하든 상관없이, 졸

업 후 취업 확률은 재학 중 근로 수행에 의해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때 언급되는 유의성은 유의수준 1%에서의 강한 통계적 유의성뿐만 아니라, 취업 확률의 상승 정도 역시 의미 있게 큰 수준이다. 따라서 향후 대학재학 중 근로를 장려하는 정책이 시행될 때 최소한 졸업 후 취업 확률을 높이는 데에는 기여할 수 있다는 실증적 근거가 제시 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 3. 재학 중 근로가 취업 후 임금에 미치는 영향

대학재학 중 파트타임 근로가 졸업 후 현재 취업 중인 일자리에서 받는 임금이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는 <표 4-7>과 <표 4-8>에 제시 되어 있다.<sup>17)</sup>

먼저 <표 4-7>에서 휴학기간이 아닌 재학 중에 이루어진 근로가 졸업 후 임금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재학 중 근로 여부가 졸업 후 임금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모든 추정 모형에서 추정계수가 양의 값을 가지기는 하나, 통계적 유의성을 갖는 경우는 없었다.

다른 통제변수에 대해 살펴보면, 표본 내 4년제 대학 졸업 여성 취업자가 남성 취업자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 부모가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인 경우 자녀가 대학 졸업 후 받는 임금이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비수도권 대학 졸업생은 수도권 대학 졸업생에 비해 취업 후 받는 임금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재학 중 근로 이유가 어떤 것이든 졸업 후 취업 시 받는 임금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sup>18)</sup>

17) 청년패널자료에서는 본인의 소득을 포함한 가구총소득만 파악이 가능하고, 부모 소득은 별도로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앞 장의 분석과는 달리 부모 소득을 설명변수로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소득을 월 단위로 답변한 응답자의 경우 액수에 12를 곱하여 연 단위로 환산하였다. 한편 주급, 일급 및 시급 단위로 답변한 경우는 환산 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18) <표 4-7>의 모형 2와 3에 각각 부모 대졸 이상 더미와 재학 중 근로 더미의 교차항을 추가하여 분석해 보았으나, 해당 변수의 추정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

〈표 4-7〉 재학 중 근로(휴학기간 제외)의 영향: 임금방정식 분석 결과

(종속변수: ln(연 환산 근로소득))

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재학 중 근로 (휴학기간 제외)	0.0119 (0.0182)	0.0123 (0.0176)	0.0093 (0.0174)	0.0317 (0.0384)
연령	0.1591*** (0.0379)	0.1070*** (0.0370)	0.1070*** (0.0367)	0.1460*** (0.0431)
연령제곱	-0.0020*** (0.0006)	-0.0013** (0.0006)	-0.0013** (0.0006)	-0.0020*** (0.0007)
여성		-0.2054*** (0.0170)	-0.1750*** (0.0180)	-0.1691*** (0.0206)
부모 대졸 이상		0.0374** (0.0172)	0.0373** (0.0170)	0.0350* (0.0193)
비수도권 대학		-0.1131*** (0.0165)	-0.1221*** (0.0163)	-0.1193*** (0.0183)
재학 중 근로 이유: 급전적 요인	(생략)			
재학 중 근로 이유: 여가 활용				-0.0495 (0.0606)
재학 중 근로 이유: 취업경험				0.0392 (0.0487)
재학 중 근로 이유: 기타				0.1063 (0.1038)
상수	4.9411*** (0.5690)	6.0656*** (0.5590)	6.0054*** (0.5555)	5.4363*** (0.6549)
전공 더미	X	X	O	O
관측수	1,870	1,823	1,815	1,389
R <sup>2</sup>	0.1379	0.2186	0.2470	0.2473

주: 전공 더미 계수는 생략하였음. 괄호 안 숫자는 표준오차를 나타냄. \*, \*\*, \*\*\*는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청년패널(YP2007)」, 각 연도.

다음으로 <표 4-8>에 제시된, 휴학기간 포함 재학 중 근로가 졸업 후 취업 시 임금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역시 정의에 상관없이 재학 중 근로는 취업자들의 임금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4-8〉 재학 중 근로(휴학기간 포함)의 영향: 임금방정식 분석 결과

(종속변수: ln(연 환산 근로소득))

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재학 중 근로 (휴학기간 포함)	0.0127 (0.0189)	0.0115 (0.0184)	0.0109 (0.0182)	0.0982 (0.0703)
연령	0.1586*** (0.0379)	0.1069*** (0.0370)	0.1065*** (0.0367)	0.1449*** (0.0430)
연령제곱	-0.0020*** (0.0006)	-0.0013** (0.0006)	-0.0013** (0.0006)	-0.0020*** (0.0007)
여성		-0.2054*** (0.0170)	-0.1751*** (0.0180)	-0.1691*** (0.0206)
부모 대출 이상		0.0375** (0.0172)	0.0374** (0.0170)	0.0354* (0.0193)
비수도권 대학		-0.1129*** (0.0165)	-0.1218*** (0.0163)	-0.1185*** (0.0183)
재학 중 근로 이유: 금전적 요인	(생략)			
재학 중 근로 이유: 여가 활용				-0.0491 (0.0605)
재학 중 근로 이유: 취업경험				0.0387 (0.0487)
재학 중 근로 이유: 기타				0.1037 (0.1037)
상수	4.9462*** (0.5694)	6.0662*** (0.5593)	6.0096*** (0.5557)	5.3825*** (0.6563)
전공 더미	X	X	O	O
관측수	1,870	1,823	1,815	1,389
$R^2$	0.1379	0.2185	0.2470	0.2480

주: 전공 더미 계수는 생략하였음. 괄호 안 숫자는 표준오차를 나타냄. \*, \*\*, \*\*\*는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청년패널(YP2007)」, 각 연도.

다른 통제변수, 즉 성별, 부모 학력, 출신 대학 소재지, 재학 중 근로 이유 등의 변수가 취업 후 임금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앞서 <표 4-7>에 제시된 결과와 질적으로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sup>19)</sup>

19) <표 4-8>의 모형 2와 3에도 각각 부모 대출 이상 더미와 재학 중 근로 더미의

다음으로 <표 4-9>~<표 4-12>는 위의 임금방정식 모형을 부모가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표본과 그렇지 않은 표본으로 나누어 추정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표 4-9> 재학 중 근로(휴학기간 제외)의 영향: 부모 대졸 이상 표본

(종속변수: ln(연 환산 근로소득))

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재학 중 근로 (휴학기간 제외)	0.0139 (0.0344)	0.0068 (0.0332)	0.0103 (0.0330)	0.0902 (0.0750)
연령	0.1004 (0.0774)	0.0650 (0.0751)	0.0518 (0.0744)	0.1461* (0.0886)
연령제곱	-0.0009 (0.0013)	-0.0006 (0.0012)	-0.0003 (0.0012)	-0.0020 (0.0015)
여성		-0.2000*** (0.0323)	-0.1505*** (0.0344)	-0.1488*** (0.0392)
비수도권 대학		-0.1379*** (0.0304)	-0.1460*** (0.0302)	-0.1417*** (0.0347)
재학 중 근로 이유: 금전적 요인	(생략)			
재학 중 근로 이유: 여가 활용				-0.3674*** (0.1019)
재학 중 근로 이유: 취업경험				0.0806 (0.0852)
재학 중 근로 이유: 기타				0.4989 (0.3559)
상수	5.7621*** (1.1524)	6.6794*** (1.1246)	6.7916*** (1.1150)	5.4209*** (1.3282)
전공 더미	X	X	O	O
관측수	575	565	563	430
$R^2$	0.1528	0.2338	0.2698	0.2740

주: 전공 더미 계수는 생략하였음. 괄호 안 숫자는 표준오차를 나타냄. \*, \*\*, \*\*\*는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청년패널(YP2007)」, 각 연도.

교차항을 추가하여 분석해 보았으나, 해당 변수의 추정계수는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4-10〉 재학 중 근로(휴학기간 제외)의 영향: 부모 대졸 미만 표본

(종속변수: ln(연 환산 근로소득))

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재학 중 근로 (휴학기간 제외)	0.0124 (0.0213)	0.0155 (0.0208)	0.0099 (0.0205)	0.0165 (0.0446)
연령	0.1648*** (0.0436)	0.1130*** (0.0426)	0.1125*** (0.0424)	0.1323*** (0.0495)
연령제곱	-0.0021*** (0.0007)	-0.0015** (0.0007)	-0.0014** (0.0007)	-0.0018** (0.0008)
여성		-0.2078*** (0.0199)	-0.1846*** (0.0211)	-0.1759*** (0.0241)
비수도권 대학		-0.0993*** (0.0197)	-0.1078*** (0.0194)	-0.1103*** (0.0216)
재학 중 근로 이유: 금전적 요인	(생략)			
재학 중 근로 이유: 여가 활용				0.1510** (0.0756)
재학 중 근로 이유: 취업경험				0.0124 (0.0596)
재학 중 근로 이유: 기타				0.0716 (0.1056)
상수	4.8573*** (0.6573)	5.9948*** (0.6470)	5.9478*** (0.6452)	5.6593*** (0.7566)
전공 더미	X	X	O	O
관측수	1,293	1,258	1,252	959
$R^2$	0.1370	0.2115	0.2403	0.2555

주: 전공 더미 계수는 생략하였음. 괄호 안 숫자는 표준오차를 나타냄. \*, \*\*, \*\*\*  
는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청년패널(YP2007)」, 각 연도.

〈표 4-9〉와 〈표 4-10〉, 그리고 〈표 4-11〉과 〈표 4-12〉에 제시된 결과를 서로 비교할 때, 부모 대졸 이상 및 미만 표본 간 분석결과의 질적인 차이는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부모 대졸 이상 표본이든 미만 표본이든 간에, 심지어는 재학 중 근로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하더라도 질적인 결과는 상당히 유사하다. 〈표

4-9>~<표 4-12>에 제시된 어떤 분석모형에서도 재학 중 근로는 현재 임금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부모의 학력수준에 따라 자녀의 재학 중 근로가 취업 후 임금수준에 미치는 영향의 양상이 달라질 것이라는 가설을 뒷받침할 근거는 찾을 수 없었다. 더불어 여성 더미 및 비수도권 대학 더미의 추정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을 갖는 것 역시 <표 4-9>~<표 4-12>에 제시된 모든 분석모형에서 동일하다.

<표 4-11> 재학 중 근로(휴학기간 포함)의 영향: 부모 대졸 이상 표본

(종속변수: ln(연 환산 근로소득))

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재학 중 근로 (휴학기간 포함)	0.0132 (0.0358)	0.0069 (0.0346)	0.0146 (0.0345)	0.2077 (0.1326)
연령	0.1000 (0.0775)	0.0647 (0.0752)	0.0509 (0.0744)	0.1402 (0.0885)
연령제곱	-0.0009 (0.0013)	-0.0006 (0.0012)	-0.0003 (0.0012)	-0.0018 (0.0015)
여성		-0.2001*** (0.0324)	-0.1508*** (0.0345)	-0.1512*** (0.0392)
비수도권 대학		-0.1378*** (0.0305)	-0.1456*** (0.0302)	-0.1409*** (0.0347)
재학 중 근로 이유: 금전적 요인	(생략)			
재학 중 근로 이유: 여가 활용				-0.3654*** (0.1017)
재학 중 근로 이유: 취업경험				0.0804 (0.0850)
재학 중 근로 이유: 기타				0.4131 (0.3484)
상수	5.7678*** (1.1530)	6.6822*** (1.1251)	6.7994*** (1.1152)	5.3694*** (1.3274)
전공 더미	X	X	O	O
관측수	575	565	563	430
$R^2$	0.1528	0.2338	0.2699	0.2758

주: 전공 더미 계수는 생략하였음. 괄호 안 숫자는 표준오차를 나타냄. \*, \*\*, \*\*\*는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청년패널(YP2007)」, 각 연도.

〈표 4-12〉 재학 중 근로(휴학기간 포함)의 영향: 부모 대졸 미만 표본

(종속변수: ln(연 환산 근로소득))

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재학 중 근로 (휴학기간 포함)	0.0145 (0.0222)	0.0144 (0.0217)	0.0100 (0.0214)	0.0441 (0.0829)
연령	0.1641*** (0.0437)	0.1130*** (0.0427)	0.1123*** (0.0425)	0.1319*** (0.0495)
연령제곱	-0.0021*** (0.0007)	-0.0015** (0.0007)	-0.0014** (0.0007)	-0.0018** (0.0008)
여성		-0.2078*** (0.0199)	-0.1846*** (0.0211)	-0.1756*** (0.0241)
비수도권 대학		-0.0990*** (0.0197)	-0.1076*** (0.0195)	-0.1099*** (0.0215)
재학 중 근로 이유: 급전적 요인	(생략)			
재학 중 근로 이유: 여가 활용				0.1515** (0.0756)
재학 중 근로 이유: 취업경험				0.0122 (0.0596)
재학 중 근로 이유: 기타				0.0720 (0.1056)
상수	4.8651*** (0.6578)	5.9934*** (0.6473)	5.9483*** (0.6454)	5.6362*** (0.7586)
전공 더미	X	X	O	O
관측수	1,293	1,258	1,252	959
$R^2$	0.1371	0.2114	0.2403	0.2556

주: 전공 더미 계수는 생략하였음. 괄호 안 숫자는 표준오차를 나타냄. \*, \*\*, \*\*\*는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청년패널(YP2007)」, 각 연도.

다만 한 가지 흥미로운 결과는, 부모 학력이 대졸 이상이나 미만이나에 따라 자녀의 대학재학 중 여가 활용을 위해 근로를 수행할 때 졸업 후 취업 시 임금수준에 대한 영향이 정반대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표 4-9>와 <표 4-11>에 따르면, 부모의 학력수준이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인 경우 자녀의 재학 중 근로 이유가 여가 활용에 있다면 급전적 요인이 근로 이유일 때에 비해 졸업 후 임금수준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에 반해 <표 4-10>과 <표 4-12>에 따르면, 부모의 학력수준이 4년제 대학 졸업 미만인 경우 재학 중 근로 이유가 여가 활용을 위해서일 때 금전적 요인으로 근로를 수행했을 때와 비교하여 오히려 졸업 후 취업 시 임금수준에 대한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때 재학 중 근로를 여가 활용을 위해 수행한 것으로 응답한 이들의 경우, 부모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거나 자녀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부양 의지가 강하여 대학재학 중 금전적 압박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왜 부모의 학력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을 땐 금전적 압박을 크게 느끼지 않는 자녀의 졸업 후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높고, 부모의 학력수준이 높을 땐 금전적 압박을 크게 느끼는 자녀의 졸업 후 임금수준이 더 높은지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 4. 재학 중 근로가 취업 후 종사상 지위 및 고용형태에 미치는 영향

앞에서 대학재학 중 근로가 취업 후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제는 또 다른 노동시장 성과 지표로서 상용직, 임시·일용직 등 종사상 지위, 그리고 정규직/비정규직으로 나뉘는 고용형태에 재학 중 근로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표 4-13>은 재학 중 근로가 졸업 후 현재 취업 중인 일자리에서의 종사상 지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sup>20)</sup> 이에 따르면 임금뿐만 아니라 종사상 지위에 대해서도 재학 중 근로는 유의한 영향을 거의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sup>21)</sup> 다만 재학 중 근로를 한 경우 졸업 후 상용직 근로자가 될 확률에 비해 고용주가 될 확률이 유의

20) <표 4-13>은 재학 중 근로를 정의할 때 휴학기간 동안 이루어진 근로를 제외하고 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휴학기간을 포함하여 재학 중 근로를 정의할 때 분석결과는 분량 관계로 생략하기로 한다. 다만 그 질적인 결과는 상당 부분 유사하게 나타난다.

21) <표 4-13>의 모형 2와 3에 부모 대졸 이상 및 재학 중 근로 더미의 교차항을 추가하여 분석할 때, 해당 변수의 추정계수는 모든 경우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표 4-13〉 종사상 지위 결정요인 : 다항로짓 분석 결과

		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입 시 직  vs. 상 용 직	재학 중 근로(휴 학기간 제외)	0.0155 (0.1829)	-0.0153 (0.1890)	0.0078 (0.1943)	-0.0971 (0.3871)	
	연령	-0.7580** (0.3707)	-0.7553** (0.3785)	-0.7320* (0.3887)	-0.8704* (0.4479)	
	연령제곱	0.0107* (0.0062)	0.0112* (0.0063)	0.0109* (0.0065)	0.0134* (0.0075)	
	여성		0.5618*** (0.1927)	0.2104 (0.2068)	0.3139 (0.2432)	
	부모 대졸 이상		0.3423** (0.1745)	0.3074* (0.1794)	0.3638* (0.2023)	
	비수도권 대학		-0.1257 (0.1752)	-0.0740 (0.1805)	-0.1626 (0.2021)	
	상수	10.6550* (5.4491)	9.7288* (5.6040)	9.8685* (5.7705)	11.7974* (6.7060)	
	전공 더미	X	X	O	O	
	재학 중 근로 이 유 더미	X	X	X	O	
일 용 직  vs. 상 용 직	재학 중 근로 (휴학기간 제외)	13.8032 (492.37)	13.8646 (558.1235)	15.2240 (1068.721)	14.8553 (2306.942)	
	연령	-1.7578 (1.3015)	-1.1622 (1.4689)	-1.0813 (1.4737)	-1.0973 (1.4913)	
	연령제곱	0.0295 (0.0212)	0.0204 (0.0236)	0.0193 (0.0237)	0.0195 (0.0240)	
	여성		0.4469 (0.7222)	0.3294 (0.7688)	0.3214 (0.7765)	
	부모 대졸 이상		-1.2030 (1.0738)	-1.2001 (1.0756)	-1.3181 (1.0815)	
	비수도권 대학		-0.3755 (0.6786)	-0.2234 (0.6850)	-0.2387 (0.6845)	
	상수	7.1575 (492.7587)	-2.4248 (558.5796)	-4.4762 (1068.961)	-3.8471 (2307.056)	
	전공 더미	X	X	O	O	
	재학 중 근로 이 유 더미	X	X	X	O	

〈표 4-13〉의 계속

	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고용주 vs. 상용직	재학 중 근로 (휴학기간 제외)	-0.5281 (0.3277)	-0.6128* (0.3321)	-0.5742* (0.3344)	-1.7962*** (0.5691)
	연령	0.1185 (0.8820)	1.0581 (0.9889)	1.0308 (0.9948)	1.2645 (1.2126)
	연령제곱	-0.0066 (0.0140)	-0.0138 (0.0155)	-0.0135 (0.0156)	-0.0179 (0.0191)
	여성		0.2156 (0.3416)	-0.1171 (0.3576)	-0.4955 (0.4360)
	부모 대졸 이상		-0.1964 (0.3771)	-0.2467 (0.3802)	-0.5172 (0.4764)
	비수도권 대학		-0.2494 (0.3303)	-0.2131 (0.3335)	-0.0672 (0.3932)
	상수	-14.9477 (13.8038)	-22.7097 (15.6658)	-21.8400 (15.7848)	-23.6018 (19.0700)
	전공 더미	X	X	O	O
	재학 중 근로 이 유 더미	X	X	X	O
자영업자 vs. 상용직	재학 중 근로 (휴학기간 제외)	-0.2028 (0.3203)	-0.2092 (0.3220)	-0.1540 (0.3284)	-0.7415 (0.6603)
	연령	0.1185 (0.7724)	0.1989 (0.7854)	0.2374 (0.7956)	0.5195 (0.9517)
	연령제곱	0.0006 (0.0123)	-0.0001 (0.0125)	-0.0005 (0.0126)	-0.0054 (0.0151)
	여성		0.7520** (0.3152)	0.6269* (0.3346)	0.4157 (0.3873)
	부모 대졸 이상		0.3761 (0.3223)	0.4298 (0.3287)	0.0086 (0.3980)
	비수도권 대학		0.4850 (0.3367)	0.6776* (0.3472)	0.6085 (0.3955)
	상수	-7.7519 (12.0197)	-10.4207 (12.2744)	-10.9017 (12.4516)	-13.8651 (14.8612)
	전공 더미	X	X	O	O
	재학 중 근로 이유 더미	X	X	X	O

<표 4-13>의 계속

	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무급가족종사자 vs. 상용직	재학 중 근로 (휴학기간 제외)	-0.3513 (0.7365)	-0.3513 (0.7366)	-0.2102 (0.7448)	14.0027 (1823.34)
	연령	-2.3943* (1.3771)	-2.1762 (1.3632)	-2.1245 (1.3422)	-1.5057 (1.8540)
	연령제곱	0.0385* (0.0229)	0.0359 (0.0227)	0.0348 (0.0224)	0.0232 (0.0313)
	여성		1.0165 (0.8792)	0.7386 (0.9234)	1.0159 (1.2324)
	부모 대졸 이상		0.5070 (0.7525)	0.6075 (0.7655)	0.4791 (0.9738)
	비수도권 대학		13.8589 (491.1145)	14.0459 (507.0592)	14.3361 (707.1104)
	상수	31.4094 (20.2818)	13.0968 (491.5278)	13.8783 (507.4473)	-9.0143 (1955.845)
	전공 더미	X	X	O	O
	재학 중 근로 이 유 더미	X	X	X	O
관측수		1,955	1,907	1,897	1,452
Pseudo R <sup>2</sup>		0.0346	0.0507	0.0955	0.1037

주: 전공 더미 및 재학 중 근로 이유 더미 계수는 생략하였음. 괄호 안 숫자는 표준오차를 나타냄. \*, \*\*, \*\*\*는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청년패널(YP2007)」, 각 연도.

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부모 학력수준이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인 경우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상용직 대비 임시직 확률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상식에 기반한 예측과 정반대의 결과인데, 부모가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인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상용직과 임시직 간 차이를 정확히 인식하여 본인이 임시직일 때 설문조사에서 임시직이라고 답할 확률이 높은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표 4-14>와 <표 4-15>는 대학재학 중 근로 여부가 현재 고용형태에 미치는 영향을 한계효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이때 임

금과 종사상 지위에 더해 고용형태상 정규직 여부에 대해서도 재학 중 근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통제변수에 대해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정규직 확률이 대체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출신 대학 소재지와 재학 중 근로 이유는 졸업 후 정규직 확률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갖지 않는다.

〈표 4-14〉 정규직 여부 결정요인(휴학기간 제외) : 로짓 분석 결과

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재학 중 근로 (휴학기간 제외)	-0.0170 (0.0164)	-0.0141 (0.0164)	-0.0133 (0.0159)	-0.0202 (0.0324)
연령	0.0765** (0.0342)	0.0693** (0.0335)	0.0622* (0.0327)	0.0842** (0.0388)
연령제곱	-0.0011* (0.0006)	-0.0011* (0.0006)	-0.0009* (0.0005)	-0.0013** (0.0006)
여성		-0.0630*** (0.0166)	-0.0335** (0.0171)	-0.0280 (0.0202)
부모 대졸 이상		-0.0370** (0.0171)	-0.0344** (0.0166)	-0.0357* (0.0194)
비수도권 대학		0.0071 (0.0158)	0.0005 (0.0152)	0.0131 (0.0179)
재학 중 근로 이유: 금전적 요인	(생략)			
재학 중 근로 이유: 여가 활용				-0.0219 (0.0685)
재학 중 근로 이유: 취업경험				-0.0138 (0.0493)
전공 터미	X	X	O	O
관측수	1,859	1,812	1,799	1,373
Pseudo $R^2$	0.0210	0.0336	0.0606	0.0662

주: 제시된 숫자는 한계효과를 나타냄. 괄호 안 숫자는 표준오차를 나타냄. \*, \*\*, \*\*\*는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청년패널(YP2007)」, 각 연도.

〈표 4-15〉 정규직 여부 결정요인(휴학기간 포함) : 로짓 분석 결과

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재학 중 근로 (휴학기간 포함)	-0.0149 (0.0172)	-0.0115 (0.0173)	-0.0099 (0.0169)	-0.0039 (0.0654)
연령	0.0771** (0.0343)	0.0695** (0.0336)	0.0624* (0.0328)	0.0853** (0.0388)
연령제곱	-0.0011* (0.0006)	-0.0011* (0.0006)	-0.0010* (0.0005)	-0.0013** (0.0006)
여성		-0.0631*** (0.0166)	-0.0337** (0.0171)	-0.0280 (0.0202)
부모 대졸 이상		-0.0371** (0.0171)	-0.0345** (0.0166)	-0.0361* (0.0194)
비수도권 대학		0.0069 (0.0158)	0.0005 (0.0152)	0.0128 (0.0178)
재학 중 근로 이유: 금전적 요인	(생략)			
재학 중 근로 이유: 여가 활용				-0.0233 (0.0690)
재학 중 근로 이유: 취업경험				-0.0151 (0.0497)
전공 더미	X	X	O	O
관측수	1,859	1,812	1,799	1,373
Pseudo $R^2$	0.0207	0.0334	0.0604	0.0658

주: 제시된 숫자는 한계효과를 나타냄. 괄호 안 숫자는 표준오차를 나타냄. \*, \*\*, \*\*\*는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청년패널(YP2007)」, 각 연도.

〈표 4-14〉와 〈표 4-15〉에서 흥미로운 점은, 〈표 4-13〉에서 임시직 확률에 대해 그랬던 것과 유사하게 부모의 학력이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인 이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오히려 비정규직일 확률이 유의하게 높다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하였듯 종사상 지위 및 고용형태에 대한 응답에 있어 답변상의 오류가 상당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때 부모가 고학력자인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종사상 지위 및 고용 형태에 대한 답변에 있어 오류가 유의하게 적었다고 하면 이처럼 언뜻 이해하기 힘든 결과에 대한 설명이 가능할 수 있다.

## 5. 대학재학 중 근로 결정요인

그렇다면 어떤 이들이 대학재학 중 근로를 선택하게 되는가? 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4-16>과 <표 4-17>에 제시되어 있다.

<표 4-16>과 <표 4-17>에 제시된 결과에 따르면, 재학 중 근로를 어떻게 정의하든 부모의 학력수준은 재학 중 근로 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대체로 재학 중 근로

<표 4-16> 재학 중 근로(휴학기간 제외) 결정요인 : 로짓 분석 결과

변수	모형 1	모형 2
여성	0.0335 (0.0205)	0.0426* (0.0223)
부모 대졸 이상	-0.0153 (0.0225)	-0.0103 (0.0226)
비수도권 대학	-0.0567*** (0.0210)	-0.0545*** (0.0211)
전공 더미	X	O
관측수	1,907	1,897
Pseudo $R^2$	0.0043	0.0065

주: 제시된 숫자는 한계효과를 나타냄. 괄호 안 숫자는 표준오차를 나타냄. \*, \*\*, \*\*\*는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청년패널(YP2007)」, 각 연도.

<표 4-17> 재학 중 근로(휴학기간 포함) 결정요인 : 로짓 분석 결과

변수	모형 1	모형 2
여성	0.0583*** (0.0197)	0.0670*** (0.0213)
부모 대졸 이상	-0.0237 (0.0218)	-0.0178 (0.0218)
비수도권 대학	-0.0783*** (0.0198)	-0.0748*** (0.0200)
전공 더미	X	O
관측수	1,907	1,897
Pseudo $R^2$	0.0109	0.0132

주: 제시된 숫자는 한계효과를 나타냄. 괄호 안 숫자는 표준오차를 나타냄. \*, \*\*, \*\*\*는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청년패널(YP2007)」, 각 연도.

를 수행할 확률이 유의하게 높고, 비수도권 대학 출신자의 재학 중 근로 확률이 수도권 대학 출신자에 비해 유의하게 낮다.

## 제5절 소 결

본장에서는 대학재학 중 근로가 졸업 후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청년패널조사 1~8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4년제 대학 졸업자들의 대학재학 중 근로 여부를 파악하고 이들의 현재 취업 여부 및 임금수준, 종사상 지위 및 근로형태 등 졸업 후 노동시장 성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대학재학 중 근로를 경험한 졸업자들의 현재 취업 확률이 대학재학 중 근로경험이 없는 이들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때 통계적 유의성뿐만 아니라, 실제 재학 중 근로 경험자와 미경험자 간 취업 확률 차이의 크기 역시 5%p(휴학기간 근로를 제외하고 재학 중 근로를 정의하는 경우)에서 8%p(휴학기간 근로를 포함하여 정의하는 경우)로 나타난다. 따라서 노동시장 성과 중 고용의 양과 관련된 지표인 취업 확률에 대해서는 대학재학 중 근로가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실증적 근거가 존재한다.

둘째, 분석대상 표본을 4년제 대학 졸업자 중 현재 취업자에 국한하여 분석할 때, 임금수준, 종사상 지위 및 고용형태 등에 대해서는 대학 재학 중 근로 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거의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동시장 성과 중 고용의 질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지표들에 대해서는, 대학재학 중 근로 여부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별다른 긍정적인 영향 역시 갖지 않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본장의 분석결과가 갖는 정책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대학교육과 대학재학 중 근로를 결합하는 방식의 정책을 적절하게 설계하여 시행한다면, 대학재학 중 근로를 하는 졸업생들의 노동시장

성과에 있어 상당 부분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세밀한 준비과정을 거쳐 우리나라 고등교육 현장 특성에 부합하는 정책을 설계하고 중장기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것을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대학재학 중 근로가 졸업 후 취업 확률 제고에 기여한다는 실증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시행하고자 할 때, 별도의 휴학기간 없이 정규학기 중에 근로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제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분석결과 오히려 휴학기간 중 근로를 재학 중 근로에 포함한 분석에서 졸업 후 취업 확률 제고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물론 휴학에 따른 학생 개인 및 사회적 비용이 수반되므로 특별히 근로경험을 위해 휴학을 독려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다만 학생 개인의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휴학을 하게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근로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

셋째, 대학재학 중 근로경험 제공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시행될 때 졸업생의 취업 확률 제고라는 고용의 양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는 기대할 만하다. 다만 재직 일자리에서의 임금수준, 종사상 지위 및 고용형태 등 고용의 질에 대해서는 재학 중 근로가 유의한 긍정적 효과를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물론 청년 취업자들이 누리는 종사상 지위 및 고용형태에서의 문제에 대해서는 노동시장 전체의 구조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본인이 졸업 후 취업을 희망하고 실제 취업 가능성이 있는 업종 및 직종에 대해 대학재학 중 근로경험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한다면, 졸업 후 향유하는 임금수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기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 제 5 장

### 대학생 노동시장 개선방안

본 연구의 실태조사 표본인 중위권 대학 학생의 50.5%(724명)는 대학 재학기간 중 소득활동에 종사했다. 이렇듯 대학재학 중의 근로는 대학생의 생활에서 매우 보편적인 현상이지만, 제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짧은 근속기간 등 이들의 일자리의 질은 우려스럽다. 물론 근속기간이 짧은 이유는 대학생 일자리가 대부분 판매 및 서비스업종에 집중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실태조사 결과 현재 대학생 일자리는 이들의 단순 노동력을 단시간에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제3장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가족배경이 대학재학 중 소득활동을 하는 이유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일자리의 질에 정책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물론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대학생의 근로목적이 여행이나 쇼핑 등을 위한 소비 때문이라면 이들이 종사하는 업종이나 고용형태 등에 대해서 정책적인 관심을 가질 요인은 적을 것이다. 하지만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재학 중 소득활동은 학업에 따른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면, 이들 대학생의 재학 중 근로활동은 대학교육의 경제적 비용을 해결하는 방안이며 보다 본질적으로 대학교육 및 대학에서의 사회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일 수 있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가족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인적 네트워크 형성 및 사회적 자질 양성 등의 목적으로 대학에 진학하였으며, 이들은 대학을 졸업하기 위해서 소득활동을 반드시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학생들에게 대학재학 중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

다. 또한 4장의 분석결과와 같이 대학재학 중 근로가 취업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고용의 질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 역시 대학생 노동시장의 질이 낮은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본장에서는 대학생 노동시장 개선방안의 하나로 시간제 상용직 일자리의 가능성을 모색해 본다. 대학 재학기간 동안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시간제 일자리가 존재한다면 대학생들의 경제적 어려움 해결에도 도움이 되고 동시에 안정적인 일자리가 대학생활을 지속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장은 대학생이 단순한 업무에 단기간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제 상용직으로 근무하는 것이 더 긍정적인 교육 및 노동시장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러한 일자리가 있다면 대학생들이 근로할 의향이 있는지, 어떤 조건에서 근로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제시한다.

## 제1절 대학재학 중 시간제 상용직 근로 희망여부와 진입조건

본절은 중위권 대학생들이 대학생활과 병행이 가능한 상용직 일자리가 존재한다면 근무할 의향이 있는지 및 어떤 근무조건을 희망하는지를 조사한 결과를 제시한다.

### 1. 응답자 특성

전체 표본 1,434명 중 40.7%인 584명의 학생은 대학교 수업 및 학내외 활동에 참석하거나 참가할 수 있는 시간이 보장되는 상용직 일자리가 있으면 근무할 의향이 있다. <표 5-1>은 대학재학과 병행 가능한 상용직 일자리에 근무할 의향이 있는 학생들의 특성과 전체 표본의 특성을 비교한 결과이다. 두 집단의 연령, 이수학기, 부모소득, 재정상태, 대학 소재

지, 전공계열, 부모 교육수준, 거주상태의 기초통계에서 매우 유사하다. 단, 대학재학 중 상용직으로 근무할 의향이 있는 표본은 전체 표본보다 남성 비율이 높다.

〈표 5-1〉 대학재학 중 시간제 상용직 근무의향에 따른 표본 기초통계

		전체 표본	근로희망	
			표본	표본수 (명)
나이(만)		21.1(2.0)	21.2(2.1)	584
이수학기(학기)		3.6(2.1)	3.9(2.2)	584
부모소득(월평균, 천 원)		10,013(17,799)	10,209(18,878)	584
		비율(%)	비율(%)	표본수 (명)
재적 상태 (%)	재학	96.0	97.1	567
	휴학	4.0	2.9	17
대학 소재지 (%)	수도권 대학	60.2	58.9	344
	지방대학	39.8	41.1	240
전공계열(%)	인문계열	19.7	19.7	115
	사회계열	19.0	19.9	116
	교육계열	14.0	13.2	77
	공학계열	15.6	15.4	90
	자연계열	12.4	11.3	66
	예체능계열	14.4	15.8	92
	기타의약계열	5.0	4.8	28
성별(%)	남자	49.9	45.9	268
	여자	50.1	54.1	316
부모 교육수준 (%)	고졸 이하	32.7	32.9	192
	전문대 졸업	12.4	9.9	58
	4년제 졸업	43.0	42.8	250
	대학원 이상	11.9	14.4	84
거주상태(%)	부모님과 동거	74.3	72.6	424
	부모님과 미동거	25.7	27.4	160

주: 나이, 이수학기, 부모소득의 경우 각 셀은 해당 집단의 평균이며 괄호 안은 표준편차임.

자료: 필자가 직접 실태조사한 것임.

## 2. 근로희망 여부

<표 5-2>는 대학재학 중 시간제 상용직 근로희망 여부, 시간제 상용직의 업무가 전공과 무관할 경우 근로희망 여부, 중소기업에서 근로희망 여부, 근무 시 과목수 조정가능 여부에 대한 결과를 전체 학생, 부모의 교육수준으로 구분하여 제시한 결과이다. 대학재학과 병행하여 시간제 상용직 근무를 희망하는 대학생은 전체 표본의 40.7%인 584명이며, 이 학생들 중에는 대학재학 중 근로 경험이 없는 학생 716명의 31.8%(226명)도 포함되어 있다.

<표 5-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시간제 상용직으로 근무를 희망하는 학생의 74.5%는 이 일자리가 전공과 무관한 경우에도 근무할 의향이 있음을 밝혔다. 또한 이들 584명의 학생 중 71.6%는 대학재학 중 중소기업에서도 시간제 상용직으로 근무를 희망한다고 밝혔으며, 이들의 56.0%는 이러한 근무로 인해 필요시 수강과목 수를 조정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부모의 학력에 따라 구분한 결과 중 유의미하게 응답률에 차이가 있는 것은 중소기업에서도 근무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이다. [그림 5-1]~[그림 5-4]는 부모 교육수준에 따른 응답비율을 제시한다.

[그림 5-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시간제 상용직 일자리가 있을 경우 대학재학 중 근무할 의향이 있는 학생의 비율은 부모의 최종학력이 고졸이거나 2년제 대졸인 경우 38.6%로, 부모가 4년제 대졸인 경우의 42.4%보다 다소 낮지만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p=0.15$ ).

<표 5-2> 시간제 상용직 근로희망 대학생 비율

시간제 상용직	전체	부모고졸 (a)	부모대졸 (b)	a-b
근로희망 <sup>1)</sup>	40.7%	38.6%	42.4%	-3.8%p
전공무관시 근로희망 <sup>2)</sup>	74.5%	77.2%	72.5%	4.7%p
중소기업에 근로희망 <sup>2)</sup>	71.6%	75.2%	68.9%	6.3%p*
수강과목수 조정의향 <sup>2)</sup>	56.0%	58.8%	53.9%	4.9%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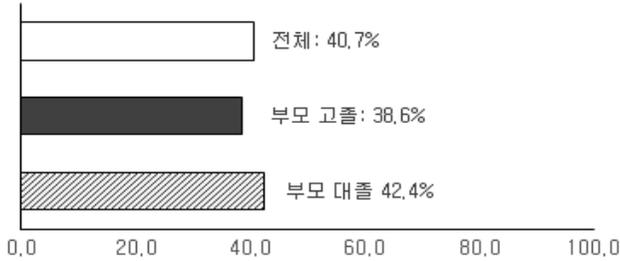
주: \*는 t 검정결과(t-test)가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1) 분석대상은 전체 표본인 1,434명임.

2) 분석대상은 시간제 상용직 근로를 희망하는 584명임.

자료: 필자가 직접 실태조사한 것임.

(그림 5-1) 대학재학 중 시간제 상용직 근무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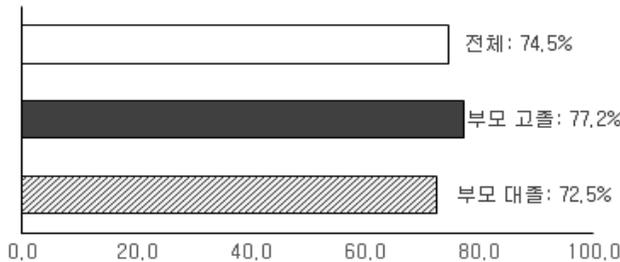


주: 분석대상은 전체 표본인 1,434명이며, 부모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자료: 필자가 직접 실태조사한 것임.

[그림 5-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부모가 고졸이거나 2년제 대졸인 학생 전체의 77.2%는 일자리가 전공과 무관해도 근무할 의향이 있다고 밝혀, 부모가 4년제 대졸인 학생 중 근무의향이 있는 학생의 비율인 72.5%보다 다소 높지만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p=0.1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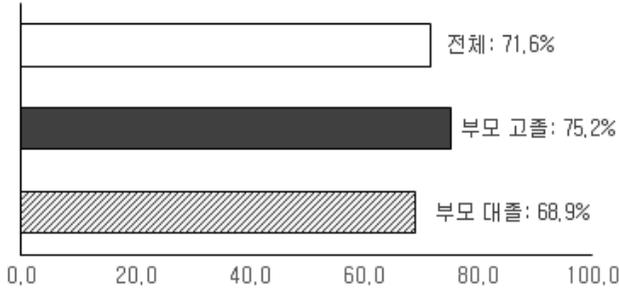
[그림 5-3]은 중소기업에서 시간제 상용직으로 근무를 희망하는지 여부를 보여주는데, 부모가 고졸이거나 2년제 대졸인 학생의 75.2%가 중소기업에서도 근무를 희망한다고 하여, 부모가 4년제 대졸인 학생 중 중소기업에서 근무를 희망하는 비율인 68.9%보다 그 비율이 6.3%p 높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p=0.09$ ). 즉 부모의 교육수준이 낮은 학생들이 대학재학 중 중소기업에서 근무할 의향이 더 크다.

(그림 5-2) 전공학습과 무관한 시간제 상용직 근무의향



주: 분석대상은 시간제 상용직 근무를 희망하는 584명이며, 부모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자료: 필자가 직접 실태조사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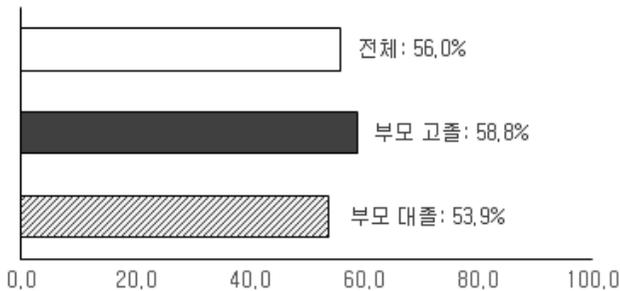
[그림 5-3] 중소기업에서 시간제 상용직 근무의향



주: 분석대상은 시간제 상용직 근로를 희망하는 584명이며, 부모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p=0.09$ ).  
자료: 필자가 직접 실태조사한 것임.

[그림 5-4]는 대학재학 중 시간제 상용직으로 근무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일자리와 병행하기 위해 필요시 학교의 수강과목 수를 조정할 의향이 있는지 설문한 결과이다. 부모가 고졸이거나 2년제 대졸 이하의 학력인 경우에는 58.8%가 수강과목 수를 조정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고, 부모가 4년제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 과목 수를 조정할 의향이 있는 학생은 53.9%로 응답비율에 4.9%p 차이가 나지만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p=0.24$ ).

[그림 5-4] 정규학기 중 근로 시 수강과목 조정의향



주: 분석대상은 시간제 상용직 근로를 희망하는 584명이며, 부모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자료: 필자가 직접 실태조사한 것임.

### 3. 희망 근로조건

본절의 이하 표는 대학재학과 병행 가능한 상용직 일자리에 근무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584명의 하위표본을 대상으로 희망하는 근로조건 등을 조사한 결과이다. <표 5-3>은 상용직 일자리에 근무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학생들이 희망하는 근무형태이다. 이 대학생 중 56.5%는 전일제 근무를 희망하고 43.5%는 시간제 근무를 희망한다. 구체적으로 26.5%는 수업이 없는 평일에만 전일제 근무를 희망하고, 30.0%는 수업이 없는 평일과 주말에 전일제 근무를 희망하며, 30.5%는 평일에만 시간제 근무를, 13.0%는 평일과 주말에 시간제 근무를 희망한다. 대학 소재지, 전공계열, 부모의 교육수준으로 구분해도 희망 근무형태에는 큰 차이가 없다.

<표 5-3> 대학재학 중 시간제 상용직 근무 시 희망 근무형태

(단위: %)

		전일제 근무		시간제 근무	
		수업이 없는 평일에만 근무	수업이 없는 평일과 주말에 근무	평일에만 근무	평일과 주말 모두 근무
전 체		26.5	30.0	30.5	13.0
지역	수도권	23.8	33.7	29.1	13.4
	지방	30.4	24.6	32.5	12.5
전공 계열	인문	29.6	30.4	30.4	9.6
	사회	26.7	28.4	29.3	15.5
	교육	19.5	45.5	23.4	11.7
	공학	24.4	24.4	35.6	15.6
	자연	28.8	31.8	25.8	13.6
	예체능	31.5	29.3	27.2	12.0
	기타의약	17.9	7.1	60.7	14.3
부모 학력	고졸	24.4	28.4	30.4	16.8
	대졸 이상	28.1	31.1	30.5	10.2

주: 분석대상은 상용직 일자리 근로를 희망하는 584명임.  
 자료: 필자가 직접 실태조사한 것임.

<표 5-4>는 시간제 상용직 일자리에 근무할 의향이 있는 대학생이 이러한 일자리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시하는 요소에 대한 설문결과이다. 비중이 높은 순서대로 보면 37.8%의 대학생은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30.5%는 급여, 10.8%는 업무내용, 8.4%는 대학재학 중 동일직장에서의 장기근무 가능 여부, 6.8%는 대학졸업 후 다른 직장으로의 이직에 기여하는지 여부, 5.7%는 대학졸업 후 동일직장에서 근속 가능한지 여부를 선택하였다. 68.3%의 학생이 대학재학 중 상용직 일자리에 장기근무가 가능하거나, 졸업 후에 동 직장에서 근속이 가능한지 혹은 이직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여부가 아니라 급여나 근로조건을 선택한 것은, 이들이 대학 재학기간 중 근로활동을 하는 주된 목적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인

<표 5-4> 대학재학 중 시간제 상용직 근무 시 가장 중요한 요소

(단위: %)

		급여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업무 내용	대학재학 중 동일 직장에서의 장기근무 가능 여부	대학졸업 후 동일 직장에서 근속가능 여부	대학졸업 후 다른 직장으로 이직에 기여 여부
전 체		30.5	37.8	10.8	8.4	5.7	6.8
지 역	수도권	23.5	41.3	11.9	9.0	5.5	8.7
	지방	40.4	32.9	9.2	7.5	5.8	4.2
전 공 계 열	인문	29.6	43.5	8.7	6.1	5.2	7.0
	사회	32.8	42.2	8.6	6.0	4.3	6.0
	교육	36.4	24.7	13.0	10.4	7.8	7.8
	공학	25.6	44.4	13.3	6.7	5.6	4.4
	자연	19.7	53.0	6.1	9.1	3.0	9.1
	예체능	33.7	23.9	16.3	12.0	6.5	7.6
	기타의약	39.3	21.4	7.1	14.3	10.7	7.1
부 모 학 력	고졸	32.8	35.6	11.2	6.8	6.0	7.6
	대졸 이상	28.7	39.5	10.5	9.6	5.4	6.3

주: 분석대상은 상용직 일자리 근로를 희망하는 584명임.  
자료: 필자가 직접 실태조사한 것임.

것을 알 수 있다. 여러 요소 중 급여나 근로조건을 선택한 비율은 수도권 대학 학생의 경우 64.8%이고 지방대 학생의 경우 73.3%로 지방대 학생이 더 높다. 취직 시 전공 일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예체능 및 기타의약 계열 학생들이 급여나 근로조건을 선택한 비율은 각각 57.6% 및 60.7%로 타 전공자보다 낮아 이들은 대학재학 중의 근로를 졸업 후 취업과 연결시키는 경향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부모의 학력수준으로 구분하면 급여나 근로조건을 선택한 비율에 거의 차이가 없다.

<표 5-5>는 대학재학 중 시간제 상용직으로 근무할 의향이 있는 대학생이 전일제로 근무할 경우 고졸 전일제 근로자에 비해 어느 정도의 급여를 희망하는지에 대한 조사결과이다. 이들은 평균적으로 전일제 고졸 근로자의 116.7%의 급여를 기대한다. 고졸 전일제 근로자보다 낮은 수준의 급여를 받아도 근무하겠다고 응답한 학생이 18.8%이다. 이 일자리가 전공과 무관한 일자리라고 특정하였음에도 81.2%의 학생이 전일제 고졸 근로자보다 높은 수준의 급여를 기대하는 것은, 이들의 업무가 전공과

<표 5-5> 대학재학 중 시간제 상용직 근무 시 고졸자 대비 희망 시급

(단위: %)

		100% 미만	100~150%	150~200%	200% 이상	평균(%)
전 체		18.8	59.2	16.1	5.8	116.7
지역	수도권	16.6	59.0	18.0	6.4	119.7
	지방	22.1	59.6	13.3	5.0	112.4
전공 계열	인문	24.3	58.3	13.9	3.5	109.7
	사회	17.2	60.3	16.4	6.0	119.1
	교육	15.6	61.0	11.7	11.7	121.3
	공학	18.9	64.4	12.2	4.4	113.4
	자연	22.7	54.5	18.2	4.5	114.9
	예체능	17.4	51.1	25.0	6.5	123.0
	기타의약	7.1	75.0	14.3	3.6	117.5
부모 학력	고졸	17.6	61.6	15.2	5.6	117.0
	대졸 이상	19.8	57.5	16.8	6.0	116.5

주: 분석대상은 상용직 일자리 근로를 희망하는 584명임.  
 자료: 필자가 직접 실태조사한 것임.

무관하더라도 유무형의 대학교육의 가치를 인정받을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학 소재지로 구분하면 수도권 대학 학생은 전일제 고졸 근로자의 119.7%를 기대하나 지방대학 학생은 112.4%를 기대하여 지방대학 학생의 희망 시급이 더 낮고, 이 차이는 t 검정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p=0.04$ ). 전공계열, 부모의 교육수준으로 구분한 희망 시급에는 큰 차이가 없다.

<표 5-6>은 대학재학 중 시간제 상용직으로 근무할 의향이 있는 대학생이 생각하는 적절한 주당 근로시간에 대한 조사결과이다. 평균적으로 대학생들은 대학생활과 병행하는 상용직 일자리에 주당 18.47시간 근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현재 이들이 월평균 80시간을 근무하는 점을 고려하면 대학생들은 현재 수준의 근로시간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수도권 대학 학생이 지방대 학생보다 희망하는 주당 근로시간이 한 시간 반가량 길고 이 차이는 t 검정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p=0.05$ ). 전공계열, 부모의 교육수준으로 구분한 희망 주당 근로시간에도 큰 차이가 없다.

<표 5-6> 대학재학 중 시간제 상용직 근무 시 희망 주당 근로시간

(단위: %)

		10시간 미만	10~20시간	20~30시간	30시간 이상	평균(시간)
전 체		19.2	30.1	30.8	19.9	18.47
지역	수도권	14.8	30.8	34.6	19.8	19.15
	지방	25.4	29.2	25.4	20.0	17.50
전공계열	인문	18.3	24.3	36.5	20.9	19.70
	사회	17.2	34.5	29.3	19.0	17.87
	교육	11.7	33.8	36.4	18.2	19.17
	공학	24.4	22.2	31.1	22.2	18.98
	자연	12.1	36.4	34.8	16.7	18.11
	예체능	28.3	31.5	17.4	22.8	17.30
	기타의약	21.4	32.1	32.1	14.3	17.00
부모학력	고졸	18.4	31.6	29.2	20.8	18.43
	대졸 이상	19.8	29.0	32.0	19.2	18.49

주: 분석대상은 상용직 일자리 근로를 희망하는 584명임.  
자료: 필자가 직접 실태조사한 것임.

<표 5-7>은 시간제 상용직 일자리에 근무할 의향이 있는 대학생이 생각하는 적절한 시급에 대한 통계이다. 이들은 평균 9,970원의 시급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들의 현재 평균 시급이 8,820원인 점을 고려하면 상용직으로 근무 시 임시직이나 일용직보다 13% 정도 높은 수준의 임금을 기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희망 시급은 수도권 대학 학생이 10,500원으로 지방대 학생이 희망하는 시급 9,200원보다 1,300원 높고 이 차이는 t 검정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p=0.01). 사회계열 전공자는 시급 11,220원을 희망하나 기타의약계열 전공자는 8,790원을 희망하여 전공별 희망 시급의 차이가 있다. 부모의 학력이 고졸이거나 2년제 대졸인 학생은 9,120원의 시급을 희망하나 부모의 학력이 4년제 대졸인 학생은 10,590원을 희망하여, 부모의 학력에 따라 희망 시급이 1,470원 차이가 나며 이 차이는 t 검정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p=0.01).

<표 5-7> 대학재학 중 시간제 상용직 근무 시 희망 시급

(단위: %)

		6천 원 미만	6천 원~ 1만 원	1만 원 이상	평균(천 원)
전 체		0.2	62.5	37.3	9.97
지역	수도권	0.3	55.8	43.9	10.50
	지방	0.0	72.1	27.9	9.20
전공 계열	인문	0.9	62.6	36.5	9.67
	사회	0.0	48.3	51.7	11.22
	교육	0.0	63.6	36.4	10.66
	공학	0.0	72.2	27.8	8.96
	자연	0.0	54.5	45.5	10.08
	예체능	0.0	71.7	28.3	9.46
	기타의약	0.0	75.0	25.0	8.79
	부모 학력	고졸	0.0	70.4	29.6
대졸 이상		0.3	56.6	43.1	10.59

주: 분석대상은 상용직 일자리 근로를 희망하는 584명임.  
 자료: 필자가 직접 실태조사한 것임.

<표 5-8>은 대학재학 중 시간제 상용직 일자리에 근무할 의향이 있는 대학생이 본인의 희망 임금을 지급하는 일자리가 있다면 얼마 동안 근무할 것으로 예상하는지에 대한 설문결과이다. 이들은 평균적으로 이러한 일자리에 대학재학 중 19.3개월 근무할 것으로 답해, 현재 이들이 평균적으로 1년에 1.4회 일자리를 변경하는 것과 비교하면 평균적으로 13%의 임금을 더 수령하는 상용직 일자리가 있다면 상당기간 근속할 의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학 소재지, 전공계열, 부모의 교육수준으로 구분한 희망 시급에는 큰 차이가 없다.

<표 5-9>는 시간제 상용직 일자리에 근무할 의향이 있는 대학생이 재학기간 중 상용직으로 근무할 때 재학기간이 얼마나 연장될 것으로 예상되는지에 대한 조사결과이다. 이들은 평균 14.6개월 졸업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했다. 연장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학 재학기간은 수도권 대학 학생이 13.6개월로 지방대 학생의 16.2개월보다 2.6개월 더 짧고 이 차이는 t 검정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p=0.01$ ). 기타의약계열 전공자가 재학

<표 5-8> 대학졸업 전 시간제 상용직 근무 예상기간

(단위: %)

		12개월 미만	12~24개월	24~36개월	36개월 이상	평균(개월)
전 체		16.6	40.6	28.3	14.6	19.3
지역	수도권	19.8	37.5	26.7	16.0	19.1
	지방	12.1	45.0	30.4	12.5	19.6
전공 계열	인문	14.8	33.0	32.2	20.0	21.3
	사회	14.7	45.7	31.0	8.6	18.2
	교육	26.0	33.8	28.6	11.7	17.9
	공학	13.3	42.2	24.4	20.0	21.0
	자연	16.7	43.9	21.2	18.2	18.9
	예체능	19.6	42.4	28.3	9.8	17.8
	기타의약	7.1	50.0	28.6	14.3	20.3
부모 학력	고졸	18.8	38.8	31.2	11.2	18.6
	대졸 이상	15.0	41.9	26.1	17.1	19.9

주: 분석대상은 상용직 일자리 근로를 희망하는 584명임.  
자료: 필자가 직접 실태조사한 것임.

〈표 5-9〉 시간제 상용직 근무 시 연장될 대학 재학기간

(단위: %)

		12개월 미만	12~ 24개월	24~ 36개월	36개월 이상	평균 (개월)
전 체		33.5	43.7	15.3	7.5	14.6
지역	수도권	38.3	42.4	13.0	6.3	13.6
	지방	26.4	45.6	18.7	9.3	16.2
전공 계열	인문	35.4	37.8	15.9	11.0	15.7
	사회	37.1	45.4	14.4	3.1	12.7
	교육	40.9	42.4	13.6	3.0	12.4
	공학	30.8	43.6	16.7	9.0	16.0
	자연	29.8	46.8	8.5	14.9	15.8
	예체능	26.5	45.6	22.1	5.9	15.1
	기타의약	23.1	53.8	7.7	15.4	18.8
부모 학력	고졸	31.2	43.4	18.0	7.4	15.11
	대졸 이상	35.1	43.9	13.4	7.6	14.31

주: 분석대상은 상용직 일자리 근로를 희망하는 584명 중 졸업을 희망한다고 응답한 451명임.

자료: 필자가 직접 실태조사한 것임.

중 근로로 졸업이 18.8개월 늦어질 것으로 답해 연장될 대학 재학기간이 가장 길었고, 부모의 학력으로 구분하는 경우 응답에는 큰 차이가 없다.

이 밖에도 대학을 졸업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답한 133명 중 77.4%는 대학재학 중 안정적인 일자리가 존재한다면 졸업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 제2절 노동시장에서의 대학생 근로자 수요

본 연구에서 저소득층 대학생의 대학졸업을 지원하는 방안의 하나로 제시한 대학재학 중 시간제 상용직 근무방안에 대해, 표본 대학생의 대략 40%가 근무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일자리에

대한 대학생들의 수요는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학졸업생도 취업난을 겪고 있는 시기에 대학재학생에게 이러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또는 노동시장에서 이러한 대학생의 시간제 상용직에 대한 수요가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대학생 근로자의 수요에 대한 노동시장의 전반적인 수요를 파악하는 것은 이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지만, 연구진은 한 개 기업과의 면담을 통해 상기 수요를 대략적으로 파악해 봤다.

## 1. 기업체 의견

### 가. 면담 기업체 관련 정보

연구진은 2016년 8월 22일(월) 경기도 광명시에 위치한 이케아 코리아 (IKEA Korea, 이하 이케아)의 인사담당자를 면담하였다. 이케아에는 ‘파트타임 정규직’이라고 칭하는 다수의 시간제 상용직 근로자가 근무 중이며, 이 직급은 상용직이지만 전일제가 아닐뿐더러 근무시간은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이 일자리 형태는 본사인 스웨덴 및 다른 국가의 지점에서도 동일하게 활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근로자는 근로계약 종료기간이 없어서 계약직으로 볼 수 없고 원한다면 평생근무가 가능하다. 근로를 처음 시작하는 근로자의 시급은 9천 원 정도이다. 물론 다수의 대학생들이 대학재학 중 이 일자리를 통해 근무하고 있다.

### 나. 대학생 근로자에 대한 수요

이케아 인사팀의 면담 결과 이케아의 대학생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적지 않았다. 인사팀 담당자에 의하면 이러한 시간제 상용직 근로자의 대다수는 주부이다. 하지만 이 주부들은 육아 등의 개인적인 이유로 선호하는 근무시간대가 평일 아이들의 수업시간으로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이케아는 늦은 저녁이나 주말에 근무할 직원확충이 필요해 근로시간이 보다 자유로운 대학생의 고용을 희망했다. 인사팀 담당자에 따르면 대학

생은 수업이 없는 평일에는 전일 근무를 희망하거나, 수업이 있는 평일에는 수업이 끝난 늦은 오후나 저녁시간 또는 주말에 근무를 희망하여 희망 근로시간대가 다양하다. 이는 <표 5-3>에 제시된 바와 같이 대학생의 26.5%는 수업이 없는 평일에만 전일제 근무를 희망하고, 30.0%는 수업이 없는 평일과 주말에 전일제 근무를 희망하며, 30.5%는 평일에만 시간제 근무를, 13.0%는 평일과 주말에 시간제로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본 연구의 조사결과와 별로 다르지 않으며, 대학생의 근로가능 시간은 매우 유동적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케아의 경우와 같은 서비스 및 판매업종 등에서 대학생 근로자에 대한 수요는 더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 2. 대학생 근로자 의견

### 가. 면담대상 인적사항

연구진은 2016년 8월 22일(월) 이케아에서 근무 중인 대학생 근로자 2인을 면담하였다. <표 5-10>은 면담한 대학생의 세부 인적사항이다.

<표 5-10> 면담 대학생 근로자 인적사항

근로자	성별	근무기간	업무	학교	학력	전공
A	여	1년 6개월	교환환불팀	단국대학교	4학년	공예과
B	남	4개월	교환환불팀	홍익대학교	3학년	경제학과

자료: 필자 작성.

### 나. 면담내용

이케아에서 파트타임 정규직으로 근무 중인 대학생 근로자를 면담한 결과, 이들은 기존에 가졌던 아르바이트 일자리에 비해서 이케아의 시간제 상용직 일자리에 더욱 만족한다. 면담한 대학생들은 대학교육과 일자의 병행이 그리 힘들지 않다고 평가한다. 두 명 중 한 명의 근로자는 졸업 후에도 이케아에서 계속 근무할 것을 희망하였다. 하지만 이들은

미래에 이직을 할 가능성도 있고, 이케아에서 계속 근무하더라도 마케팅 부서로의 이동 등을 목적으로 학사학위 취득을 희망한다. 구체적인 면담 내용은 아래와 같다.

#### 1) 근무시작 계기

A: 단기로 해야 할 일이 필요했는데 계약기간이 단기여서 지원했으며, 그 후 일에 만족해서 파트타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음.

B: 광명시에서 쭉 살았으며, 먼저 제대한 친구들이 이케아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었는데 일할 자리를 찾던 중에 그 친구들의 추천을 받아 파트타임 정규직으로 근무를 시작함.

#### 2) 일자리 평가

A: 편의점 등의 아르바이트보다 노동의 질이나 시간당 급여는 이케아가 더 낫다고 봄.

B: 동의함.

#### 3) 소득활동 목적

A: 돈을 벌기 위해서임.

B: 비슷한 이유임. 대학교 활동(대외활동) 및 사교 활동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므로 일을 하면서 체험도 하고 돈도 벌고자 하는 목적이었음.

#### 가) 구체적인 소득활동 목적

A: 생활하는 데 필요한 용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었음.

B: 학비뿐만 아니라 대학생활에 종합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일을 하게 되었음.

#### 4) 근무와 대학생활을 병행하는 어려움

A: 현재는 스케줄을 조정해서 학교 수업이 없는 날에만 출근하는데, 처음에는 학교 끝나고 회사로 오는 것이 힘들었음. 통학과 통근을

병행해야 했던 점이 힘들었음.

B: 일반학기 중에는 괜찮았지만, 시험기간에는 학업에 시간을 더 투자해야 되어서 힘든 점이 있었음. 하지만 이런 것은 처음부터 예상했던 점이라 적응은 되었음.

가) (B의) 시험기간 등 특수한 기간을 제외한 일반적인 어려움

B: 이케아는 추가근무를 시킨다거나 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학업에 집중하고 이케아에서는 근무시간에 맞춰 근무하고 그 외의 시간에는 다시 공부하면 되기 때문에 업무 때문에 학업이 추가로 지장을 받거나 하는 점은 없음. 하루에 주어진 시간은 정해져 있어 일하는 시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힘든 것이지 이케아이기 때문에 힘든 것은 아님.

나) (B의) 수강과목 수는 일하기 전과 같은지 여부

B: 20학점씩 계속 들고 있으며 동시에 주 20시간씩 계속 일하는 것도 괜찮음.

5) 선호하는 근무 형태

A: 학교가 없는 날만 전일 근무하는 것. 즉 선택해서 며칠 동안 근무하는 형태를 선호함.

B: 동의함.

가) 시험기간 근무 및 휴가사용 관련

A: 연차를 맞추어서 쓸 수 있으면 쓸 용의가 있지만, 스케줄의 경우 9주치가 미리 한꺼번에 나오고 시험기간은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이어서 이 부분은 지금까지 큰 어려움은 없었음.

6) 졸업 후 취직계획

A: 졸업하고 나서도 좀 더 이케아에서 근무할 의향이 있음.

B: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음.

## 7) 전공교육이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시는지?

A: 솔직히 전공이 의미는 없다고 봄. 편입생이어서 아직 학교에 들어간 지는 2년이 안 되었는데, 전문대 졸업 후 직장에 다니다가 4년제 졸업자와 급여 차이가 큰 것을 느끼고 알게 모르게 무시당하는 것도 있어서 편입을 결정하였음. 처음 이케아 입사 당시에는 용돈을 벌기 위해서 다녔지만 다니다 보니 동종업계(의류 쪽 물류)로 돌아갈 이유를 못 느꼈음.

## 8) 경력에 대한 계획 및 최종적인 취업 목표

A: 경력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케아를 거쳐 가는 직장으로 봐야 경력이 될 것인데,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음. 현재는 이케아에서 계속 근무하고 싶음.

B: 이케아에서 업무를 시작하게 된 의미는 대학생활에서 필요한 등록금뿐 아니라 사회진출에 필요한 것들을 배우고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시작하였음. 이케아에서 더 오래 있겠다든지 돈만 벌고 나가겠다든지 구체적으로 생각한 적 없음. 경제학을 전공하였고 그 분야로 나가고 싶은 마음은 아직 있으므로 조금 더 생각이 필요함.

## 9) 학사학위의 취득 목적

A: 현재 생각은 이케아에서 계속 일하고 싶지만 추후 이직하고 싶은 생각은 들 수도 있음. 급여 차이 때문에 전문대 졸업 후 4년제로 편입학했고 이케아의 파트타임 정규직은 학력에 따른 시급차이가 없지만 이케아를 다니기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는 것은 학교에 다니는 의미가 없어진다고 생각함. [즉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학위를 취득하려는 것인지?] 네.

B: 이케아에 단기로 근무하기 위해서 들어왔지만 계속 있겠다고 한다면 확실히 학위를 취득하는 것보다는 근무시간을 늘려 이케아 내에서 더 안정적으로 커리어를 쌓아가는 것이 더 나을 듯함. 전공과 관련된 마케팅 분야에서 근무하고 싶기도 함. 이직하려면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것이 메리트가 있다고 봄. [그것이 학사학위를 취득하

려는 목적인지?) 맞음.

### 제3절 소 결

본 연구에서 진행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당수의 대학생은 대학 재학 중 시간제 상용직으로 근무할 의향이 있으며 이들이 기대하는 급여나 근로시간, 근로형태 등은 이들의 현재 일자리에 비해서 큰 차이가 없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학생 근로자는 현재와 같이 한 일자리에 단기간 근무하고 다른 유사한 일자리로 옮기는 것보다는 현재보다 조금 더 나은 조건하에 한 일자리에 장기간 근무할 의향이 있다.

15~29세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9.7%, 통계청 발표 2016년 5월 고용동향 기준)을 고려하면 대학졸업자의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대학생 일자리를 개선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해 보인다. 하지만 대학생들이 현재 종사하고 있는 기존 일자리를 재구성하여 이들이 보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것은 분명 가능하며, 이러한 일자리를 통해 대학재학 중 경제적인 이유로 소득활동을 해야 하는 학생이 학업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보다 안정적으로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일본 등에서도 청년층과 학생은 판매 및 서비스업종 근로자의 상당수를 차지한다. 이러한 대학생이 주로 참여하는 판매 및 서비스업종 이외에도 적지 않은 중소기업이 구인난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중소 제조업체에서도 대학생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대학생 일자리를 개선하여 대학교육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대학졸업을 가능하게 하여 대학교육이 계층이동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여행이나 소비 등의 목적으로 단시간 소득활동을 하는 모든 대학생이 아니라 저소득층 대학생 등 일부 학생이 이러한 대학생 노동시장 개선정책의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집중해야 할 것이다.

본장에서 대학생 노동시장의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시간제 상용직 일자리 창출 이외에도 대학생 노동시장의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존재할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학생, 간병인 등 시간제 일자리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일·생활 양립을 돕기 위해서 탄력적이며 예측 가능한 근무시간을 보장하는 법(Schedules that Work Act<sup>22)</sup>)을 제정하려고 추진 중이다. 이 법안에는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근무 스케줄을 2주 전에 알려주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이러한 법은 특히 시간제 근로를 병행하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측된다(Ben-Ishai, 2014).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대학생들이 유사한 업종(예, 판매직)의 일자리를 자주 바꾸는 이유 중 하나는 이들의 개인사정과 업무시간이 자주 겹치지만 이들은 개인적인 이유로 휴가 등을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시간제 근로자의 근무 스케줄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알려주는 등의 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대학생 근로자의 일자리 지속성을 유지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

22) 2015년에 유사한 법이 샌프란시스코에서 통과되었으며 2016년에는 시애틀에서도 이러한 법이 통과되었다(Connecticut Law Tribune, *Could Predictive Scheduling Spread Across the Nation?*(<http://www.ctlawtribune.com/id=1202774718333/Could-Predictive-Scheduling-Spread-Across-the-Nation?mcode=1202615402746&curindex=2>, 보도일: 2016. 12. 14, 접속일: 2016. 12. 14)).

## 제 6 장

### 결 론

본 연구는 중위권 대학생의 대학교육에 대한 인식 및 근로실태를 파악하고, 가족배경 등의 개인적 특성이 대학교육에 대한 인식과 근로실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대학교육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본 연구의 실태조사에 참가한 중위권 대학생의 3/4은 졸업 후 임금이나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대학에 진학하지 않았다. 또한 부모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임금 및 근로조건이 향상보다는 사회인으로서 필요한 자질 양성을 위해 대학에 진학하였다. 따라서 현재 대졸자의 높은 실업률 같은 노동시장 지표는 바탕으로 이들의 대학진학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는 힘들다. 한국 사회에서 고졸자는 사회생활에 필요한 자질을 양성하거나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으며, 고졸자 노동시장은 한정되어 있고 일자리의 질이 낮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노동시장과 교육은 상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고졸 근로자의 낮은 일자리의 질 등 노동시장의 문제로 인하여 고등학교 졸업 후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는 인력을 대학에서 흡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졸자 노동시장의 문제로 인해 대학진학을 결정한 학생이 고등학교 졸업 후 노동시장에 바로 참여하는 것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고졸자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지만 이는 장시간에 걸쳐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 진행한 대학생 근로실태 관련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학생

의 과반수가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것과 같이 대학생들은 활발히 노동시장에 참여한다. 또한 대학생의 소득활동의 목적과 일자리의 질은 가족배경과 관계가 있다. 부모의 학력이 4년제 대졸 이상인 대학생은 부모의 학력이 2년제 대졸이거나 고졸 이하인 학생에 비하여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대학재학 중 소득활동을 활발히 하지 않아 근로기간도 짧고 이직도 잦지 않지만,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급여나 업무내용 측면에서 더 나은 일자리에 종사한다. 부모의 교육수준이 낮은 학생은 학업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대학재학 중 소득활동을 하지만,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은 학생은 여행, 소비, 창업, 독립 등을 위한 비용 마련을 위해 대학재학 중 소득활동을 한다. 또한 지방대생일수록 소득활동에 활발히 참여하지 않고 소득활동에 종사하더라도 그 일에 대학교육이 필요하거나 전공학습에 기여할 확률이 낮다. 즉 가족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낮은 학생일수록 대학교육의 경제적 비용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일자리를 전전하며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학생이 예상하는 대학교육의 비용과 혜택은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대학생이 인식하고 있는 고졸자 대비 대졸자의 생애 임금수준은 현실의 노동시장을 반영하고 있고, 이들이 인식하는 대학교육의 비용도 실제로 대학교육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지방대생의 경우 지방의 제약된 고용시장을 반영하는 때문인지 졸업 후 대학교육이 노동시장에서 가져올 경제적 혜택에 대해서 수도권 지역 대학생들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예상한다. 여러 가지 지표를 바탕으로 보면 대학생이 인식하는 대학교육의 비용 및 혜택은 매우 현실적인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교육의 지나치게 높은 비용은 저소득층의 대학진학을 저해하고, 진학을 한다고 하더라도 졸업 후에도 학자금 대출 상환 등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하고 있다. 대학 등록금을 인하하는 방법 이외에 현재 대졸자가 마주하고 있는 대학교육의 높은 비용을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유럽식의 대학생 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대학진학률이 높은

나라에서 이러한 방안은 상당한 사중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다. 둘째, 대학생들의 노동시장 참여가 일반적인 현상인바, 이들이 대학생활과 병행할 수 있는 소득활동을 통해서 대학교육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두 번째 정책적 대안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중위권 대학 학생의 40%는 실제로 대학재학 중 급여가 낮더라도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다면 이 일자리가 전공과 무관하더라도, 또는 중소기업에서라도 근무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현재 대학재학 중 소득활동을 하는 학생이 전체의 50%이므로, 이 학생들의 대다수가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또한 졸업을 포기할 예정이라고 답한 중위권 대학 학생의 77.4%는 대학재학 중 안정적인 일자리가 존재한다면 졸업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따라서 대학생이 참여하는 일자리의 질을 높여 이들이 학업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은 경제적인 이유로 대학진학 여부를 고민하는 저소득층 학생의 대학진학이 좌절되지 않도록 도울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일 것이다. 물론 이러한 근로활동이 졸업 후 취업 등의 장기적인 노동시장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더욱 바람직할 것이며, 본 연구의 분석에 따르면 취업확률에 대한 이러한 긍정적인 영향이 존재한다.

높은 대학진학률을 너무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힘든 주된 이유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학생들의 대학 진학의 목적이 노동시장에서의 경제적 혜택 때문만으로 한정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로봇과 인공지능 등에 의한 산업구조의 변화가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킨다면 미래에는 대학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커질 여지도 있다. 로봇과 인공지능에 의해 대체 가능성이 높은 저숙련 일자리의 임금은 떨어지는 반면 대체 가능성이 낮은 고숙련 일자리의 임금은 상승하며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학계의 의견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대체 가능한 저숙련 일자리를 가진 근로자가 고도의 전문기술을 요구하는 일자리는 아니더라도 양질의 다른 직업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고등교육의 필요성이 커질 수 있다. 즉 기술진보는 숙

런편향적으로 이루어지고 노동시장에서 근로자에 대한 수요는 직무에 필요한 기술수준에 따라 양극화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양극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고등교육이 필요한 것이다(Goldin & Katz, 2010). 또한 Frey & Osborne(2013)은 근로자가 미래 노동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창의력 및 사회적 지능 함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대학교육은 근로자의 창의력 및 사회적 지능을 함양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최근 대학교육에서 인문학적 소양이 강조되는 이유도 이러한 이유이다. 예를 들어, 미국 하버드대학의 Faust 총장은 이러한 취지에서 대학은 교양교육을 통해 “첫 직업이 아니라 여섯 번째 직업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Zakaria, 2016).

마지막으로, 대학생의 노동시장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이들의 근로를 통한 소득활동이 대학교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역할도 하지만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및 다양한 고용형태의 등장으로 대학생 노동력이 앞으로는 사회적으로 더욱 필요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핵심생산인구(25~49세)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7년 연속 감소하고 있으며, 이러한 생산인구 감소는 앞으로 가속화될 예정이다. 생산인구 감소는 19~24세 젊은 청년층을 활용하면 일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나, 현재 우리 사회에서 청년층의 대부분은 학교에 묶여 있다. 이승렬(2015)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5년 15~29세 인구의 33.1%는 고등학교에, 22.3%는 4년제 대학에(15.9% 재학 중, 4.3% 휴학 중, 2.1% 중퇴) 소속되어 있다. 전문대에 소속된 인구까지 감안하면 2015년 15~29세 인구의 30%가량이 대학교에 소속되어 있다. 대학을 졸업했거나 대학원에 진학 중 혹은 졸업한 15~29세의 인구는 전체의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즉 15~18세 인구의 대다수가 고등학생인 사실을 감안하면 19~29세 인구의 60%가 대학교에 묶여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취업난 때문에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관심이 적지만 사회가 고령화되면 이들 노동력의 중요성이 대두될 것이다. 물론 이는 대학진학 인구비중이 감소하면 일부 해결될 것이나 미리 대학생을 적절히 활용하는 노동시장 정책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Gig economy 및 공유경제의 활성화 등과 함께 플랫폼 노동 혹은

클라우드 워크 등의 다양한 고용형태가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일자리에  
 는 관련 기술을 잘 이용하고 새로운 변화에 적응이 빠른 젊은 노동자가  
 필요할 수 있다. 물론 이런 고용시장 변화의 장점을 활용하고 대학생 근  
 로자의 노동력이 악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요약하면 현재 대학생은 예전과 같이 더 높은 임금과 더 나은 근로조  
 건을 위해서만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다. 이들은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대학에 진학하고 있고 이들의 대학교육에 대한 혜택과 비용에 대한 기대  
 치는 현실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교육의 높은 비용과 일자리 부  
 족으로 이들은 대학재학 중 또는 대학졸업 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주요 결과에 따르면 대학생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활발하게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대학생의  
 소득활동은 대학교육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며 졸업 후 취업에  
 도 도움이 된다. 하지만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시장의 질은 낮다.  
 대학생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것은 단기적으로 이들의 대학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해결하고 장기적으로는 졸업 후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것을 돕는다. 사회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정책은 특히 경제적인 이유로  
 대학교육을 포기할 수도 있는 학생들의 대학교육 및 졸업 후 대졸자 일  
 자리로의 진입을 가능하게 하여 사회양극화가 더 심화되는 것을 예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사회적 배려를 통해 고등교육을 받은 양질의 근  
 로자가 양성되면 궁극적으로는 미래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비하는 데 기  
 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사업체 규모, 학력별 통계」, 각 연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8&tblId=DT\\_PAY0004&conn\\_path=I2](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8&tblId=DT_PAY0004&conn_path=I2)(접속일: 2016. 11. 21).
- 교육부·한국개발연구원, 『교육통계연보』, 각연도.
- 구인회·김정은(2015), 「대학진학에서의 계층격차: 가족소득의 역할」, 『사회복지정책』 42(3), pp.27~49.
- 김경근·변수용(2006), 「한국사회에서의 상급학교 진학 선택 결정요인」, 『교육사회학연구』 16(4), pp.1~27.
- 김성식(2008), 「학생 배경에 따른 대학진학 기회의 차이-성별, 가정배경, 지역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아시아교육연구』 9(2), pp.27~47.
- 김세움·김진영·조영준(2011), 『학력별 노동시장 미스매치 분석과 교육제도 개선 과제: 고등교육기관 및 전문계고를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 김안나·김성훈(2010), 「대학생 선택에 미치는 학자금지원의 영향-휴학에 대한 영향을 중심으로」, 『교육과학연구』 41(2), pp.163~180.
- 김주섭(2003), 「재학중 일 경험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제4차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I』, 한국노동연구원.
- \_\_\_\_\_ (2005), 「청년층의 고학력화에 따른 학력과잉 실태 분석」, 『노동정책연구』 5(2), pp.1~29.
- 김지하·이병식(2009), 「대학생 학업성취도에 대한 학자금 지원의 영향 분석: 직접효과, 소득분위별 차이와 상호작용 효과」, 『교육행정학연구』 27(3), pp.447~470.
- 김현동(2013), 「대학재학 기간의 휴학경험과 직장생활」, 『노동정책연구』 13(3), pp.125~151.
- 김홍균·박승준(2016), 「분위별 교육투자수익률 추정」, 『재정학연구』 9(1),

pp.1~25.

남기곤(2012), 「“대학진학은 서울로”, 합리적인 선택인가?-도구변수를 이용한 분석 결과-」, 『경제발전연구』 18(1), pp.81~114.

\_\_\_\_\_ (2013), 「전문대학 교육투자 수익률의 시계열 추세」, 『교육재정경제연구』 22(2), pp.29~52.

남기곤·윤진호·이시균(2010), 「대학 재학 중 활동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효과」, 『경제발전연구』 16(1), pp.143~172.

대학알리미, 「대학 대학재정/교육비: 등록금 현황」, 각연도, <http://academyinfo.go.kr/>(접속일: 2016. 11. 28).

문준희·김성환·김민준(2014), 「저소득층 청소년의 대학진학선택 요인에 대한 질적연구 -근거이론의 적용」, 『사회과학논총』 33(2), pp.133~155.

박성재·반정호(2006), 「대졸 청년층 취업준비노력의 실태와 성과」, 『한국인구학』 29(3), pp.29~50.

박소영(2015), 「학력의 교육투자수익률과 학력내 불평등의 추이 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24(1), pp.167~192.

박소현·유종순(2013), 「교육투자수익률: 패널자료를 이용한 분석」, 『국제경제연구』 19(1), pp.135~160.

박지윤·김병주(2012), 「대학생의 취업사교육 참여와 사교육비 지출」, 『교육재정경제연구』 21(1), pp.285~308.

박현진·김영화(2010), 「가정의 문화자본과 사회자본이 영어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잠재성장모형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20(4), pp.55~82.

백일우·김동훈(2013), 「교육경제학적 관점에서의 교육투자수익 분석-더미 도구변수를 이용한 학교급별 수익률 추정-」, 『교육재정경제연구』 22(1), pp.93~111.

서현주(2016), 「직업가치관의 변화 및 차이 분석」, 『고용이슈』 9(4), 한국고용정보원.

안준기·배호중(2011), 「대학 재학시절 근로활동이 노동시장 이행에 미치는 영향: 생계형 근로를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21(4), pp.149~180.

- 윤주영·조민호(2015), 「대학생 경제적 자립경향이 미취업 기간과 초기 임금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5(1), pp.165~192.
- 이병희(2003), 「재학 중 근로경험의 실태와 노동시장 성과」, 『노동경제논집』 26(1), pp.1~22.
- 이성은·이상돈·백종면(2016), 「등록금 조달방법과 근로시간, 학습시간, 학업성취도 관계 분석」, 『학국교육문제연구』 34(2), pp.1~25.
- 이승렬(2015),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과 사회적 독립 과정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이용관(2016), 「아버지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대학생 자녀의 시간사용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논총』 31(1), pp.159~190.
- 이정미·한유경·최정윤·김병주(2009), 「내부수익률법에 의한 계열별 대학교육 투자수익률 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18(2), pp.27~51.
- 이찬영(2012), 「4년제 대학생의 재학 중 근로와 교육성과」, 『직업능력개발연구』 15(3), pp.1~25.
- 장수명(2002), 「대학교육의 경제학」, 『노동정책연구』 2(1), pp.47~79.
- 정기덕·조민호(2016), 「재학 중 일자리 경험이 취업성가에 미치는 영향 연구: 임금과 직무불일치 해소 효과를 중심으로」, 『2016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553~576.
- 정지선·김훈호(2009), 「대학생의 사교육 참여 및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18(3), pp.89~122.
- 정지선·이수정·신정철(2011), 「대졸청년층의 구직과정 및 취업의 질적 수준 분석: 전공계열별 차이를 중심으로」, 『직업능력개발연구』 14(3), pp.53~78.
- 정한나(2016), 「재학 중 근로경험 유형에 따른 근로자 특성 및 노동시장 성과 차이」, 『고용이슈』 9(3), 한국고용정보원.
- 조우현(2004), 「아버지 학력과 노동시장 불평등」, 『노동경제논집』 27(2), pp.67~89.
- 조운서(2013), 「대학명성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 분석-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교육재정경제연구』 22(1), pp.185~209.

- 채구목(2007), 「신규대졸자의 취업 및 임금수준 결정요인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59(4), pp.35~61.
- 채창균(2016), 「대학 졸업유예의 실태와 정책 과제」, 『KRIVET Issue Brief』 108,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최기성(2015), 『대졸 청년층의 교육투자 및 편익 연구』, 한국고용정보원.
- 최문경·이기엽(2008), 「대학졸업에서 첫 직장까지」, 『직업능력개발연구』 11(3), pp.23~48.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교육정도별 경제활동인구」, 각 연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003&conn\\_path=I3#](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003&conn_path=I3#)(접속일: 2016. 12. 14).
- \_\_\_\_\_,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성별 휴학경험유무, 휴학사유, 평균휴학기간(대졸자)」, 각 연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E9050&vw\\_cd=MT\\_ZTITLE&list\\_id=B1A\\_18&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E1#](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E9050&vw_cd=MT_ZTITLE&list_id=B1A_18&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E1#)(접속일: 2016. 11. 07).
- \_\_\_\_\_,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성 및 학제별 대학졸업소요기간」, 각 연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E9049&conn\\_path=I2](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E9049&conn_path=I2)(접속일: 2016. 11. 21).
- \_\_\_\_\_, 「사회조사: '학생의 기대교육수준 및 목적」, 각 연도, [http://kois.kr/common/meta\\_onedepth.jsp?vwcd=MT\\_ZTITLE&listid=D21](http://kois.kr/common/meta_onedepth.jsp?vwcd=MT_ZTITLE&listid=D21)(접속일: 2016. 11. 07).
- \_\_\_\_\_(2015), 「2015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IV)」.
- \_\_\_\_\_(2016), 「2016년 5월 고용동향」.
-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
- \_\_\_\_\_, 「청년패널(YP2007)」, 각 연도.
- 한국교육개발원(2015), 『2015 교육통계 분석자료집(고등교육·취업통계편)』.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 Implications for Employment and Earnings,” O. Ashenfelter and D. E. Card (eds.), *Handbook of Labor Economics* Volume 4, Amsterdam : Elsevier.
- Autor, D.(2010), “The Polarization of Job Opportunities in the U.S. Labor Market : Implications for Employment and Earnings,” *Community Investment* 23(2) pp.11 ~16.
- Ben-Ishai, L.(2014), *Job Schedules that Work for Students*, Washington, DC : Center for Law and Social Policy.
- Frey, C. B. and M. A. Osborne(2013), “The Future of Employment: How Susceptible Are Jobs to Computerisation?,” Oxford Martin School Working Paper.
- Goldin, C. and L. F. Katz(2010), *The Race Between Education and Technology*, Cambridge, MA :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 OECD(2015), *Education at a Glance 2015 : OECD Indicators*, Paris : OECD Publishing.
- Zakaria, F.(2016), *In Defense of a Liberal Education*, New York City, NY : W. W. Norton & Company.

[부록 1] 기타 자료 통계 및 연구결과

<부표 1> 연도별·지역별 대학등록금 및 입학금

(단위: 천 원)

지역	대학명	연 등록금			입학금		
		2014	2015	2016	2014	2015	2016
수도권	A	7,589	7,594	7,604	992	992	992
	B	7,117	7,117	7,116	1,007	998	998
	C	7,930	7,936	7,939	1,024	1,024	1,024
	D	8,133	8,132	8,129	938	938	938
	E	7,789	7,802	7,820	883	883	883
	F	8,184	8,183	8,353	996	996	996
	G	7,686	7,685	7,668	928	928	928
	H	7,790	7,790	7,790	990	990	990
	I	7,804	7,804	7,801	954	954	954
	J	9,099	9,108	9,113	880	880	880
	K	7,746	7,746	7,746	870	870	870
	L	4,779	4,755	4,731	394	392	390
지방	M	7,091	7,091	7,090	704	702	700
	N	6,684	6,699	6,719	791	791	791
	O	7,141	7,140	7,140	708	708	708
	P	6,856	6,854	6,848	570	570	570
	Q	6,745	6,776	6,811	634	634	634
	R	7,080	7,107	7,133	700	700	700
	S	6,458	6,458	6,458	520	520	520
	T	4,140	4,153	4,168	181	181	181
평균		7,192	7,197	7,209	783	783	782

주: 표본대학(익명처리) 연도별 연 등록금 평균.  
 자료: 대학알리미, 「대학 대학재정/교육비: 등록금 현황」, 각 연도 자료<sup>23)</sup>를 바탕으로 표본 각 대학의 등록금을 추출하여 저자가 계산하였음.

23) <http://academyinfo.go.kr/>(접속일: 2016. 11. 28).

〈부표 2〉 연도별·지역별 평균 대학등록금 및 입학금

(단위: 천 원)

	연 등록금 평균 <sup>1)</sup>			연 등록금 및 입학금 <sup>2)</sup>		
	수도권	지방	평균	수도권	지방	평균
2014	7,637	6,524	7,192	8,542	7,125	7,975
2015	7,638	6,535	7,197	8,542	7,136	7,980
2016	7,651	6,546	7,209	8,555	7,147	7,991
평균	7,642	6,535	7,199	8,546	7,136	7,982

주: 1) 표본대학 20개 등록금 평균.

2) 연 등록금 평균과 입학금의 합.

자료: 대학알리미, 「대학 대학재정/교육비: 등록금 현황」, 각 연도 자료<sup>24)</sup>를 바탕으로 표본 각 대학의 등록금을 추출하여 저자가 계산하였음.

〈부표 3〉 연도별 평균 4년제 대학 졸업 소요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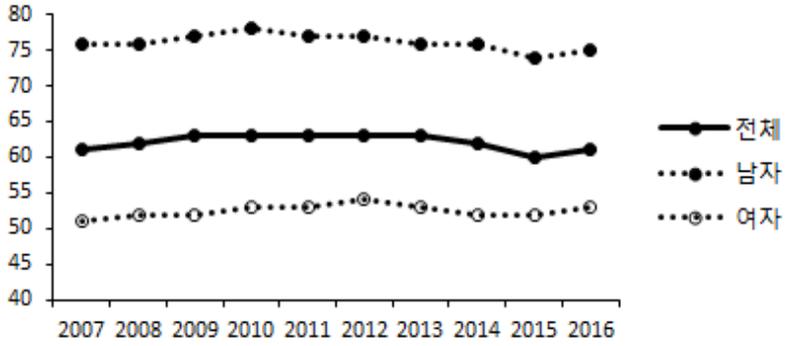
(단위: 월)

	4년제 대학 졸업 소요기간		
	전체	남자	여자
2007	61	76	51
2008	62	76	52
2009	63	77	52
2010	63	78	53
2011	63	77	53
2012	63	77	54
2013	63	76	53
2014	62	76	52
2015	60	74	52
2016	61	75	53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성 및 학제별 대학졸업소요기간」, 각 연도<sup>25)</sup>를 바탕으로 저자가 재구성함.24) <http://academyinfo.go.kr/>(접속일: 2016. 11. 28).25)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E9049&conn\\_psth=I2](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E9049&conn_psth=I2)(접속일: 2016. 11. 21).

(부도 1) 성별 4년제 대학생의 졸업 소요기간

(단위 : 월)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성 및 학제별 대학졸업소요기간」, 각 연도를 바탕으로 저자가 재구성함.

〈부표 4〉 대학교육의 편익 및 비용 관련 선행연구

저자 (연도)	구분	표본	분석자료	대학교육 편익 및 비용 등
최기성 (2015)	내부 수익률	20~65세 남녀	경제활동 인구조사 대졸자직업 이동경로조사 고졸자 취업진로조사	교육편익: 47,305만 원 교육비용: 13,339만 원 (직접교육비 2,721만 원 및 간접교육비 10,618만 원) 투자수익률 7.48%
이정미, 한유경, 최정윤, 김병주 (2009)	내부 수익률	18~65세 남녀	경제활동인구조사 설립유형별 등록금 및 사교육비: 직접조사)	교육수익: 약 36,076만 원 교육비용: 약 7,233만 원 (직접교육비 3,585만 원 및 간접교육비 3,648만 원) 투자수익률: 남자 6.65%, 여자 7.38%
장수명 (2002)	회귀 분석	15세 이상 남녀	노동패널	월 임금 프리미엄 1980년 이전 입학: 34.4% 1981~95년 입학: 28.4% 1996년 이후 입학: 14.8%(유의하지 않음) 시간당 임금 프리미엄 1980년 이전 입학: 44.8% 1981~95년 입학: 37.5% 1996년 이후 입학: 25.2%
남기곤 (2013)	Mincer	25~59세 남녀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 조사	투자수익률: 남자 10%, 여자 13%
박소현, 유종순 (2013)	Mincer	15세 이상 남녀	노동패널	투자수익률 일반: 12.2% 재교육: 9.5~11.7%
백일우, 김동훈 (2013)	Mincer	15세 이상 남녀	노동패널	투자수익률: 7.69%
박소영 (2015)	Mincer	15~64세 남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투자수익률: 약 10%
김홍균, 박승준 (2016)	Mincer	2007: 평균 40.6세 2014: 평균 43.9세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투자수익률: 11.1%

자료: 필자 작성.

[부록 2] 실태조사 설문지

**대학교육의 선택과 노동시장 성과 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국무조정실 산하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 의뢰를 받은 설문조사 전문업체인 (주)코리아데이터네트워크입니다.

본 설문조사의 목적은 대학생들이 인식하는 대학교육의 노동시장에서의 혜택과 비용 및 근로실태를 파악하고, 대학생의 신분으로 어떠한 고용시장에 참가할 의향이 있는지 등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본 설문은 총 40여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답변에는 15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첫 다섯 문항을 통해 설문에 참여가능한지 여부가 결정되며, 설문에 끝까지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소정의 상품(상품권)이 제공됩니다.

본 조사결과는 향후 필요한 대학교육 및 청년층 대상 고용정책의 방향을 마련하는데 있어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o PRG: 2, 3, 4, 5번 이전 파트항목으로 돌아가거나 재선택할 수 없음**  
**성별 quota 체크; 각 문항 당 한 개의 항목만 선택 가능**

1. 학교 명	prefill		
2. 소속학교 구분	① 4년제 대학	② 대학원(☑조사종료)	
3. 재적 상태	① 재학 ② 휴학 ③ 중퇴	④ 졸업(☑조사종료)	
4. 향후 소득활동 희망여부	① 예	② 아니오(☑조사종료)	
5. 전공 계열	① 인문계열 ② 사회계열 ③ 교육계열 ④ 공학계열 ⑤ 자연계열 ⑥ 예체능계열 (의약계열 중) ⑦ 의학, 치의학, 한의학, 약학, 간호학(☑조사종료) ⑧ 보건학, 재활학, 의료공학 등		
6. 입학 연월	년 월(드랍박스 처리)		
7. 총 이수학기	학기(드랍박스 처리, 최소 0, 최대 20)		
8. 졸업 예정여부	① 예 → 9a으로	② 아니오 → 9b으로	
9a. 졸업 예정연월	년 월(드랍박스 처리)		
9b. 편입 희망여부	① 예	② 아니오	
10. 출생 년도	년(드랍박스 처리)		
11.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12. 병역 관련	① 병역의무이행함 ② 병역의무이행예정임 ③ 해당사항 없음		
13. 월 평균 부모님의 소득수준(세금을 포함한 총 금액, 본인 소득 제외)	백만원 <b>To PRG: 최소 0, 최대 100</b>		
14. 부모님의 교육수준(아버지와 어머니 중 높은 학력 선택)	① 중학교 졸업 이하 ② 고등학교 졸업 ③ 전문대학 졸업 ④ 4년제 대학 졸업 ⑤ 대학원 이상(석사 이상)		
15. 부모님과의 동거여부	① 예(아버지, 어머니, 혹은 두분의 거주지에서 학교까지 통학 가능함) ② 아니오(아버지, 어머니, 혹은 두분의 거주지에서 학교까지 통학이 불가능함)		
16. 이메일 연락처			
면접원		조사 일시	2016년 월 일

## A. 대학교육의 예상 혜택 및 비용

**To PRG: 보기 로테이션**

A-Q1. 귀하께서 생각하는 대학교육의 가장 큰 혜택은 무엇입니까(고졸자 대비)?

[1개 선택]

- 1) 취직시 임금 및 근무조건의 향상
- 1) 사회생활에 필요한 인적 네트워크 형성
- 1) 사회인으로서 필요한 자질양성(예, 시민의식 등)
- 1) 고졸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서 자유로움

A-Q2. 귀하께서 대학 졸업 후 희망하는 취업형태는 무엇입니까?

[1개 선택]

- 1) 임금근로자
  - ▶ 회사 또는 개인(가족 포함)에 고용되어 보수를 받고 일한다(직장, 아르바이트 등)
- 2) 자영업자/고용주
  - ▶ 내 사업을 한다(개인사업, 프리랜서, 가게, 농림수산업, 노점상 등)

A-Q3. 귀하께서 대학 졸업 후 취업 시 희망하는 근로시간 형태는 무엇입니까? [1개 선택]

- 1) 시간제 근로
  - ▶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로 일하거나, 근로시간이 주 35시간 미만인 경우
- 2) 전일제 근로
  - ▶ 시간제 근로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

**To PRG: 최소 20, 최대 100**

A-Q4. 귀하는 대학 졸업 후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소득활동을 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만 \_\_\_\_\_세 시작해서 만 \_\_\_\_\_세까지 소득활동 예정

- ▶ 이직 및 휴직기간 등을 포함

**To PRG: 최소 0, 최대 1000**

A-Q5. 귀하는 대학 졸업 후 소득활동(취직, 창업 등)을 할 경우 고졸 근로자 평균 임금의 몇 % 정도를 받을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 1) 20대 근무시 고졸 근로자의 \_\_\_\_\_%
- 2) 30대 근무시 고졸 근로자의 \_\_\_\_\_%

- 3) 40대 근무시 고졸 근로자의 \_\_\_\_\_%
- 4) 50대 근무시 고졸 근로자의 \_\_\_\_\_%
- 5) 60대 근무시 고졸 근로자의 \_\_\_\_\_%
- 6) (생애 근로기간의 평균) 고졸 근로자의 \_\_\_\_\_%
- ▶ 최소입력 가능 값은 10(%), 최대입력 가능 값은 1000(%)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10%는 고졸자 임금의 10% 수준, 100%는 고졸자와 같은 수준의 임금, 1000%는 고졸자의 10배 수준의 임금을 받을 것을 예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To PRG: 보기 로테이션

- A-Q6. 귀하께서 생각하는 대학교육의 가장 큰 비용은 무엇입니까? [1개 선택]
- 1) (대학 재학기간 동안) 고등학교 졸업 후 취직한 경우 벌 수 있었던 임금  
※ 이 임금을 아래 문항에서 '대학재학 기간 중 포기임금'으로 지칭
- 1) 학비
- 1) 생활비
- 1) (대학 재학기간 동안의) 시간과 자유

### To PRG: 최소 0, 최대 9, 소수점 입력 가능

- A-Q7. 귀하께서 생각하는 대학교육의 경제적 비용(학비, 생활비, 포기임금 등 포함)의 총액은 얼마입니까? (소수점 입력 가능)
- 학비 \_\_\_억 \_\_\_천만원
- 생활비 \_\_\_억 \_\_\_천만원
- 대학재학 기간 중의 포기임금 \_\_\_억 \_\_\_천만원
- 기타 \_\_\_억 \_\_\_천만원
- 총 \_\_\_억 \_\_\_천만원

## B. 대학생의 재학 혹은 휴학 중 근로실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시다면 소득이 동반되는 주된 일자리를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To PRG: 최소 0, 최대 12 드랍박스 처리

- B-Q1. 귀하는 1년에 평균적으로 몇 개월 정도 **소득활동**(수입이 되는 일)을 하십니까?
- 약 \_\_\_\_\_개월 → 0으로 응답시 C-Q1으로 이동

**To PRG: 최소 0, 최대 24**

B-Q2. 귀하는 1년에 평균적으로 몇 번정도 소득활동을 위한 일자리를 바꾸십니까?  
약 \_\_\_\_\_개

B-Q3. 귀하는 현재 소득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1개 선택]1) 수입이 되는 일(소득활동)을 하고 있음2) 수입이 되는 일(소득활동)을 하고 있지 않음

**To PRG: B-Q3번에서 1)라고 답한 경우에만 질문**

**시작연도 최소 2000, 최대 2016, 종료연도 최소 2016, 최대 2076**

B-Q4. 귀하는 현재 일(소득활동)을 언제부터 시작하셨으며 언제까지 하실 계획입니까?\_\_년 \_\_월부터 \_\_년 \_\_월까지

**To PRG: B-Q3번에서 2)라고 답한 경우에만 질문**

**시작연도 최소 2000, 최대 2016, 종료연도 최소 2000, 최대 2016**

B-Q4. 귀하께서 가장 최근에 그만 둔 일(소득활동)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종사하셨습니다까?\_\_년 \_\_월부터 \_\_년 \_\_월까지

B-Q5 귀하께서 현재 또는 가장 최근에 그만 둔 일(소득활동)의 고용상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1개 선택]1) 정규직 임금 근로자2) 비정규직 임금 근로자3) 종업원 있는 고용주 4) 종업원 없는 자영업자 5) 무급 가족 종사자

B-Q6. 귀하께서 현재 또는 가장 최근에 그만 둔 일(소득활동)의 근로시간 형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1개 선택]

- (1) 시간제 근로
  - 1) 파트타임,아르바이트로 일하거나
  - 2) 계약된 근로시간이 주 35시간 미만인 경우
- (2) 전일제 근로 3) 시간제 근로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

B-Q7. 귀하께서 현재 또는 가장 최근에 그만 둔 일(소득활동)의 계약 기간에 따른 종사상 지위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1개 선택]

- (1) 상용직
  -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이거나
  - 2) 정해진 계약 기간 없이 본인이 원하면 계속 일할 수 있는 경우
- (2) 임시직
  - 3)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근로자이거나

- 4) 근로계약기간이 없더라도 1년 이내에 이 일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  
(단,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하였거나 앞으로도 계속 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임시직입니다)

## (3) 일용직

- 5)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이거나  
6) 매일매일 고용되어 일당제 급여를 받고 일하거나  
7) 일정한 장소 없이 돌아다니면서 일한 대가를 받는 경우

**To PRG: 보기 로테이션**

B-Q8. 귀하께서 현재 또는 가장 최근에 그만 둔 일(소득활동)에서 담당한 업무는 다음 중 어느 직종에 해당됩니까? [1개 선택]

- 1) 사무종사자  
1) 서비스 종사자  
1) 판매 종사자  
1) 농림어업 종사자  
1) 기능,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1) 단순 노무 종사자  
1) 교육 종사자

**To PRG: 보기 로테이션**

B-Q9. 귀하께서 현재 또는 가장 최근에 그만 둔 일(소득활동)에서 담당한 일은 다음 중 어느 업종에 해당됩니까?

- [1개 선택] 1)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1) 제조업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1)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1) 건설업1) 도매 및 소매업 1) 운수업 1) 숙박 및 음식점업1)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1) 금융 및 보험업1) 부동산업 및 임대업  
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 교육 서비스업  
1)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B-Q10. 귀하께서 현재 또는 가장 최근에 그만 둔 일(소득활동)에서 담당한 일은 대학교육이 필요한 일입니까? [1개 선택]

- 1) 예 2) 아니오

B-Q11. 귀하께서 현재 또는 가장 최근에 그만 둔 일(소득활동)에서 담당하는 일은 현재 전공분야의 학습에 도움이 되는 일입니까? [1개 선택]

- 1) 예
- 2) 아니오

**To PRG: 월 평균 임금 최소 0, 최대 1000, 소수점 입력 가능**  
**월 평균 근로시간 최소 0, 최대 500, 소수점 입력 가능**  
**시간당 임금 최소 0, 최대 500, 소수점 입력 가능**

B-Q12. 귀하께서 현재 또는 가장 최근에 그만 둔 일(소득활동)의 월 평균 임금(세금 포함), 월 평균 근로시간, 시간당 임금은 얼마입니까?

월 평균 임금 약 \_\_\_\_\_만원, 월 평균 약 \_\_\_\_\_시간 근무, 시간당  
 임금 약 \_\_\_\_\_천원 (소수점 입력 가능)

**To PRG: 연 평균 임금 최소 0, 최대 10000, 소수점 입력 가능**  
**시간당 임금 최소 0, 최대 500, 소수점 입력 가능**

B-Q13. 귀하께서 과거에 했던 혹은 앞으로 할 근로를 포함하여 1년에 평균적으로 벌어드리는 임금은 얼마입니까(세금 포함)?

연 평균 약 \_\_\_\_\_만원, 시간당 약 \_\_\_\_\_천원 (소수점 입력 가능)

**To PRG: 보기 로테이션**

B-Q14. 귀하께서 재학 중 소득활동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1개 선택]

- 1) 학업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학비, 생활비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 1) 학업 외 다른 목적(여행, 소비, 창업, 독립 등)으로 돈이 필요해서
- 1) 재학 중 근로경험은 다른 곳으로 취직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 1) 진로 및 적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 1) 재학 중 근무한 곳에 최종 취직하기 위해서
- 1) 일이 의미 있고 흥미롭기 때문에
- 1) 학교만 다니기는 생활이 무료해서
- 1) 인생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기 위해서

**To PRG: 보기 로테이션**

B-Q15. 귀하께서 재학 중 소득활동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1개 선택]

- 1) 강의시간과 근무시간의 조율
- 1) 근무로 인해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피곤함
- 1) 학업집중에 어려움
- 1) 일 자체가 지루하거나 무의미함

**To PRG: 보기 로테이션**

B-Q16. 귀하께서 취업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귀하께서 취업 시에 한 가지를 포기해야 한다면 다음 중 무엇을 포기하시겠습니까? [각각 1개 선택]

- 1) 의미 있는 일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흥미롭고 중요한 일
- 1)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여가나 자유시간 보장
- 1) 원하는 것은 살 수 있는 월급
- 1) 고용의 안정성
- 1) 개인의 발전가능성
- 1) 직업의 장래성
- 1) 직장의 소재지 또는 위치

**C. 대학재학 중 상용직 근무 희망 여부 및 조건**

C-Q1. 대학교 수업 및 활동에 참석/참가할 수 있는 시간이 보장되며 상용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다면, 귀하는 대학재학 중 상기 일자리에서 근무할 의향이 있습니까? [1개 선택]

- 1) 예
- 2) 아니오 → C-Q14로

▶ 상용직이란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정해진 계약 기간 없이 본인이 원하면 계속 일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C-Q2. 대학교육과 병행이 가능한 상용직 일자리가 전공학습과 무관한 경우에도 귀하는 근무할 의향이 있습니까? [1개 선택]

- 1) 예
- 2) 아니오

C-Q3. 대학교육과 병행이 가능한 일자리에서 상용직 혹은 임시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귀하는 언제 근무를 원하십니까? [1개 선택]

- 1) 방학기간에만 근무
- 2) 정규학기 포함 연중 시간제로 근무

C-Q4. 대학재학과 병행이 가능한 일자리에 정규학기 중에 상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귀하는 다음 중 어떤 형태의 근무를 원하십니까? [1개 선택]

- 1) 전일제 근무 - 수업이 없는 평일에만 근무
- 2) 전일제 근무 - 수업이 없는 평일과 주말에 근무
- 3) 시간제 근무 - 평일에만 근무
- 4) 시간제 근무 - 평일과 주말 모두 근무



C-Q11. 대학재학 중 근무할 수 있는 일자리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1개 선택]

- 1) 급여
- 2)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 3) 업무내용(예, 전공과의 일치도)
- 4) 대학재학 중 동일 직장에서의 장기근무 가능 여부
- 5) 대학졸업 후 동일 직장에서의 근속가능 여부
- 6) 근무경험이 대학졸업 후 다른 직장으로의 이직에 기여하는 지 여부

C-Q12. 현 정부에서는 대학생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대학졸업자를 대상으로 한시적 일자리(예, 공공기관 인턴 등)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학졸업 후 대졸자 일자리에 한시적으로 취직하는 경우와 대학재학 중 근무하던 직장에서 고졸자에서 대졸자 일자리에 이동이 가능한 경우 중 어떤 일자리를 더욱 선호하십니까? [1개 선택]

- 1) 대학졸업 후 한시적 일자리 취직
- 2) 대학재학 중 근무하던 직장에서 대졸자 일자리로 이동

**To PRG: 8번 졸업희망 여부 질문에서 ①예라고 답한 경우에만 질문  
대학 입학연월 및 졸업 예정연월을 이용하여 대학소요기간 자동계산  
드랍박스 처리, 년월 최소 0, 년 최대 20, 월 최대 12**

C-Q13. 귀하께서 응답하신 대학 입학연월 및 졸업 예정연월을 바탕으로 하면 졸업까지 총 prefill년 prefill개월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대학재학 중 근로를 한다고 가정하면 대학졸업까지 얼마의 시간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대학재학 중 근무로 대학졸업까지 약 \_\_\_\_\_년 \_\_\_\_\_개월 추가 소요

**To PRG: 8번 졸업희망 여부 질문에서 ②아니오라고 답한 경우에만 질문**

C-Q13. 귀하는 대학 졸업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셨는데, 대학교육과 병행이 가능한 자리에서 재학기간 중 시간제로 근무하며 경제적 어려움이 어느 정도 해결되는 경우 귀하의 대학 졸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1개 선택]

- 1) 예
- 2) 아니오

C-Q14. 귀하는 고졸 일자리에 정규직으로 취직하는 것과 대졸 일자리에 비정규직으로 취직하는 것 중 무엇을 더 선호하십니까? [1개 선택]

- 1) 고졸 정규직 일자리
- 2) 대졸 비정규직 일자리

**To PRG: 최소 20, 최대 100**

C-Q15. 귀하는 고등학교 졸업 후 취직을 하신다면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소득활동을 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만 \_\_\_\_\_세 시작해서 만 \_\_\_\_\_세까지 소득활동 예정

▶ 이직 및 휴직기간 등을 포함

**To PRG: 아래 안내문구를 무작위로 제시.**

**“2015년 기준 37% 이상의 4년제 대졸 근로자의 직무내용과 전공이 불일치하며, 2015년 경력구인비중은 78.6%, 신입구인비중은 21.4%로 신입직보다 경력직을 선호하는 비중이 3배 이상 높은 상황입니다.”**

C-Q16. 귀하는 대학재학 중 시간제 상용직으로 근무한 경험(업무 내용은 전공과 무관할 수 있음)이 졸업 후 희망하는 일자리를 구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1개 선택]

- 1) 예
- 2) 아니오

## D. 대학진학에 대한 현재 평가

**To PRG: 보기 로테이션**

D-Q1. 귀하께서 대학에 진학한 이유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1개 선택]

- 1) 취직시 임금 및 근무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 1) 사회생활에 필요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서
- 1) 사회인으로서 필요한 자질양성(예, 시민의식 등)을 위해서
- 1) 고졸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서 자유롭기 위해서
- 1) 부모님의 권유와 주변 친구들의 대학진학 때문에
- 1) 진로 및 적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 1) 학업에 흥미를 느껴서

**To PRG: 보기 로테이션**

D-Q2. 귀하께서 기대하는 학사학위 취득의 가장 큰 효과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1개 선택]

- 1) 경제적 이익(임금, 정년, 고용형태 등)
- 1) 적성 및 가치관에 맞는 일자리에 취직(직무내용, 여가, 일생활 양립 등)
- 1) 인간관계의 확대(친구, 배우자 등)
- 1) 학문적 호기심 충족(전공지식, 교양 또는 문화적 지식 등)
- 1) 고졸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서 벗어남

- 1) 직무수행능력 확대
- 1) 사회생활에 필요한 능력 향상(대인관계, 문제해결 능력 등)

**To PRG: 보기 로테이션**

D-Q3. 귀하께서 생각하는 대학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1개 선택]

- 1) 취직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기술 습득의 어려움
- 1) 직무수행능력 외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타 능력 개발의 어려움
- 1) 지나치게 높은 등록금
- 1) 대학교육의 서열화
- 1) 대학교육의 평준화
- 1) 대학에서의 인간 관계의 부재
- 1) 취직만 강조하는 풍토
- 1) 대학교육의 대중화(지나치게 높은 대학진학률)

D-Q4. 귀하는 대학졸업 후 고졸자에 비해 어떠한 경제적 및 사회적 위치에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각 1개 선택]

구분	고졸자					고졸자 및 대졸자	대졸자				
	하위 5%	하위 25%	중위 50%	상위 75%	상위 95%		평균	하위 5%	하위 25%	중위 50%	상위 75%
경제적 지위	하위 5%	하위 25%	중위 50%	상위 75%	상위 95%	평균	하위 5%	하위 25%	중위 50%	상위 75%	상위 95%
사회적 지위	하위 5%	하위 25%	중위 50%	상위 75%	상위 95%	평균	하위 5%	하위 25%	중위 50%	상위 75%	상위 95%

**To PRG: 아래 안내문구를 무작위로 제시.**

**“2015년 기준 고졸자의 월 평균 임금은 212만원, 대졸자의 월 평균 임금은 350만원으로, 고졸자는 대졸자 임금의 65% 수준을 받고 있습니다.”**

D-Q5. 귀하는 대학 졸업 후 소득활동(취직, 창업 등)을 할 경우 고졸 근로자 평균 임금의 몇 % 정도를 받을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생애 근로기간의 평균) 고졸 근로자의 \_\_\_\_\_%

- ▶ 최소입력 가능 값은 10(%), 최대입력 가능 값은 1000(%)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10%는 고졸자 임금의 10% 수준, 100%는 고졸자와 같은 수준의 임금, 1000%는 고졸자의 10배 수준의 임금을 받을 것을 예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



◆ 執筆陣

- 오선정(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 김세움(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대학진학의 선택과 노동시장 성과

- 발행연월일 | 2016년 12월 24일 인쇄  
2016년 12월 30일 발행
- 발 행 인 | 방 하 남
- 발 행 처 | **한국노동연구원**  
☎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 대표 (044) 287-6080 Fax (044) 287-6089
- 조판·인쇄 | 고려씨엔피 (02) 2277-1508/9
- 등록 일자 | 1988년 9월 13일
- 등록 번호 | 제13-155호

© 한국노동연구원 2016      정가 7,000원

ISBN 979-11-260-0109-5